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 동굴 밖으로

(JOURNEY OUTSIDE 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英學科

梁永才

2016年 2月

# 동굴 밖으로

(JOURNEY OUTSIDE 翻譯論文)

指導教授 박 경 란

梁 永 才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 年 2月

梁永才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 ①

委 員 ----- ①

委 員 ----- ①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6年 2月



## 동굴 밖으로

매리 Q. 스틸

뉴베리 수상작

‘초록빛’, ‘낮’ 이외에 기억하는 것은 없지만 할아버지는 그들이 더 나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딜라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 않았다. 큰 고리모양의 어두운 지하 강을 따라 같은 자리를 맹목적으로 돌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다소 충동적으로 뗏목에서 바위로 뛰어 올라가서 뗏목 행렬이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만약 그가 옳다면 뗏목들은 곧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바위틈에 쥐 떼가 드글거렸고, 공포심과 절망 속에서 동굴 천정에 난 좁은 틈으로 들어갔다. 미친 듯이 벽을 타고 올랐고, 갑자기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매우 아름답고 신기해서 자신이 죽은 거라고 생각했다. 낮과 태양, 나무, 하늘이 있는 세상이었다.

빠른 속도로 이야기가 진행되며, 긴장과 흥분으로 가득한 「동굴 밖으로」는 모험 소설 그 이상이며, 때론 두렵고 때론 아름답기도 한 이해하기 힘들고 이상한 세상에서 진정한 답을 찾아가는 동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 제 1 장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노인은 생선가시로 만든 스푼을 떨어뜨렸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면서, 뗏목 바닥으로 바짝 몸을 수그렸다. 딜라가 빠르게 지나갔고, 그 바람에 스푼 통이 좌우로 흔들렸다. 그러고 뗏목 끝에서 물속으로 뛰어 들자 물이 불에 튀며 쉬익 하는 소리가 났다.

할아버지는 몸을 일으키고, 떨어진 스푼을 집어 들었다.

“딜라, 조심하렴. 물속에 율리마가 있어. 오늘 아침에 하나를 봤어.” 할아버지가 외쳤다.

딜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년은 그 옆 뗏목을 향해 계속 헤엄쳤고, 힘겹게 뗏목에 올랐다. 그리고 일어서서는 또 달렸다. 네 식구가 타고 있던 뗏목은 길어서, 딜라가 속도를 더 낼 수 있었다. 그 중 한 여자가 쓴살같이 달리는 소년을 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나머지 대부분 그걸 본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는 한 번 더 머리부터 물속으로 뛰어들고는 약하게 깜박거리는 생선기름으로 불인 햇불의 빛을 벗어나 뗏목들 사이 어두운 곳으로 전속력으로 헤엄쳤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는 아니었다. 뗏목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아주 약한 빛이 점점 시들해지고 있었고, 수천 개의 불빛이 수면에 비춰 반사되는 것처럼 보였고, 강의 수면위에는 항상 희미한 빛이 있었다.

몇 분 후, 그는 앞에 비마의 뗏목 위에서 빛나는 햇불을 보았다. 조금 더 속도를 내어 십여 차례 팔을 내저은 끝에 그 뗏목의 가장자리에 손을 올려놓을 수 있었다. 뗏목 위로 올라가지는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정도 거리에서도 비마의 아빠가 화가 나 있으며, 비마와 함께 그 어떤 놀이도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빠를 도와 생선이 가득 찬 그물을 잡아당기던 비마는 딜라 쪽을 훑 보았다. 비마는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여동생이 옆에 서서, 생선을 바로 먹을 것과 말릴 것, 엄마와 남동생이 두 개의 바위로 눌러서 기름을 짜낼 것으로 나누는 걸 도우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큰 생선의 가죽을 벗기려고 칼을 들고 있었

다.

딜라는 그 가족을 보았다. 엄마와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살면 어떨지 궁금했다. 소년의 엄마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이제는 기억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 후론 아빠와 할아버지가 가족의 전부였다.

물론, 뗏목 족 중에 비마의 부모님네만 아이들이 셋 이다. 대부분은 둘이었고, 하나이거나 아이가 없는 집도 더러 있었다.

딜라의 아빠가 자주 말하듯이, 23척의 뗏목이 22척으로 줄어드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21척. 그 다음은 20척?

딜라는 오싹했다. 비마 아빠가 최근 들어 자주 기분이 언짢아지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딜라에게는 불안하고, 뗏목과 강, 바위가 죽 늘어진 물길, 생선 기름 햇불이 모두 하나의 회색빛처럼 보여 그가 알지 못하는 위협이 있다고 느끼거나, 삶이 허무하고, 가치 없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그는 이런 순간을 싫어했다. 삶이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느꼈다.

딜라는 비마가 다시 그를 흘깃 보는 걸 알고는 동정어린 표정을 지으며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 뗏목을 밀어 치면서 조용한 물살을 거슬러 천천히 헤엄쳤다.

딜라는 대개 놀이를 하거나 뗏목 대열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나는 곳까지 빠르게 달리거나 헤엄을 치면서 두렵거나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린다. 비마의 아빠를 보기 전에는 우울하지는 않았다. 그저 지루했다. 하지만 화가 난 비마의 아빠 얼굴을 보면 딜라는 항상 우울해졌다.

무언가 물속에서 다리를 스쳐 지나갔다. 커다란 것이었다. 딜라는 빠르게 헤엄쳤다. 윌리마라는 녀석이 정말 있는 걸까? 할아버지는 항상 물 위로 올라온 커다란 그 녀석의 지느러미를 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뗏목을 따라 슬며시 움직이는 커다란 촉수 또는 새의 부리모양을 가진 그 큰 입이 그물을 뜯어 그 속에 있는 생선을 모두 먹어치우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딜라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림자 같은 것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흥미진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뗏목 사이를 헤엄치는 게 스릴 넘치는 모험이 될 테니까.

이제 소년은 기다란 뗏목의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뛰지 않고 걸었다. 뗏

목 끝에서 물속으로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가 할아버지가 계신 뗏목까지 헤엄쳐 갔다. 모서리를 잡았을 때 가장 바깥쪽 통나무가 썩어가고 있는 게 또 보였고, 그 순간 그가 붙잡은 나무에서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최근 들어 할아버지가 그 통나무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는 모습도 여러 번 본 터였다.

그는 생선가죽으로 만든 바지를 손으로 쓸고, 물을 털어냈다. 할아버지는 요리하는 불 가까이로 밀라가 젖은 채로 오는 걸 원치 않았다. 불에 물을 똑똑 흘리면 불이 꺼진다고 할아버지는 투덜거리셨다. 밀라는 최대한 물기를 말리고,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가 생선스튜 한 사발을 건네 주셨다.

“비마는 어디 있든?” 할아버지가 물었다.

“일하고 있어요.” 밀라가 답했다. 그는 스튜를 조금 삼켰다.

어쩌면, 밀라는 비마한테 경주하자고 하는 것 대신에 여기에서 아빠를 도왔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밀라네 가족은 이미 말린 생선, 싱싱한 생선을 많이 쌓아두었고, 기름이 가득 든 가죽 부대들과 햇불도 한 더미 있었다. 만약 지금 아빠가 생선이 가득한 그물을 킁킁대며 끌어 올리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일거다.

밀라는 남은 스튜를 조용히 먹고는 뗏목 가장자리로 가서 큰 조개로 만든 그릇을 씻어냈다.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 우뚝투뚝한 바위벽이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는 걸 보았다. 같은 게 계속 반복됐다. 그는 눈을 찡그렸다. 불그스름한 표시가 있는 특이한 모양의 바위가 눈에 띄었다.

소년은 그릇을 불가로 도로 가져갔다. 할아버지는 그릇을 받아들고 제자리에 집어넣었다. 할아버지는 모든 물건의 자리를 정해두는 분이다. 밀라는 할아버지는 정리된 그릇들을 끄집어내야 하는 식사 시간을 싫어하실 거라며 놀리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쳐다보기만 할 뿐, 밀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월리마를 봤니? 잠시 후에 할아버지가 물었다. 밀라는 할아버지가 그저 말을 걸기 위해서 묻고 있다는 걸 알았다.

몇 초 동안 할아버지를 쳐다보고는 말했다.

“할아버지” 부드럽게 불렀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죠?”

노인은 말린 생선 조각을 불 속에 집어넣으며 불을 살리느라 바빴다.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있단다.”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어디보다 더 나은 곳이에요? 딜라가 집요하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뭔가 불편한 기색이었다. “이전에 있던 곳보다 더 나은 곳에 가는 거지.” 거북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딜라는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그걸 어떻게 안다는 거지? 누가 이전에 있었던 곳을 기억한다는 거야?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그걸 기억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딜라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뭔가 “초록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뭔가 “낮”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할아버지,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 가는 거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우리는 같은 자리를 돌고, 돌고, 또 돌고 있어요. 같은 동굴과 같은 절벽을 매번 보는 것 같아요.” 딜라가 천천히 말했다.

“쉿, 조용히 해!” 노인이 외쳤다. “못된 소리 하고는. 그런 게 아니야. 너도 알게 될 거라고. 나도 생전에 ”더 나은 곳“을 보게 될 거야.”

“딜라!”

딜라는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아빠는 딜라가 할아버지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딜라도 알았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를 화나게 하려던 것은 정말 아니었다. 하지만 그 건 딜라에게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심각한 문제였고,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이다. 비마에게도 한 두어 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 이야기는 비마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포기했다.

그 외에 그것에 대해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아빠는 아니었다. 아빠는 결코 대답이 없었고, 생선 그물만 계속 끌어올렸다.

그물이 이제 꼭 찼다. “여기 와서 좀 도와주렴.” 아빠가 불렀다. 딜라는 벌떡 일어나서 그물을 뗏목위로 끌어 올리러 갔다. 큰 물고기 세 마리와 열 두어 마리쯤 되는 작은 물고기가 잡혔다. 아빠는 재빨리 몸을 굽혀서 돌칼로 등뼈를 한 마리씩 잘랐다.

“이것들을 미말과 리마 부부에게 가져다 줄 거야.” 몸을 세우며 아빠가 말했다.

미말과 리마 부부는 딜라와 아빠, 할아버지와 가장 작은 뗏목을 함께 사용한다. 그 나이 많은 부부의 단 하나 있던 자식은 결혼해서 뗏목 행렬의 두 번째 뗏목에서 살고 있다.

리마아저씨는 노쇠했고, 자주 낚시를 할 수 없었다. 딜라의 아빠는 그물 가득히 낚은 생선을 그 부부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주 가져다 주었다.

이제 딜라는 생선가죽 무더기와 햇불 더미를 지나 아빠를 따랐다. 아빠가 부드럽게 말했다. “할아버지를 괴롭히지 말거라.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아서 그런 장난은 좋지 않아.”

“장난한 게 아니에요.” 딜라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저는 알고 싶었다고요. 아빠도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물을 들고 계속 걸을 뿐이었다.

아빠가 식사를 하고 그릇을 제자리에 놓은 후, 취침 시간을 알리는 소라나팔이 울렸다. 취사용 불이 꺼졌고, 뗏목 가운데에 있는 햇불 하나를 빼고는 모두 다 꺼졌다. 딜라는 말린 물품로 직접 만든 돛짚자리에 누웠다. 소년은 생선 가죽 위에서 자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누워서 주변의 희미한 빛이 깜박거리는 것을 바라보고, 머리 아래서 물이 속삭이며 부드럽게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이 부족했다.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틀림없이 있었다. 한번은 비마와 함께 햇불의 빛이 보이지 않는 만큼 멀리 뗏목들 앞으로 헤엄쳐 나간 적이 있다. 선반처럼 놓인 암석으로 올라가 뗏목들이 떠올라 보일 때까지 어둠속에 앉아 있었다. 만약 그가 그 암석에 표식을 해두거나 돌을 쌓아두거나 어떤 거든 해두었다면, 그 쪽으로 지나갈 때 마다 그 표식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설령 아무도 그를 믿어 주지 않는다 해도, 자신은 알 수 있었을 텐데. 확실히 알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소년은 알고 있었다. 그가 설득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식구외의 다른 사람들이었다. 벽에 천 개의 표시와 천 개의 돌무더기가 있더라도 할아버지는 우리가 같은 곳을 계속 돌고 있다는 걸 믿지 않을 것이다. 돌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동굴의 천장은 100 피트쯤 계속해서 서서히 낮아지는데, 가장 낮아진 지점은 딜라가 일어서면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얼마나 자주 지난 곳인가! 이 끝없이 구불구불한 동굴 속에 이 정도로 낮은 곳이 그렇게나 많을까?

천정이 낮은 이곳을 똑같은 장소라는 걸 깨닫지 못한 채 반복하여 지났단 말인가?

소년이 안절부절 못하고 몸을 돌리자, 아래 깔린 마른 물풀이 바스락 거렸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서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해 잠겼다.

이제 그들의 뗏목은 동굴의 좁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 물의 흐름이 소리를 내며 빨라졌다. 한쪽 벽과 뗏목이 매우 가까워져서 딜라는 겨우 보이는, 절벽에서 튀어나온 좁고 판판한 돌 위로 살짝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물과 횃불을 움켜쥐었다. 뗏목 위에 살아있는 마지막 불에 횃불을 갖다 대 빠르게 불을 붙이고, 뗏목 가장 자리로 가서 바위의 가장자리로 뛰어 올랐다. 잠시 중심을 잡기 힘들었지만, 평평한 바위에 안전하게 올라갔다. 뗏목이 점점 멀어지고, 잠깐 어두워지더니, 곧 다음 뗏목이 왔다. 딜라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실은 뗏목들이 지나가는 걸 보았다. 하나가 지나가면 다음 뗏목이 지나가고, 또 다음 뗏목이 지나갔다. 딜라는 횃불을 움켜잡고 그 모습을 응시하고 있었다. 뗏목은 조용하고 잠잠하게 미끄러지듯이 이동하였지만, 딜라의 심장은 가슴이 아플 정도로 쿵광거렸다.

뗏목들은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잠시 후 사라졌다. 어둠이 깊어졌고, 빛을 내는 것은 모두 사라졌다. 어둠과 물소리뿐이었다. 행렬 중에 마지막 뗏목이 흘러가고는, 정말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다.

## 제 2 장

딜라는 마지막 뗏목의 어슴푸레한 빛이 사라져가는 쪽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선반 같은 돌 위에 쭈그러 앉았다. 그는 한방에 모든 걸 해냈다. 오랫동안 소년은 뗏목 쪽이 저쪽으로 다시 와서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그를 발견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하며 흐려지는 불빛을 응시했다. 할아버지는 뭐라 하실까? 비마는 또 뭐라고 할까? 할아버지를 한번 웃으실까? 아니면, 더욱 슬퍼지실까?

햇불이 떨어졌고, 제대로 붙지 못한 작은 불꽃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딜라는 상상 속에서 깨어나며 벌떡 일어나 사그라져가는 불꽃을 걱정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반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졌다. 만약 그가 틀렸다면? 뗏목들이 다시는 여기로 오지 않는다면? 이 좁은 바위 선반위에서 남은 평생을 살아야 하고, 다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소년은 공포감이 목구멍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또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깊게 숨을 고르고는 참았다. 비명을 질러봐야 소용이 없었다. 뗏목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슨 득이 되겠는가?

뗏목 뒤로 헤엄쳐서 갈 수는 있을 거다. 이곳은 물살이 아주 세서, 센 물살의 추진을 받아 빠르게 갈 수는 있다. 하지만, 빠른 물살 때문에 뗏목들도 빠르게 달릴 것이다. 너무 오래 있었다. 뗏목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거다. 뗏목 행렬을 보기도 전에 그는 아마 탈진해서 거친 물살에서 익사할거다.

아니다. 그는 겁에 질려 그물과 반대쪽이 아닌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물고기처럼 어리석었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불도 있고, 그물도 있다. 강에는 물고기가 바글바글했다. 그의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생선 비늘과 물풀 가닥을 이용하는 법을 터득했다. 그걸 이용해서 생존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뗏목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라고 스스로에게 단호히 말했다. 그게 사실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뗏목들은 다시 돌아오리라. 그는 똑같은 동굴과 바위만 반복해서 지나친 게 아니다. 아빠의 눈과 비마네 아빠의 성난 표정과 십여 개의 다른 곳에서도 그 답을 알 수 있었다.

소년은 커다란 달팽이 껍데기를 생선뼈 틈에 박아서 만든 햇불을 점검했다. 달팽이 껍데기는 생선의 말린 내장 조각들과 생선 기름을 흠뻑 적신 물풀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햇불은 아주 밝게 비추지는 않지만, 오래 간다. 밀라는 기름을 섞고 불꽃이 골고루 번지도록 물풀을 가볍게 불었다. 그리고는 흐린 불빛을 최대한 이용하며 바위의 좁은 판을 따라 걸으며 살폈다.

처음에는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걸었다. 하지만 몇 분후 단호히 돌아섰다. 뗏목 행렬이 다시 돌아올 땐 반대 방향에서 오리라. 뗏목을 다시 보기 위해 바위 위로 걸을 수 있는 한 멀리까지 걸어가려했다.

긴 뗏목의 길이 보다 더 긴 거리 정도, 꽤 멀리까지 걸을 수 있었다. 길은 울퉁불퉁했고, 갈라진 틈이 많았다. 여러 번 휘청거렸고 자갈에 발이 아팠다. 절벽을 따라 계속 걷다가, 길이 좁아졌을 때 불을 물에 떨어뜨려 꺼뜨리게 될까봐 멈추어 섰다. 피곤했다. 좀 자고 일어나면 더 나은 계획이 생각나리라.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말리고 무엇보다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평평한 바위 위에 불을 피워두고, 햇불을 들고 양방향으로 가능한 한 멀리까지 가 볼 것이다. 피워둔 불이 있으니까, 햇불을 든 채로 강물에 빠지더라도 괜찮을 거다.

가장 넓어 보이는 바위가 나올 때까지 온 길을 되짚어 갔다. 햇불을 바위틈에 끼워두고 한잠 푹 자고 일어날 때까지 꺼지지 않을 지 살펴보았다. 꺼지지 않을 것 같았다.

마침내, 자려고 누웠는데 바위가 너무나 딱딱하고 차가웠다. 또 찰랑찰랑, 철썩철썩 물이 벽을 때리는 소리는 뗏목 아래에서 나던 잔잔한 강물 소리와는 달리 기괴하게 들렸다.

영원히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빙빙 도는 게 낫지 않았을까? 혼자서 지내는 것보다는... 갑작스러운 절망과 분노로 일어섰는데, 무언가 급히 움직이는 소리가 났고, 그의 손을 스쳐 지나갔다. 벌떡 일어나 노려보았다.

어둠속에서 뭔가가 바위를 따라 모여들어 서로 미끄러지며 동굴 벽 위로 뛰어오르는 게 보였다. 코끝이 뾰족하고, 어깨가 솟아올라있고, 꼬리에는 털이 없었다. 불빛으로 다가와 가까이서 보니 눈은 분노로 사악하게 빛나고 있었다.

밀라는 이전에 동굴 벽에서 노려보고 있는 그것들을 한두 번 언뜻 본적이 있다. 그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뗏목 족 사람들도 몰랐다. 아주 드물게 그것들 중 하나가 물에 들어가 뗏목 행렬을 따라 헤엄쳤고, 할아버지는 모두가 잠들면 그것들이 뗏목위로 올라오기도 한다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와 비마의 엄마는 추하고 혐오스러운 모습과 뾰족한 이빨, 비늘로 뒤덮인 꼬리 때문에 그것들을 무서워했다.

딜라도 갑자기 조금 소름이 끼쳤다. 수백 수천 마리의 그것들이 햇불의 희미한 불빛 바깥쪽에 앞뒤로 쉼 없이 모여들었고, 몸이 미끄러지며 내는 이상한 소리에 오싹했다. 이따금씩 새된 끼익 소리와 날카로운 마찰 소리가 났다. 딜라는 집어던질 돌을 찾았다. 하지만 주변엔 작은 조약돌 뿐 이었다.

딜라는 몸을 구부려 햇불을 움켜쥐었다. 그것들은 잠시 물러났지만 딜라가 햇불을 높이 들어서 주변을 밝히자 점점 더 많은 수가 딜라에게로 서둘러 모여드는 것이 보였다. 그것들은 딜라가 있는 평평한 판으로 거칠게 밀치며 모여들었고, 이따금씩 한 마리씩 물속에 빠지며 침방 소리를 냈다.

딜라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것들은 물고기와는 확연히 달랐다. 수천마리의 물고기라면 물속에서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어 다리를 야금야금 물어뜯을 것이고, 척추를 따라 느껴지는 간지러움 때문에 성가셔서 걷어차고, 물을 침방거리며 그들을 쫓아냈을 것이다.

어느 정도 거리에서는 그것들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다. 그것들의 모습과 길쭉한 노란 이빨은 혐오감을 느끼게 했지만, 그 혐오감 때문에 갑작스럽게 배가 경련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딜라에게서 무엇을 원하든지, 좋은 건 아니었다.

이제 그것들은 더 거칠게 앞으로 밀치며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서서히 딜라 가까이로 기어왔다. 그것들의 눈은 사납게 이글거렸다. 딜라는 햇불을 휘젓고, 고향을 지르려고 했지만 너무나 겁에 질린 나머지 성대가 두뇌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입을 벌리기만 했다.

더 가까이 다가왔다. 딜라는 벽을 향해 뒤로 물러섰다. 무리 중 하나가 딜라를 향해 쏘살같이 달려왔고, 이번엔 소리를 질렀고 뒤로 한발 뛰며 물러났다. 벽에 매달린 녀석과 살짝 부딪혔다. 딜라는 몸을 돌려 햇불을 거의 내던질 뻔했다. 햇불은 손에 꼭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 생겨도 불은 잃어선 안 된다.

그것들은 딜라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딜라는 그것들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걸 견딜 수 없었다. 소년은 바위에 등을 붙여 그것들 중 하나가 머리 위쪽에 매달려 있지 않은지 보려고 힐끗 올려다보았다.

벽에 깊은 틈이 보였다. 한쪽 입구가 소년이 있는 방향으로 나 있었다. 만약 그 틈으로 미끄러지면, 어쨌든 오른쪽, 왼쪽에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 생명체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것들도 따라왔다. 황급히 다른 틈으로 몸을 돌렸고, 좁고 가느다란 구멍의 끝 부분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다. 달라가 멀어지는 걸 보던 녀석들은 앞으로 밀려들어왔고, 달라는 바위틈으로 몸을 더 깊게 밀어 넣었다. 부드러운 바위가 만져졌고, 갑자기 좁고 작은 굴에서 벽을 타고 있었다. 그는 바위에 몸을 바짝 대고 발과 팔꿈치, 엉덩이에 힘을 주어 몸을 위로 올렸다. 햇불을 움켜쥔 채로 내려다보았다. 녀석들이 소년을 따라서 그 동굴로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그것들이 여기까지 기어 올라올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것들은 무엇이든 오를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반들반들한 바위는 부드러웠지만 녀석들은 반드시 발톱으로 움켜쥘 것을 찾아낼 것이다. 달라는 위쪽으로 조금씩 움직였다. 그의 뒤에 높고, 부드럽고 둥근 바위들이 있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주변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었지만, 그림자와 펄럭거리는 불빛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로 향하는 길인 듯했다. 굽는 듯 하는 소리와 함께 날렵하고 사악한 얼굴과 번뜩이는 눈빛이 바위의 가장자리를 따라 드러났다.

달라 뒤에 있는 매끈한 바위는 더 가파르고 오르기 힘들었다. 그것들에게로 등을 돌리는 건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다. 뒷걸음질 치듯 바위로 올라왔다. 여전히 햇불을 들고. 계속 분투했고, 한번은 미끄러지며 그 생명체들의 발톱과 이빨이 가득한 소굴로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겨우 멈출 수 있었다. 물가에서 멀어지니 그 생명체들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것들의 비명과 성난 소리, 달라를 초조하게 만드는 털 스치는 소리, 바위를 발톱으로 긁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것들은 바위 틈 안으로 몰려들었고 달라를 향해 서로 밀쳐 대서, 두려움에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가 좁은 공간에서 괴성처럼 울려 퍼지는 잠시 동안 그것들은 꼼짝하지 않았다. 하지만, 메아리가 멈추자 수천마리가 동시에 달라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그는 덜덜 떨며 오르고 올랐다.

무언가가 그의 발을 활쫘고, 또 다른 무언가가 발목을 스쳤다. 두려움과 절망감에 햇불을 그것들이 있는 아래쪽으로 내리 던졌다. 끼익하는 소리와 짹하는 소리가 달라의 비명소리를 삼켰다. 이제 양손이 모두 자유로워진 그는 혈떡이며,

반쯤 흐느끼며 빠르게 올랐다. 한 1분쯤 후에 그를 둘러싼 공기의 기운이 달라졌다. 바위는 축축하고 미끄러웠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지푸라기라도 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어둠을 뚫고 올랐다. 갑자기 특 트인 공간이 느껴졌다. 여태껏 호흡한 공기와는 다른 느낌의 공기가 느껴졌다. 습했지만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였다. 터널보다도 더 어두웠다. 마침내 일어설 수 있었다. 팔을 짚 뻗어보았는데 허공뿐이었다. 달라가 딛고 있는 바닥은 여전히 약간 울퉁불퉁했지만, 서서히 부드러운 모래바닥으로 이어졌다. 그리고는 뭔가 이상하고 물렁한 곳으로 이어졌는데 발아래서 속삭이며 구부리고 있는 어떤 것들이 가득이어 있었다.

기괴한 생명체들은 이제 달라를 떠났다. 주변은 소음과 여태껏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근원을 전혀 알 수 없는 묘한 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달라를 쫓아오던 녀석들이 내는 소리처럼 불길하거나 사악한 느낌은 아니었다.

소년은 두 손을 앞으로 모아잡고, 먼 길을 걸었다. 간혹 돌부리나 다른 것에 걸리기도 했지만, 잡을 수 있는 것도, 보이는 것도 없었다. 어디에도 바위벽이 없었다. 흐르는 강도 절벽도 없었고, 만질 수 있는 건 달라가 조심스레 딛고 있는 바닥 뿐이었다. 주변이 온통 축축했지만 이내 익숙해졌다. 결국 진이 다 빠졌을 때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잠이 들었다. 깨었을 때 무엇을 할지, 햇불 없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또는 그가 지내던 뗏목과 강으로 어떻게 돌아갈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잠이 들었다.

깨을 때, 그는 죽었다고만 생각했다.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다. 눈을 뜨고, 열은 안개와 멀리 떠가는 구름 쪽으로 바로 위를 쳐다보았다. 진주 같고, 부드럽게 빛나며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굴러다니는 구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끝이 없고, 깊이도 없고 영원하며 광대한 푸른 하늘의 곡선...

### 제 3 장

그대로 거기에 누워있었다. 수천 개의 햇불이 깜빡이는 그림자와 어둠을 멸하는 꿈을 꾸기도 했다. 그 꿈속에서 배경은 동굴의 좁은 벽과 낮은 천정이었다. 그 어떤 꿈도 이 끝없고 광대한 빛으로 가득 찬 텅 빈 공간에 대한 암시가 없었다.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우면서도 평생을 여행해도 끝에 닿지 못할 만큼 먼 이 공간.

빛이 점점 밝아 졌고, 달라는 빛이 비추는 방향으로 머리를 돌렸다. 세상의 끝 위에 구름 사이로 커다란 붉은 공이 걸려있었다. 눈이 부셔서 고개를 돌렸다.

무어라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어쩌면 강에 떠다니는 수초와 비슷한 어떤 넓은 것 한 가운데 누워있었다. 이것이 바닥의 모래와 진흙에 박혀 있는 유일한 것이었고, 색깔은 언젠가 봤던 햇불에 비친 어떤 생선의 한 쪽 면 또는 다리가 길쭉한 커다란 거미가 바위에서 거미줄을 타고 내려왔을 때 햇불에 반사된 눈과 같았다.

그것은 녹색이었다. 불현듯 깨달았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선명하고, 부드럽지만 눈부시고, 땅에 퍼져있으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상하게 생긴 것들 위로 기어 올라온다는 그것 이었다. 그리고 저만치 멀리에는 키가 크고, 회색의 미끈하고 둥근 것들이 있었다. 그것들 상반신은 이 녹색의 물체가 덮고 있었고, 머리 부분은 그것으로 칭칭 감겨있었다. 쪽 뺨은 팔은 그걸 잔뜩 이고 있었다.

이들은 생명체일까? 그것들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달라는 재빨리 일어나 그들을 향해 천천히 이동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동굴이 갈라지는 지점이나 커다란 동굴이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지점처럼 공기만 부드럽게 움직였다. 달라 앞에 있는 그 길쭉한 물체를 쳐다보며, 그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바람 때문이라고 단정 지었다. 즉,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었다.

하지만 더 가까이 가자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들 중 어느 부위가 살아있었다. 달라가 그 따뜻한 회색 몸체에 손을 갖다 댔을 때 그들이 살아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었다. 느낌으로 알았다.

녹색 수초 같은 것이 그들 몸의 아주 조그마한 손잡이 같은 것이 달린 작고 얇

은 조각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 조각은 만져보니 부드럽고 시원했다. 이 조각은 생선 비늘 같은 것일까? 단지 좀 크고, 부드러운? 딜라는 궁금해졌다. 아니다. 그 몸통의 거친 표면이 생선 비늘과 같아야 한다고 혼잣말했다. 한 쪽을 꺾어서 확인하려고 했다. 아래 있는 그 물체는 그에게 익숙한 것이었고 순간 이 물체들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들은 통나무였다! 둥글고 곧게 뻗은 나무였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아버지와 그의 조상들이 언젠가 어딘가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것들을 베어서 걸쭉질을 벗기고 여러 개를 이어서 뗏목을 만들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면 이곳이 확실히 바로 그 ‘더 나은 곳’이리라. 어떻게 이곳 보다 더 나은 곳을 꿈꿀 수 있겠는가. 나무 아래를 걸으면서 딜라는 경탄했다. 빛과 공간은 누구나 꿈꾸는 아름답고 경이로운 곳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나무 숲 뒤의 땅은 아래쪽으로 급한 경사를 이루었다. 딜라는 약간 두려웠다. 옆으로 기울어져 모든 것이 미끄러져 내려와 땅에 산더미를 쌓을 것처럼 이상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미끄러지는 것 같지 않았다. 한 줄로 늘어선 키 작은 나무가 언덕 아래 방향으로 늘어져 있었다. 딜라가 만약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나무 옆으로 가서 나무를 잡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소년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허공에 있는 무언가가 그가 있는 방향으로 다가왔다. 조그마한 물고기가 몸 양 옆에서 커다란 지느러미를 힘차게 펼치고, 점으며 하늘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놀라웠다. 그 물고기는 갑자기 키 작은 나무 꼭대기에 착지해서,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작은 다리를 뻗었다. 머리를 살짝 젖히고는 입을 열어 딜라가 이전에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냈다. 그 어떤 물소리도 그렇게 기쁨을 주거나, 달콤하거나 희망적인 소리를 만들지 못했다. 그 어떤 소리도 소년의 귀를 그렇게 울려본 적이 없었고, 그의 가슴을 이렇거나 격렬한 기쁨을 느끼게 한 적이 없었다. 소리가 멈추었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메아리가 쳤다.

물고기는 하늘 위로 날아가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딜라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경이로움에 어지러웠다. 어느 누가 짐작이나 하며, 누가 상상이나 하랴!

딜라가 비틀거리며 언덕 아래로 미끄러질 때 태양빛이 그를 비추고, 구름은 거

의 사라졌다. 따뜻한 기운이 기분 좋게 그를 감쌌고, 풀내음이 향긋했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몇 개의 하얀 바위 덩어리들이 다리로 서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딜라는 멈췄다. 그들 중 두 개가 가까이 다가와 부드럽게, 정확하게는 바보 같은 얼굴로 소년을 바라보다가 다시 풀밭에 코를 비비기 시작했다. 딜라는 이 아름다운 세상의 주인이 이 솜털로 뒤덮인 생명체들의 것인지, 수초로 뒤덮인 통나무를 빼면 이들이 유일한 주민인지 궁금했다.

이 아름다운 땅에 딜라가 유일한 인간일까?

“저기요.” 딜라가 하얀 생명체 중 하나에게 말했더니, 그게 “음매애!” 하고 답하고는 빠르게 총총 뛰어가 버렸다. 딜라는 조금 쓸쓸함을 느끼며 그를 응시했다.

빛이 점점 밝아졌다. 아플 정도로 눈이 부셔서 가능한 한 작은 나무의 그늘 아래 있으려고 했다. 나무 아래의 뭔가의 냄새가 끝내줬다. 이 전에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인데도 입맛을 다셨다. 나뭇잎이나 나무의 몸통에서 나는 냄새는 아닌 것 같았다. 나무에 달려있는 분홍과 노랑의 둥그스름한 물체에서 나는 냄새인 것 같았다. 그 것들은 이따금씩 땅으로 부드럽게 떨어졌다.

딜라는 하나를 집어 들고 살펴보았다. 표면이 아주 작은 털로 덮여 있어서 감촉이 부드러웠다. 실제로도 그 물체 자체가 부드러워 쉽게 찌부러졌다. 살짝 눌렀더니 표면이 찢어지며 즙이 뿜어져 나왔다. 처음에는 그 물체가 살아있는 줄 알고 겁먹었지만 이내 이 물체는 나무 가지에서 이미 떨어졌으니 죽었을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손에 묻은 즙을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멈췄다. 배가 고팠다. 생선 스텐을 먹은 이후에 아무 것도 먹지 못했고,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 그 과일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걸 먹으면 그에게 해로울까? 실험적으로 그의 혀를 즙에 살짝 갖다 댔다.

기빠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런 맛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갑자기 그는 이 맛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힘든 인생을 살아 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 복숭아를 덩석 물고 몇 초 만에 다 먹어버렸다. 두 번째도 망설임 없이 깨물었는데, 크고 울퉁불퉁한 씨앗에 이가 달아 완전히 깨물어 먹지 못했다. 훈젓말로 끓여 죽는 것보다는 맛있는 독을 먹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 이상한 나라에서는 무엇이 건강에 좋

고, 무엇이 그럴지 않은지 알 길이 없었다.

풀밭에 떨어진 그 물체를 한 다스 주워서 다 먹어 치웠다. 잠시 후에 배가 좀 이상했다. 이것들은 정말로 독을 갖고 있는 걸까? 딜라는 죽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심한 통증은 있었지만, 정말로 죽는 것 같지는 않았다. 피부에 달은 밝은 빛이 과하게 따듯했고, 딜라는 눈이 아파서 찾을 수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어두운 그늘을 찾아 들어가 앉았다. 아빠와 할아버지가 그에게 일어난 일을 언젠가 알 수 있을지 궁금했다. 노래하는 물고기 중 한 마리가 딜라 위에서 반짝이며 달콤하고 기분 좋게 노래했는데, 마치 부드럽게 물이 흐르는 소리 같았다. 딜라는 머지않아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 딜라는 독이 퍼져서 죽어간다는 결론을 내렸다. 몸 전체가 불타는 것 같았고 눈이 퉁퉁 부어서 겨우 가늘게 뜰 수 있었다. 입속의 혀는 갈증과 독으로 두툼하게 부어올랐다. 얼굴을 만져보았다. 붓고 열이 났다. 손가락이 스치는 모든 곳에 불꽃이 타올라 피부를 그슬리는 것 같았다.

휘청하며 일어나 공포와 통증으로 반쯤 정신이 나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대체 왜 안전하고 편안한 뗏목을 떠나려고 했을까? 과연 누가 이 이상한 공상의 나라에서 그를 도울 수 있을까? 얼마 전 봤던 하얀 털복숭이는 아니리라. 그는 확신했다. 그것들은 바보 같았다. 하지만 촉촉이 젖은 그의 눈이 세 네 개의 털복숭이를 발견했을 때, 자제할 수가 없었다.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갈라진 입술에서 괴상하고 가르륵 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것들에게로 다가갔다.

양이 평화롭게 풀을 뜯었다. 그가 다가갈 때마다 양은 조금씩, 조금씩 멀어졌다. 결국 그는 절망하고, 기진맥진하고, 무섭고 화도 나서 가만히 섰다. 그 때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뗏목 사람들의 목소리 같았다. 네 발로 걷는 하얀 괴물의 바보같이 맥 빠진 소리가 아니었다. 그의 귀에 한 두 개의 단어 같이 들렸다.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서 팔을 흔들고, 쉼 소리를 내고, 헉헉 대며 울부짖었다. 그 소리가 자신의 귀에도 이상하게 들렸다. 그의 눈에 사람들이 몇 보였다. 흐릿하게 보이는 이들이 사람들이라고 확신하며, 애처롭게 흐느꼈다.

목소리가 사라졌다. 그러고는 갑자기 다시 딜라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외치는 공포와 분노의 소리가 들렸다. 뭔가 그의 어깨를 세게 쳤고, 또 다른 것이 이마를 쳤다. 저기 보이는 사람들이 딜라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빗발치는 돌팔매질이 멈춘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흐느꼈고, 도움을 구하며 팔로 머리를 감싸 방어했다. 도망치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조용해졌다. 다시 혼자라는 걸 깨달았다.

“돌아와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그는 애원했다.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끝내 망연자실하고, 어질해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한참을 신음소리를 내며 흐느껴 울었다. 어떤 소리가 들려서 정신을 차렸다. 그와 같이 지독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가 가까이 있음이 틀림없었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만졌다. 갑작스런 손길에 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위를 올려다보니 누군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난 도나라고 해요.” 소녀의 목소리였다. “움직이지 마세요. 엄마를 부를게요.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 제 4 장

“할아버지, 거기를 떠나서 여기로 오세요!” 소년이 애원했다. “여기로 오세요. 여긴 정말 밝아요. 이곳이 바로 ‘더 나은 곳’ 이에요, 할아버지. 초록색이 보이네요. 모든 것이 푸른 색이에요. 하늘 높이 떠 있는 커다란 빛 덩어리는 백만 개의 햇불만큼 밝아요. 이곳으로 오세요.”

“애야, 우리도 햇불 백만 개가 있단다. 여기를 보렴. 내가 여기에도 불을 붙이고, 또 저기에도 불을 붙였어. 얼마나 많은지 보이니? 나는 더 많은 햇불을 만들 거야.”

“할아버지, 너무 많아요, 너무 뜨거워요!”

“보렴, 이곳이 ‘더 나은 곳’이야,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곳이지. 우리는 더 많은 햇불을 만들 거야.” 노인이 소리쳤다.

“할아버지, 너무 뜨거워요, 불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타들어가고 있어요.” 딜라가 헐떡였고, 시원한 손이 그를 부드럽게 붙잡았다. “이걸 마세요, 어서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릇이 그의 입술에 닿았고, 뭔가 시원하고 기분 좋은 음료가 목으로 넘어갔다. 다시 누웠다. 마치 윌리마가 그를 삼켜버린 듯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다.

물고기들은 그의 주변에 맴돌았다. 그 중 한 마리가 낮고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를 했다. 하지만 이내 그것들은 붉은 눈과 털이 없는 맨 꼬리, 뾰족한 코가 있는 커다란 털복숭이로 변했다. 그들의 이빨은 노랗고 길쭉했다. 한 녀석이 갑자기 다가와서는 “여기 있었네! 드디어 찾았다. 살을 뜯어 먹자. 살을 뜯어 먹자. 살을 뜯어 먹자.” 하고 말했다.

다른 녀석은 “더 나은 곳, 더 나은 곳, 더 나은 곳” 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딜라에게로 다가와 거대한 이빨로 그의 살을 팔에서 어깨로 뜯어내기 시작했다.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다시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그녀가 딜라의 몸을 만질 때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녀가 연고를 발라주자 통증은 사라졌고 다시 잠들었다.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대로 누워있었고, 아까 그 여자 목소리와 어떤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회복되고 있어요.” 남자가 말하자, 여자가 대답했다. “네, 어리고 건강하니까요. 열도 이제 거의 가셨고, 물집들도 아물고 있어요. 어깨와 얼굴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었는데 말이에요. 저도 반쯤은 의사죠. 머지않아 깔끔히 나올 거예요”

“이 소년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네요.” 남자가 경외심에 싸인 목소리로 말했다.

긴 침묵이 흐른 후 여자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내 생각에 저 소년은 뱀목족인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럴 리가, 노나, 말도 안 돼. 뱀목족은 신화일 뿐 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긴 겨울밤에 아이들에게 들려주려고 꾸민 이야기 일뿐 이에요.”

“뱀목족이 틀림없어요. 아니라면 어디서 왔겠어요? 이 소년이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생선 가죽 이에요. 소년에게서 생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있잖아요. 뱀목족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의 피부가 이렇게 하얗 수 있으며, 몇 시간 만에 봄 벌레 화상을 입겠어요? 그을리지 않은 부분은 우유 보다 하얗고, 눈 보다 하얘요. 만약 이 애 얼굴이 선천적으로 검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보바 아저씨가 비꼬며 말했다. “난 그런 동화를 믿을 수 없어요. 못 믿는 다고요. 이 소년이 내게 뱀목을 보여주고, 강을 보여주기 전에는 못 믿어요. 아니야, 그래도 믿기 힘들어요.”

“이 소년이 깨어난 후 원한다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겠죠, 보바.” 여자가 말했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딜라는 누워있는 채로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 대화에 그는 어질어질해졌다. 눈, 우유, 봄. 대체 이게 무슨 뜻이란 말인가? 몇 개의 단어가 불분명하고, 이상했지만 그 나머지는 거의 이해할 수 있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꿈 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직도 아빠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뱀목 위에 누워있는지도 모르겠다. 동굴을 떠나지 않은 채. 하지만 확실한 건 동굴 속에는 이런 곳도 이런 사람들도 없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또 왜 이곳에 와 있는 것일까? 두렵고 걱정 되었다. 이내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피곤해져서 다시 잠이 들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뭐야?” 그는 도나에게 물었다.

“알이야.” 소녀가 대답했다.

“알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무슨 생선이 이렇게 큰 알을 낳아?”

“생선 알이 아니야, 웃기기는. 닭의 알이야.” 도나가 말했다.

“닭? 닭이 뭔데?”

“닭이 닭이지,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난 지금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슬프게 대답했지만, 도나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을 돌려, 풀 밭을 가로질러 바라보았다. “저기! 저기 배나무 옆에. 재들이 닭이야.” 소녀가 말했다.

딜라는 삶은 알이 있는 대단히 흥미로운 접시에서 눈을 들어 가늘게 뜬 눈으로 닭을 바라보았다. 그가 앉아 있는 곳은 짙은 그늘이라 밖을 바라보자 눈물이 났다. 그래도 밖을 응시했다. 난생 처음 보는 이 멋진 것들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알, 닭, 쇠그릇, 물을 엮어 만든 옷, 배나무, 나비, 잔디, 잡초.. 너무 놀라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만약 딜라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나이만큼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태양과 하늘의 숨 막히는 기적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다시 뜨거운 태양을 볼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황혼녘이면 서서 태양의 화려함이 지평선 아래로 희미해지는 것을 바라보고, 땅거미가 진 후에는 마치 조그마한 생선이 반짝이는 것 같은 별들을 바라보았다. 달이 뜨고 하늘에 걸리기를 기다렸다. 창백하고, 차가운 달이 매일 밤마다 조금씩 피어서 만개한 하얀 꽃이 되는 걸 바라보았다. 이제 그 꽃이 다시 서서히 지기 시작했다.

“자, 한번 봐봐.” 도나가 말하고는 이내 깨달았다. “참, 눈이 아파서 볼 수가 없지. 저기에 늙고 못생긴 닭들이 있어.”

“아름다워.” 딜라가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

그는 닭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지만, 물어보지는 않았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질문은 절대로 하지 않고.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상대의 이름을 물어보는 어려운 수고를 감내하지 않도록 항상 “제 이름은 도나예요.”라고 말한다. 도나가 딜라를 처음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딜라에게 그는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다. 그래서 딜라도 노나아주머니와 도나에게 질문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 그가 질문을 하면,

도나는 금세 짜증내고, 노나 아주머니는 그것도 모르냐는 듯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답을 발견했을 때 기분이 좋았다. 소년은 그가 갖고 있는 질문들이 노나 아주머니와 도나에게는 어리석고 무례해 보인다는 걸 알았다.

그는 ‘초록색’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았다. 살아있는 통나무는 ‘나무’라고 부르며, ‘낮’과 ‘밤’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불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딜라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도나가 ‘겨울’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왜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여기 와봐.” 그녀가 말했다. “우리 저 초원에 올라서 포도 따 먹자. 저기 뒤쪽으로 나 있는 그늘 길을 알아. 아주 짧은 구간만 그늘이 없어”

“개는 모자를 써야해.” 노나 아주머니가 현관에서 재빨리 말했다. “눈 보호대도 좀 수선해두마, 그리고 팔도 가려야해.”

딜라는 옷으로 팔을 감싸는 게 싫었다. 화상은 거의 나왔지만, 노나 아주머니는 딜라에게 피부가 튼튼해지라고 매일 로션과 연고를 문질렀다. 그런 다음 그녀의 뜻대로 긴 소매 셔츠를 입으면, 끈적거리는 연고에 옷이 달라붙고, 옷이 어깨와 등에 걸렸다. 평생 생선 가죽 반바지만 입고 살아온 소년에게는 끔찍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름답고, 밀기 힘든 저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다. 그를 위해서 셔츠보다 더 한 고통도 감수할 것이다.

매일 그는 햇볕을 몇 분 씩 쬐었다. 노나 아주머니는 그의 피부가 조만간 나아서, 셔츠와 연고 없이도 햇볕 아래서 지낼 수 있을 만큼 건강해 질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꽤 오랜 시간 커다란 챙이 달린 모자와 마른 풀로 엮어 만든 눈 보호대를 쓰고 있어야 했다. 노나 아주머니는 그가 눈을 또 다칠까봐 걱정이었다. “피부는 스스로 재생되지만, 눈은 그렇지 않아. 잘 관리해야해.” 그녀가 경고했다.

피부를 다 가려서, 땀과 연고가 셔츠 속에서 범벅이 된 채로 딜라는 오래된 길을 따라 향긋한 과일 나무 아래로 도나를 뒤쫓아 갔다. 가끔씩 도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배나 자두, 살구를 따서 딜라에게 주었다. 그는 받는 대로 다 먹었다. 딜

라는 가끔, 먹는 거 외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고 상상할 수 있을까? 토마토와 산딸기, 콩, 호박, 멜론, 감자에 꿀까지. 꿀의 달콤함이 너무나 황홀해서 눈물이 흘렀고, 목구멍이 막혔기 때문에 꿀은 한 번에 한 방울만 먹을 수 있었다. 생선이나 달팽이, 수초 외에 먹어 본 적이 없는 소년에게 이곳에서 맛보는 모든 것이 놀람과 기쁨이었다.

도나는 소년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산울타리나 풀밭, 도랑에 스스로 씨앗을 퍼뜨려 생긴 흔하디흔한 과일과 채소를 보며 감탄하는 소년이 신기했다. 소년은 소년이 놀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매일 소년에게 줄 새로운 것, 새로운 맛을 찾아 다녔다. 소년이 처음으로 딸기를 맛 봤을 때, 소녀가 호박처럼 크게 웃는다고 했더니 딜라는 “호박이 뭐야?” 라고 물었다.

“자, 여기가 유일하게 그늘이 없는 길이야.” 소녀가 갑자기 말했다. “눈을 감고 내 손을 잡아. 저기 언덕 꼭대기에 있는 큰 나무 그늘까지 달릴 거야.”

딜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언덕을 바라보았다. 이곳이 어딘지 깨달았다. 갑자기 괴로움에 심장이 뛰었다. 이곳은 이 세상에 도착한 첫날 아침에 지나갔던 수풀이었다. 그는 다른 방향에서 이곳을 향해 왔고, 저기 있는 바위투성이 민둥산에서 내려왔음이 틀림없었다. 저 위의 바위투성이 속 어딘가에 동굴과 터널, 뗏목으로 돌아가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달려!” 도나가 신호를 주었다. 소년은 눈을 질끈 감고 소녀가 이끄는 방향으로 달렸다. 그 수풀에 도착했을 때, 그는 험뻑거렸고 땀이 흘렀다. 소년은 도나나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쉽게 더위를 느꼈다.

“추위보다는 더위가 낫지.” 도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지만, 소년은 추위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뭐라 대답을 못했다. ‘열기’는 생선기름이나 햇불을 태울 때 나오는 것이니 알고 있었다. 뜨거운 생선 스투에 자주 데이기도 했다. 하지만, ‘추위’란 뭘까? 도나는 소년의 손을 잡아서 산비탈 바위틈에 있는 샘물에 집어넣었다. “이런 게 차가운 거야.” 소녀가 말했다. 이제 소년은 차가운 게 무엇인지 알았다. 하지만, 더위라는 담요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처럼 얼굴과 팔, 등이 온통 차가워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오늘은 도나 조차 덥다고 불평하고, 자두 즙과 먼지로 얼룩진 손으로 얼굴에 흐

르는 땀을 닦아냈다. 소녀가 갑자기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저기 보바와 포란, 카트란 아저씨가 있어.” 하지만 그 세 명의 양치기는 손을 흔들며 주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산 위를 응시하는 척 하다가 얼굴을 돌려버렸다. 도나는 신이 나서 웃었다. “우리를 보지 못한 척 연기하고 있어.” 크게 외쳤다. “아직도 네가 무서워서 저러는 거야. 너한테 돌을 던지고 도망갔던 일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어. 난 네가 하나도 무섭지 않았는데.” 그녀가 으스스했다.

딜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양치기들을 탓할 수 없었다. 그때 소년의 몸골은 꿈쩍했다. 벌거벗었고, 눈은 뜨지 못했고, 피부가 벌겋게 익고, 얼굴은 통통 부어 있었다. 그도 만약 황혼녘에 울부짖으며 어그적 거리는 생명체를 만난다면, 돌을 던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항상 도나와 소녀의 엄마가 소년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했다. 그는 뭔가 은혜를 갚을 방법을 찾고 싶었다. 사실 그 모녀는 딜라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말이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없다. 눈을 연신 깜박이며 그가 나온 곳이 산의 어느 쪽인지 찾고 있었다.

그 산은 골짜기 반대편에 있는 노나 아주머니와 도나가 호랑이산이라 부르는 산만큼 높지 않았다. 양들이 산 정상 부근까지 올라가 풀을 뜯고 있었다. 양들이 가끔씩 풀 뜯으러 올라가는 비탈진 산길이 있었다. 목초지가 바다를 향해 펼쳐져 있고, 몇 마일 떨어진 곳에는 바위투성이였다. 거기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양들조차 그곳에 있는 질기고, 소금기 있는 풀을 좋아하지 않아서 갔다가 곧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딜라는 산의 이쪽에서 나왔다. 비탈길 꼭대기까지 살펴봐도 땅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만한 틈이나 동굴 입구 같은 게 보이지 않았다.

도나가 숲 속으로 앞장서서 덩굴에 포도가 달려있는 곳까지 들어갔다. 진한 붉은색과 청록색의 포도송이들이 덩굴에 매달려 있었다. 소녀가 딜라에게 아직 익지 않았다고 하자 딜라가 되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소녀가 설명하려고 애썼다. “먹기에 충분히 오래 되지 않았다는 뜻이야.” 포도를 한 알 따서 그의 입에 넣어 주었다. 시큼하고, 신선하고, 톡 쏘는 맛을 음미하고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씹어 먹었다. 소년이 “맛있어.” 하고 말하자 도나는 역겨웠다.

일주일 후 딜라는 새벽 새들의 날개 짓 소리에 깬다. 도나와 그의 어머니는 아직 침대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소년은 연고를 바르지 않고, 셔츠와 모자, 햇빛 가리개도 없이,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희미하게 보이는 산길을 걸어 올라갔다. 울창한 숲 뒤편으로 가서 퇴적암으로 된 경사로를 올랐다. 소년은 이 길이 이 세상에 온 첫날 아침에 안개 속에서 걸어 내려왔던 곳이라고 확신했다.

발아래 어딘가 소년이 평생 함께 했던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서있는 곳 아래에서 뗏목 함대는 어둠속에서 천천히, 허무하고 조용히 계속 돌고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 그는 크게 외쳤다. “할아버지! 이곳은 낮 이에요. 온통 초록색이구요. 제가 가서 할아버지를 이 더 나은 곳으로 모시고 올게요.”

새 한 마리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 맑고, 연약한 소리로 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딜라는 세 시간동안 언덕을 따라 오르내리며 동굴 입구를 찾으려 애썼다. 태양은 하늘 높이 떠서 눈앞이 흐려지고, 눈을 또 상하게 할 만큼 강했다. 그는 어떤 틈도, 동굴도 찾지 못했다.

## 제 5 장

“우리는 보바의 당나귀를 타고 갈 거야.” 도나가 말했다. “고집스럽긴 하지만 물거나 차지는 않아.”

딜라는 도나가 특별한 표시도 없이 양이나 닭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당나귀 중에 어떻게 보바의 당나귀를 구별하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누구든 당나귀가 필요하면 그냥 데리고 가면 되는 건가?

도나는 당나귀들이 언제 어디 쫓 있을 거라는 걸 안다. 보바의 작은 회색 당나귀를 쉽게 찾아냈다. 도나는 당나귀의 귀 한쪽을 잡고는 끌어 당겼다. 당나귀는 고분고분 응했고, 풀이나 잎을 뜯으려고 가끔씩 멈출 뿐이었다.

그들은 포란 아저씨의 집으로 향했다. 폭이 좁은 나무 썰매가 집 뒤에 있는 헛간에 세워져 있었고 소년과 소녀는 당나귀를 헛간에 묶었다. 눈이 동그란 포란 아저씨의 어린 아들이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딜라는 이상했다. 뗏목 족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절대로 손대지 않는다. 이곳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 당나귀를 사용하는 것 같았다. 노나 아주머니가 양털이 필요할 때도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처음 만난 양의 털을 깎았다. 한번은 딜라가 모르는 어떤 여자가 노나 아주머니에게 계란을 한 다스 가져다주면서, 노나 아주머니네 양털을 깎았는데 질이 너무 좋아서 계란을 좀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나 아주머니는 의사였다. 그녀는 집 뒤에 약초를 키웠는데, 그것의 사용법과 보관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프거나 다친 사람이 있으면 자주 돌봐주러 가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일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런 일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곤 했다.

“따라와, 어서.” 도나가 당나귀에게 성급히 말했다. 즙이 많은 노란 색 꽃 무더기를 발견한 당나귀는 떠나기 전에 그것을 다 먹고 싶었다. 크고 부드러운 누런 호박이 익어 가는 계곡 아래로 먼 길을 돌아가는 건 도나가 의도한 것이었다. 딜라는 당나귀가 원하는 만큼만 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의 예상이 적중했다. 그 작은 짐승이 노란 꽃을 다 먹어 치우고서야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당나귀는 씩씩한 발걸음으로 2마일 쯤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다가 멈췄다. 아무리 재촉하

고, 때리고, 밀고, 당겨도 움직이지 않았다. 도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별 수 없지 뭐. 여기 호박들이 참 좋아 보이네.” 소년과 소녀는 호박을 당나귀 썰매에 싣기 시작했다.

딜라 눈에는 호박들이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았다. 그 계곡은 호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돌덩이 같은 것들이 도랑에도 있고, 언덕 비탈과 풀밭에도 가득했다. 너무 많아서 그곳이 호박에 잠겨 버릴 것 같았다.

“정말 많다!” 소년이 감탄했다.

도나는 다시 어깨를 으쓱했다. “호박은 원래 이렇게 잘 자라.” 그런데 소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어떤 해에는 병에 걸리기도 해. 엄마와 내가 기르던 당나귀가 있었는데, 최근 병이 돌았던 해 겨울에 죽었어.”

“당나귀가 그 병에 걸려 죽었어?” 딜라가 물어봤다. 소녀가 소년의 발을 킁 밟았다. “바보 같기는. 당나귀는 호박 병에 걸리지 않아. 우리 당나귀는 먹이가 부족해서 죽은 거야. 겨울에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이면 짐승들이 먹을 거라곤 호박밖에 없거든.”

아, 그래서 지금 이 호박을 싣고 있는 거구나! 딜라가 자신 있게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도 질문하지 않고 답을 찾아냈다. 소년은 특히 겨울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슬프고 끔찍한 시간이라는 겨울은 어떤 것일까? 노나 아주머니와 도나도 먹을 게 부족한데 어떻게 딜라가 같이 살 수 있을까? 가야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소년은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호박을 하나 따서 썰매에 싣었다. 당나귀는 풀을 먹고 있었고, 도나는 버섯을 따고 있었다. 딜라는 저 멀리까지 가서 호박을 따 왔고 이내 호박이 높이 쌓였다. “당나귀가 이걸 어떻게 끌어?” 도나에게 물었다. 소녀는 주위를 훑어보더니 웃었다. “저 정도 무게는 너도 끌 수 있어야해.” 소녀가 대답했다. “당나귀를 한두 번 발로 차.”

하지만 딜라가 당나귀에게 다가가 말을 하고 귀를 간지럽히고, 힘껏 밀치니 집을 향하기 시작했다. 도나는 당나귀 머리 옆으로 걸으며 때때로 산딸기나 버섯, 노란 꽃을 한 움큼 씹 먹었다.

낮은 지대의 풀밭을 지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도나가 달

려가 누가 있는지 보았다. 열 두어 명 쯤 되는 젊은이들이 뛰어다니며 들판 한가운데 평평한 지대에서 경사지로 양들을 내 몰았다. “춤 추려나봐!” 도나가 외쳤다 “봐, 고프란이 뿔피리를 들고 있고 누군가가 하프를 갖고 왔어. 곧 시작 되려나봐. 딜라, 어서와봐!”

“호박은 어쩌고?” 소년이 물었다.

“그냥 여기 두면 돼.” 소녀가 말하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게 이곳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다. 만약 누군가 여기로 오다가 당나귀가 필요하면 데리고 갈 거다. 딜라와 도나는 곧 다른 당나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행인이 호박이 필요하면 호박도 갖고 갈 것이다. 호박이 필요하면 또 따면 된다. 이런 방식이 좀 이상해 보였지만 딜라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척 했다. 당나귀는 여기저기서 풀을 뜯고 있고, 썰매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걸 사용하며, 호박은 원하면 수 천 개라도 딸 수 있다.

“난 계속 갈래.” 소년이 말했다. “호박들을 헛간에 가져갈래. 너는 저 사람들과 놀아.”

“왜?” 소녀가 궁금해 했다. “매일 있는 기회가 아니야.”

“난 춤 못 춰.” 딜라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호박을 나르기 시작했잖아. 나는 한번 시작한 건 빨리 끝내는 걸 좋아해.”

“우린 이미 끝낸 거야.” 도나가 짜증을 냈다. 갑자기 웃으며 가버렸다.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난 다른 걸 포기해서라도 춤을 출래.”

딜라는 풀밭 가장자리로 당나귀와 썰매를 따라 걸었다. 사실, 소년도 춤추러 가고 싶었다. 거기 모여 있던 사람들은 춤을 잘 추는 사람들 이었고, 소녀들도 모두 예뻐다. 그들의 춤과 노래,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에 소년은 기분이 좋아지곤 했다.

하지만 함께 추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 즐겁지도 않고 마음이 편치도 않았다. 그들은 딜라에게 친절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소년은 그들이 그의 뺨과 어깨에 있는 흉터를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들 눈에는 궁금함으로 가득한데도 소년에게 물어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딜라는 노나 아주머니네 집 한 쪽에 영성하게 지은 헛간에 호박들을 단정하게 쌓았다. 노나 아주머니가 도우려고 뛰어 나와서 호박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호박

사이사이 그리고 위아래에 건초를 어떻게 펼쳐서 놓아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가서 호박을 더 따올까요?” 그가 묻자,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헛간을 호박으로 꽉 채우면 양들이 겨우내 잘 먹을 수 있지. 작년에는 겨울이 끝날 무렵에 보바에게 나누어 줄만큼 충분했지. 보바는 양이 열두 마리나 되서 배불리 먹이기가 쉽지 않아.”

딜라는 놀라서 빨리 쳐다보았다. “호박이 정말 많던데요! 보바 아저씨도 헛간을 가득 채우면 되잖아요.” 소년이 말했다.

“보바도 창고를 가득 채웠지. 그래도 열두 마리를 먹이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야.” 노나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저씨가 왜 더 큰 창고를 짓지 않았는지 좀 궁금하네요.” 딜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질문할 때 사용하는 공손한 표현이다. “아니면 창고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번엔 이 말을 들은 노나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보바는 창고를 가득 채웠다니까.” 아줌마가 아까 했던 말을 약간 뿌루퉁하게 반복했다. 소년은 공손하게 질문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 곳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호박을 보관할 창고는 하나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전에 몇 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설사 그들이 상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일어날 거라 생각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들에게 ‘비상사태 대비’란 개념은 없는 것 같다.

딜라는 이 사실을 진작 깨달았다. 도나가 겨울에는 식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뗏목 족 사람들이 기근을 대비해서 생선을 말려 두었던 게 생각나서 딜라가 과일과 야채를 말려서 보관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었다. 사실, 언제나 생선이 넘쳐 나긴 했지만.

이런 말을 난생 처음 들은 노나 아주머니와 도나가 갑자기 웃음을 터트렸었다. 이 세상에선 그 누구도 과일을 말려서 보관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었다. 아무도 모르게 딜라는 혼자서 계획을 짰다. 하지만 소년이 처음으로 햇볕에 말린 과일을 닭이 먹어 치워 버렸다. 그래서 소년은 닭이 웬만하면 올라오지 않을 지붕 위 평평한 곳을 골라 살구와 배, 복숭아를 나란히 말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여름에 그 시골 마을을 강타한 태풍 때문에 실패했다. 소년은 포기했다.

소년은 이곳 사람들이 왜 아무도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지 궁금했다. 뗏목 측은 항상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항상 ‘더 나은 곳’을 향해 전진했다. 혹시나 올지도 모르는 기근에 대비해 말린 생선을 계속 비축했다. 터널 안에서 율리마나 아니면 더 끔찍한 것이 나타나 그들을 괴롭히거나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소년은 썰매를 호박으로 채우는 동안 그리고 당나귀와 헛간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이 생각을 했다. 낮은 풀밭에 있던 도나와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 졌다.

둥그렇고 빛나는 호박으로 헛간을 가득 채운 후, 포란 아저씨에게 썰매를 돌려줬다. 딜라가 당나귀를 풀고 있을 때 포란 아저씨가 집 뒤 편 나무 사이에서 나왔다. 그와 보바, 카트란 아저씨는 딜라와의 돌팔매질 첫 만남 때문에 아직도 소년이 좀 불편했다. 하지만 딜라는 항상 친근하게 대하고, 그 일은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나쁜 감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소년이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썰매 갖고 왔어요.”

포란 아저씨가 웃었다. “그건 내 썰매가 아닌 걸.” 라고 말하며 몸을 숙여 썰매를 살펴보았다. “보바 썰매도 아니고 물론 카트란 것도 아닌데. 아, 저기 날을 고친 흔적이 있네. 누가 날을 고쳐서 썼더라? 어디 보자. 아, 맞다! 조가, 이 썰매는 조가 썰매야.” 그는 확신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조가 아저씨한테 가져다줄까요?” 딜라가 물어봤다. 아저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조가가 이 썰매를 찾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만약 조가가 필요하다면 여기 와서 갖고 가겠지.”

아저씨는 딜라에게 돌우물에서 시원하게 식힌 꿀 낄은 과일 주스를 한 사발 주었다. 그날을 무척 뜨거운 날이어서, 매우 고마웠다. 조가 아저씨의 부인이 감자와 양의 우유를 넣어서 닭기름에 튀긴 작은 케이크를 갖고 나왔다. 맛이 훌륭했다. 딜라와 포란 아저씨는 돌 위에 앉아서 주스와 케이크를 먹었다. 딜라가 계곡 넘어 높은 산을 바라보았다.

“저 산 뒤에 뭐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포란 아저씨가 어깨를 한번 으쓱했다. “나도 몰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 산을 넘는 건 힘든 일이지. 산이 높아서 길이 가파르고 험하거든. 호랑이도 많

아. 가본 사람도 있긴 한데,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어차피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

주스를 한 모금 가득 삼켰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더군. 저 산 넘어 에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살고 있대. 모든 질문에 답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래.” 그는 다시 한 번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난 그토록 궁금한 질문이 아직 없었어.”

딜라는 아저씨 말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았다. 여전히 산을 응시하고 있었다. 만약 아저씨 말이 사실이라면 저 푸른 봉우리로 가리라. 딜라는 끝없는 궁금증을 가진 소년이니.

## 제 6 장

통통했던 달이 훌쩍해지고, 다시 커져서 하늘 높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다. 잎사귀들은 윤기를 잃어 푸석해가고, 꿀벌과 말벌들은 떨어지고 썩은 과일에서 얻은 에너지로 겨우 웅웅거리며 날아다녔다. 사과, 배, 포도가 더 이상 익지 않았다. 낮은 점점 짧아지고, 밤엔 추위가 느껴졌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매일 아침 딜라는 작은 생쥐가 그의 심장을 감아 낼까 봐 걱정하며 깬다. 매일 아침 침대에 누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아빠와 할아버지, 뗏목 생활을 떠났던 것처럼 용기를 갖고 노나 아주머니와 도나의 집을 떠나야 하는 날이 언제일까?

곧 떠나야 한다. 겨울은 입 하나를 더하기엔 너무 힘든 시간이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가. 무엇을 할지 답을 줄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강과 뗏목으로 돌아갈 길을 찾아봐야 하나? 하지만 만약 그 길을 찾는다 하더라도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생동감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보고 싶었다. 할아버지를 태양이 있는 이 세상으로 모시고 와 꿈에도 그리시던 “더 나은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뗏목생활을 떠났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뗏목을 떠날 때는 앞으로의 목적이 하나뿐이었다. 딜라는 매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계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문을 씻으려고 그 옆에 있던 물을 부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다. 물통에 걸린 것의 표면을 만져보니 차갑고 딱딱했다. 소년은 경악하고 약간 두렵기도 했다. 물이 흐르지 않다니! 쿵 찢렸더니 깨졌다. 손가락이 화끈거리기까지 한 조각을 들고 있었다.

겨울이란 것이 이랬단 말인가. 이 단단하고 이상한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 불꽃처럼 덮어버렸다? 열이 아니라 차가움이 이 세상을 불태워 버렸나? 얼음이 녹아서 물방울이 손으로 흘러 바닥에 떨어졌다. 도나가 물 주전자를 잡더니 “얼었어!” 하고 딜라도 느낄 만큼 슬픈 목소리로 외쳤다.

소년은 그 날은 하루 종일 여름이 지나감을 애통해하며 지낼 거라 생각했다. 하

지만, 틀렸다. 일상은 어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노나 아주머니는 방을 쓸고, 침대를 털었다. 도나와 딜라는 아침 식사 했던 식기를 문질러 씻고, 과일과 견과류를 따고, 그 날의 양식인 감자를 땅에서 팠다. 그러고 나서 딜라는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도나의 아빠는 3년 전 겨울에 눈 속에서 땀감을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가셨다. 너무 멀리 나가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험한 언덕에서 미끄러져 얼어 죽었다. 딜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추위’나 ‘얼어 죽다’가 무슨 뜻인지 몰라 몇 시간 동안 머리를 쥐어 짰 후에야 이해했다.

소년은 도나와 노나 아주머니가 땀감이 부족하지도 않고, ‘눈’이 원지는 몰라도 눈 속을 헤매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었다. 그는 집 근처에 마른 나무 가지와 통나무를 보기 좋게 쌓기 시작했다. 처음에 노나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조금 비웃는 것도 같았다. 하지만, 결국에 그녀는 그게 나쁜 생각이 아님을 인정했다. 비록 반 쯤 썩어서 바스러지는 나무만 가져왔지만, 도나도 나뭇가지를 쌓는데 일조했다.

딜라는 이제 짧은 겨울을 지내기에 충분한 양을 쌓았다고 생각했다. 눈 속에서 땀감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나무를 더 모으러 나갔다. 비상 상황은 언제나 생길 수 있는 거니까. 할아버지는 언제나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생선을 계속 말려서 보관하셨다. 하지만 딜라에게 그것은 비상 상황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날 날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곧 그는 운이 좋게도 쓰러진 나무 두 개를 발견했다. 이제 그 나무를 토막 내고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 동안엔 이런 저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다.

노나 아주머니 집을 향해 힘들게 끌고 오는 길에 당나귀와 함께 걷고 있는 카트란 아저씨를 만났다. 아저씨는 통나무와 딜라를 뚫어지게 쳐다보고는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몇 분 후에 딜라에게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당나귀가 그걸 나르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딜라의 왼쪽 귀 옆의 한 지점을 응시하며 말했다. 소년은 활짝 웃었다. “어쩌면요. 하지만 저는 당나귀가 없어요.” 하고 답했다.

“여기 있잖아, 당나귀.” 놀랍게도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다. “이 당나귀 사용해

도 돼.”

“그러면, 아저씨가 당나귀를 못 쓰잖아요.” 딜라가 말했다.

아저씨는 어깨를 으쓱했다. “난 사용하지 않아도 돼. 당나귀를 저 산의 초원으로 데리고 가던 중이었거든. 내일 일찍 우리가 떠날 때면 준비가 되겠지.” 그는 처음으로 딜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혼란스럽고 당황한 소년의 표정을 재밌어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웃었다.

“우리는 호랑이 산에 올라 바위구역으로 갈 거야. 돌을 나를 당나귀를 여러 마리 데려가고 있어. 호랑이가 사용하는 길에 방어벽을 칠거야. 호랑이가 계곡 아래로 내려오는 걸 원치 않거든. 겨울에는 더더욱 그렇지. 눈이 내리는 계절엔 호랑이들이 양이며 당나귀, 심지어 사람까지 해치거든. “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힘든 일이야.” 하고 덧붙였다. “너처럼 젊고, 튼튼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항상 필요하거든. 내일 동틀 무렵에 풀밭 기슭에서 모이기로 했어.”

딜라는 저기 높은 봉우리들을 쳐다보았다. 벌써 희끗한 색으로 바뀌었다. 도나가 말한 ‘눈’이라는 것인가 보다. 딜라는 눈을 보고 싶었다. 소년은 어디로 갈지, 언제 떠날지에 대한 답을 항상 찾고 있었다. 지금이 그가 기다려온 순간인 것 같았다. “저도 갈게요.” 소년이 카트란 아저씨에게 말했다. “해가 떠오를 때 거기서 가 있을게요.”

노나 아주머니는 반대했다. “호랑이 끈이나 하는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녀의 말에 소년은 아픔이 느껴졌다. 노나 아주머니까지 느낄 수 있는 기묘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딜라에게 한 번도 그렇게 대한 적이 없었다.

도나가 말했다. “카트란이 너에게 산속은 지독히 추운 곳이라는 걸 알려줬어야 했는데. 여름에도 산의 밤은 추워.”

노나 아주머니가 도나의 말에 웃었다. “도나는 겨울 내내 난로를 끼고 살아.” 딜라에게 말했다. “도나는 조금의 냉기도 못 견디는 아이야. 산속이라고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아. 네가 입을 따뜻한 옷은 있단다. 유품으로 간직하고 있는 내 남편 옷이지. 누군가에게 진작 줘야 했는데.” 아줌마가 카트란 아저씨의 대담함을 생각하며 머리를 흔들었다. “네가 정말 떠나겠다고 하면, 그것들을 갖고 가렴.”

아주머니가 나무 상자 속에서 외투와 레깅스, 모자, 담요로도 쓸 수 있는 망

토를 꺼냈다. “받으렴.” 아주머니가 비장하게 말했다. “이것들이 필요할 거야. 여기 있어봐야 쓸모가 없어. 귀뚜라미가 이미 레깅스를 감아 먹었잖아.”

딜라는 그것들을 받았다. 떠난다. 그는 떠난다.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침에 노나 아주머니가 케이크를 한 통 주며 도나와 함께 작별 인사를 했다. “몸조심 해야 한다.” 아주머니가 소년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하고는 갑자기 이마에 키스를 했다.

“네가 돌아오면 같이 춤추러 가자.” 도나가 소원을 빌 듯 말했다. 그들은 딜라가 돌아오지 못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헤어짐을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소년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산비탈 풀밭으로 향하며 그들에게 손만 흔들었다.

어린 당나귀가 천천히 걸었기 때문에 바위구역까지 가는데 한참 걸렸다. 딜라와 함께 걷고 있는 소년들과 청년들은 점점 지겨워져서 앞으로 달려 나가고, 게임을 하고, 경주를 하며, 소리 지르고 노래를 불렀다. 딜라도 함께 어울렸다. 그들은 딜라에게 친절하고, 이름을 불러주며, 경주도 함께 했는데, 이상하게 딜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본인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 일에 처음 나서는 무리 중의 가장 어린 소년조차도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을 알고,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에 도착하면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다.

소년이 이전에 살던 세상이 자꾸 생각났다. 함께 걷고 있는 이 사람들은 소년이 살던 세상이 어떤 곳인지 상상도 하지 못할 곳이었고, 소년이 그들에게 말해준다 하더라도 믿지 못할 수도 있다.

바위구역은 산 중턱에 있었다. 절벽들 사이 속 텅 빈 커다란 공간에 돌이 가득했다. 이곳은 수 백 년 전에 땅이 흔들려 커다란 바위들이 흔들리고 떨어져 산산조각 나면서 만들어 졌을 것이다.

그들은 태양이 하늘에서 미끄러져 나갈 때 짙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도나 말이 맞았다. 이전에 느꼈던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산속은 정말 추웠다. 소년은 추위가 싫었다. 그는 담요를 둘러싸고, 모닥불 가까이로 다가갔다.

그날 밤, 식사 시간에 남자들은 노래도 부르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딜라는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뗏목에 살 때는 아무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다. 노나 아주머니와 도나도 가끔은 이야기꾼이 되어 단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재물과 능력, 기묘한 이야기들. 딜라에게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마술이 나오는 주문과 저주에 관한 것들이었다. 뗏목 측은 저주를 받은 것일까? 그들은 과거에 뭔가 악한 짓을 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가-갑자기 겁이 났다-그 저주를 깨뜨릴 주인공으로 선택 받은 것일까? 이것이 소년이 몇 주 전에 뗏목을 떠나 바위 덩어리를 오른 이유 일까?

소년은 밤중에 깨서 다시 생각했다. 오싹해 졌다. 그가 생각하는 게 틀리기를 바랐다. 소년은 스스로 용감하지도 않고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침이 되어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당나귀가 이고 있는 바구니를 돌로 채우는 일은 어린 소년들의 일이었다. 청년들은 산길을 가로막는 방어벽을 보수하러 산으로 올랐다. 항상 그랬듯 딜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얼마나 잘 하고, 오랜 시간 일을 하는지 놀랍기만 했다. 돌을 들고 올리고, 바구니를 채우는 일은 매우 고된 일이었다. 하지만 소년들 중 누구도 투덜거리지 않았고, 식사 후 거의 쉬지도 않았다.

셋째 날에 카트란 아저씨는 당나귀 두 마리를 끌고 딜라가 일하는 장소로 올라왔다. 딜라는 세 명의 소년들과 함께 돌을 바구니에 채우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난 오늘 가장 높은 산길을 오를 거야.” 그가 말했다. “높은 산을 보고 싶으면 따라와. 여기 일은 거의 끝났으니까 네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오늘은 나를 도와면 돼.”

딜라는 다른 소년들에게로 몸을 틀었다. “내가 가도 괜찮아?”

소년들은 놀란 얼굴이었고, 가장 나이가 많은 소년은 심지어 웃었다. “가!” 그가 말했다. “네가 여기서 일하던 저기서 일하던 아니면 아예 일을 하지 않던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어쨌든 머잖아 일은 다 끝날 테니까.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 하지만 네가 없어도 저 바구니들은 찻을 테지. 그렇지 않아요, 아저씨?”

카트란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딜라도 자조의 웃음을 지었다. 이런 결과가 오리라는 걸 미리 알았어야 했다. 뗏목 측은 만약 모든 남자가 함께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각자는 할당된 자기 몫을 해낸다. 그런데, 여기는 결국에는 모든 일에 끝이 있을 테니 각자의 역할은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이건 그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문화 충격이었다.

그는 끝없이 허리를 굽히며 돌 나르는 일을 중단하게 되어 기뻐했다. 카트란 아저씨와 당나귀 옆으로 갔다. 그리고 다시는 돌 나르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랐다. 소년은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다시 한 번 더 탐험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대감에 아저씨를 응시했다.

저 위, 산비탈에 눈이 희미하게 빛났다.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고, 냉기가 느껴졌다. 산 정상에 하늘이 걸려 있었다. 높고 가파른 절벽, 제대로 크지 못한 땅딸막한 나무, 장엄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이끼 낀 짙은 색의 바위는 딜라에게 초원과 계곡의 셋길을 처음 봤을 때와 같이 낯선 것이었다.

정오 쯤 그들은 그 산길에 도착해서 몇 분 동안 앉아서 숨을 고르고 일을 시작했다. “내려가는 건 올라오는 것 보다 쉽고 빨라.” 카트란 아저씨가 말했다.

어린 당나귀들이 갑자기 불안해하고, 소동을 부리며 기이한 소리를 냈다. 카트란 아저씨는 위를 쳐다보고는 딜라의 팔에 손을 얹었다. “저기 봐! 호랑이야!” 그가 속삭였다.

딜라는 윌리마를 상상했던 것처럼 뭔가 추악하고, 사나운 어떤 것을 기대했다. 그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번뜩이는 녹색 눈의 커다랗고 넓적한 머리, 크림색과 검정색, 주황색의 두터운 털, 절벽에서 튀어나온 바위 위를 천천히 우아하게 걷는 그 모습은 딜라가 영원히 라도 보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갑자기 두 남자와 당나귀를 우아하고 느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아래 쪽 협곡 사이로 흘러내리듯이 사라져버렸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답고, 신기해요.” 딜라가 말했다.

“아름답고, 신기하지.” 카트란 아저씨가 동의했다. “하지만 이곳에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산길은 좁고, 이미 돌이 가득했다. 하지만 카트란 아저씨와 딜라는 새로 운반해 온 돌들로 돌이 굴러 내려와 비어버린 곳을 채웠다. 카트란 아저씨는 담 위로 올라가서 담 정상을 따라 돌을 길게 한 줄 늘어놓았다. 저런 돌담이 호랑이 같은 강한 짐승을 막을 수 있을까? 딜라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우리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온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물었다. 이게 좋은 예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하지만 카트란 아저씨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는 그가 어디까지 가고 싶느냐에

달렸어. 이 산길을 넘어서 가면, 오르고 오를 일만 있지.” 그는 어깨를 약간 으쓱했다. “이 산길을 넘어 간 사람들이 있다고 전해지긴 해. 사람들은 산에도 살고, 이 산길 넘어에 있는 땅에도 산대. 사람들은 모든 곳에 살 수 있으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길을 넘어 산을 올랐을 거야.”

그는 잠시 멈추고, 눈을 가늘게 뜨고 경사지를 바라보았다. “뭔가를 찾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저 산을 넘는 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하지만 내가 만약 거기에 간다면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할 거야. 난 이곳의 푸르른 풀밭과 달콤한 과일이 좋거든.” 그는 이런 것 들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흔들고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산을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었어.”

딜라는 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갖고 간 돌을 모두 싣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거의 한 시간 쯤 걸어 내려왔을 때, 딜라가 카트란 아저씨에게 말했다. “아까 그 산길에 내 모자를 두고 왔어요. 다시 돌아가야겠어요.”

“같이 가 줄께.” 카트란 아저씨가 제안했지만 딜라는 거절했다. “괜찮아요, 잘 찾아갈 수 있어요. 당나귀들이 바위구역을 빨리 내려가고 싶어 하잖아요. 뛰어 가면 돼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소년은 몸을 돌려서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카트란 아저씨가 틀림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므로 오랜 시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올랐다.

## 제 7 장

그 길에 도착했을 때 딜라는 이곳으로 돌아올 핑계를 만들려고 바위 뒤에 두었던 모자를 집어 들었다. 모자를 쓰고는 방어벽을 올라다보며 서 있었다. 오르는 게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았다. 방어벽을 넘어가 어두워지기 전에 꽤 높은 곳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 그가 내려갔던 길을 따라 서둘러 내려가면 보바와 카트란 아저씨가 있는 바위구역에 곧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이면 그들은 집으로 내려갈 것이고, 딜라도 함께 내려가서 평평한 지붕의 아담한 집들과 닭이 돌아다니는 노나 아주머니와 도나의 집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다, 노나 아주머니와 도나는 소년에게 뗏목을 떠나 그들의 집으로 오라고 초대할 적이 없다. 소년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 일이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소년은 갑작스럽게 상의도 없이 뗏목을 떠나왔다. 그 일을 생각하며 갑자기 벽의 아래쪽에 발을 딛고, 벽을 타기에 가장 쉬운 경로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벽 꼭대기 까지 오르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반대편으로 내려오는 경로는 무척 가팔라서 오르는 것보다 더 걸렸다. 마침내 발을 땅에 디었을 때 이미 날이 어둑해져 갔다. 길은 커다란 바위와 등성등성 낮게 자란 덩굴로 이어졌다. 위협적이고, 무서운 모습이었다. 호랑이들과 맹수들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딜라는 피곤했다. 아주 조금 걷고는 그날 밤은 그만 걸기로 했다.

소년은 불이 없었다. 밤은 춥고, 불을 피울 도구도 갖고 오지 않았다. 소년은 사람들이 돌 두 개를 서로 부딪쳐서 불꽃을 만들어 마른 풀이나 삭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걸 자주 봤다. 하지만 소년은 어떤 돌을 사용해야 하는지도 어떻게 부딪혀야 하는지도 몰랐다. 소년은 보바, 노나 아주머니와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돌 두 개를 들고 얼마간 시도했지만 불꽃은커녕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불 피우는 법을 배워 두었어야 했다. 부싷돌을 갖고 왔어야 했다. 불은, 사람들이 말하길, 호랑이가 다가오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 또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한다. 딜라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현실적이지 못했다. 앞날을 대비하지 않아

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다.

노나 아주머니가 준 케이크도 거의 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 몇 조각이 그가 갖고 있는 식량의 다였다. 바위구역에는 충분히 먹고도 남은 식량이 있었다. 말린 과일과 주렁주렁 덩굴에 매달려 있는 열매, 견과류, 버섯, 감자 같은 것들이 넘쳤다. 그들은 요리법도 알고 있고, 다른 물품도 충분했다.

하지만, 딜라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은 식량을 구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시냇물에서 고기를 잡거나, 밧을 놓아 새를 잡거나 뭐든 해야 할 것이다.

소년은 햇볕에 달궈져서 아직 따뜻한 돌 서쪽에 덩불속에서 가져온 작은 나뭇가지를 쌓아서 침대를 만들었다. 나뭇잎에서 알싸한 냄새가 나고 부드러웠다. 잠자리가 그리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길고 고된 하루를 보낸 소년은 피곤했다.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도 잠시였다.

소년은 몸이 덜덜 떨려 깻다. 인생 최악의 추위를 느꼈다. 흐린 구름 사이로 별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달이 지고 있었고 한 시간 쯤 뒤면 해가 뜰 것 같았다. 무엇 때문에 깻을까? 단순히 추워서? 아니면 호랑이가 가까이에서 울부짖어서? 아니면 호랑이가 그의 옆을 스쳐지나가서?

바위에서 느껴지던 햇볕의 따스함은 진작 사라졌고, 바위의 냉기가 소년의 뼈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서 망토로 몸을 단단히 두르고는 가지 더미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쉬지 않고 떨었다. 하늘이 회색빛으로 변해 갈 때 주변에 있던 호랑이들이 바위와 덩불 속으로 들어갔다. 소년은 힘겹게 일어나서 다시 출발했다. 길은 거칠고 가팔랐다. 어둠 속에서 그는 발을 헛딛고, 미끄러지며 거의 네 발로 기었다. 걸으면 몸이 좀 따뜻해지길 바랐다. 하지만 걷고 또 걸어도 여전히 너무 추웠다.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졌다. 바위틈에 하얀색 웅덩이와 눈 더미가 쌓여 있었다. 물이 절벽 아래로 흐르고 있었는데, 수분이 느껴지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건들자 표면이 딱딱한 얼음이었고, 손은 아프고 발은 미끄러웠다.

소년은 고드름이 매달려 있는 절벽으로 왔다. 통증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꾸로 붙어 있는 길고 투명한, 때론 뒤틀린 모양의 얼음 양초를 감상하기 위해 멈췄다. 이 이상한 세계에서는 겨울조차도 신비로웠다.

소년은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태양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것이다. 하지만 그 날은 구름이 뒤덮인 날이었다. 구름이 머리 바로 위까지 가득 찬 느낌이었다. 눈이 하늘에서 여기저기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소년은 그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의 소매에 눈송이 하나가 내려앉았을 때 아름다운 별 모양이 녹을 때까지 응시했고, 그것이 '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렸다. 바위 위에 쌓이기 시작했다. 바위 위에 덮인 흰색 막은 마치 노나 아주머니 집 난로에 쌓인 재 같았다.

산 정상에 향해 서둘렀다. 정상에 오르려는 이유를 몰랐다. 너무 추워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느낌에 왠지 산 정상에 오르면 상황이 이 곳보다 낫고, 더 따뜻하고 안전할 것 같았다. 산 정상에 오르면 어떨지 상상했다. 화창하고, 조용하며 평화로울 것이다. 거기에도 눈이 있겠지만, 눈조차 따뜻할 것 같았다. 하늘은 푸르고 햇살은 순하고 부드러울 것 같았다. 물고기가 가득한 시냇물이 흐르고, 나무 아래 쉴 곳이 있을 것이다. 소년은 절벽과 벼랑, 불모지가 펼쳐진 눈 앞 광경을 피하고 싶어 이런 즐거운 상상을 반복했다.

심장이 쿵쿵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은 둔한 칼로 허파를 찌르는 것 같았다. 바위와 절벽에서 손과 발을 미친 듯이 허우적거렸다. 목표 지점과 점점 가까워져 갔다. 한 발짝씩 위로 올라가면 언젠가 정상에 도달할 것이다.

소년은 멈춰 서서야 자신이 정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포근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았다. 더 많은 눈과 바위, 눈 무게에 아래로 축축 처진 상록수가 더 있을 뿐이었다.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가. 주변을 멍하게 돌아보았다. 공기는 강철같이 매서워서 거의 숨을 쉴 수 없었고 손과 발은 냉기에 얼었다. 한 두 발짝을 걷고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소년은 구름이 잔뜩 낀 하늘 아래 나무 사이에서 비틀거렸다. 높이 쌓인 눈 위 표면은 얇은 막으로 얼어서 소년의 발목 높이에서 빠지직 거리며 부서졌다.

근처의 나무 가지가 눈과 얼음 무게를 견디지 못해 갑자기 '탁'하고 부러졌다. 고요한 허공에서 그 소리가 굉음처럼 울려서 멍한 딜라를 깨웠다. 고개를 들어 올려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움직이는 것도, 집도, 길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도나의 아버지가 눈 속에서 장작을 찾으며 죽어갔던 것처럼 소년도 죽어갔다.

추위와 배고픔에 죽을 것이다. 호랑이들은 그의 시체를 나눠 먹을 것이고, 그게 소년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뗏목 위에서 살 때는 배고픔도 추위도 두려움도 없었다. 지금 겪고 있는 추위와 팔 다리의 통증과 마음속의 슬픔을 그 때는 상상도 못했다. “할아버지!” 그는 반쯤 언 입술로 속삭였다.

그는 쉬지 않았다. 아무것도 할 게 없었다. 소년은 죽음이 그를 덮치지 않도록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 가려했다. 소년은 몸이 원래 무게의 40배는 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여간 아닌 노력을 해야 겨우 발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눈 속을 비틀거리며 구부정하게 가다가 결국 무릎으로 쓰러져서 일어 설 수 없을 때 까지 쉬지 않았다. 눈 위로 완전히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릎을 꿇고 지지했다.

마비되는 느낌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이런 것이 죽음이었다. 부드럽고도 불쾌한 죽음의 손길을 느꼈다.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어쩌면 할아버지에게 뗏목이 같은 자리를 맴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바람은 죽음을 맞이하기에 애석한 이유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년은 할아버지에게 ‘초록색’과 ‘낮’을 보여주고 싶었다. 잠시라도 뗏목 족에게 그들이 떠나온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눈의 감촉이 부드러웠다. 소년은 작은 종이 울리는 듯한 아주 작은 소리를 들었다. 종... 물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익숙한 소리였다. 흐르는 물이 듣기 좋게 떨어지는 소리였다. 만약 어딘가 흐르는 물이 있다면, 근처에 덜 춥고, 어쩌면 피신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뜻이다. 그는 다시 출발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눈 사이에 김을 뿜으며 흐르는 개울이 있었다. 그는 헉헉 대며, 일어서려고 온갖 애를 다 썼다. 죽고 싶지 않았다. 죽음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다리에 드리워진 혐오스러운 죽음의 그림자를 떨쳐내고 싶었다. 일어서서 버둥거리며 물가로 갔고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따뜻했다! 물이 따뜻했다. 따뜻한 이유가 뭘까? 개울을 따라 바위 사이로 미끄러지고, 또 넘어졌지만, 무릎으로 기어서 계속 갔다. 손으로 무거운 몸을 끌어당기고, 옆드려 기고, 살금살금 기고, 때론 꿈틀거리며 눈을 해쳐 나갔다.

그 개울은 낮은 동굴에서 흘러나왔다. 동굴 입구 주변의 바위에는 눈과 얼음이 거의 쌓여있지 않았고, 조그마한 고사리와 이끼가 돌 틈에서 자라고 있었다. 덜

라는 몸을 덜덜 떨고 혈떡이며 동굴 쪽으로 기어가다 몸을 수직으로 세워서 마지막 눈 더미를 지나 동굴 안으로 몸을 쓰러뜨렸다.

동굴 안은 공기가 너무 뜨거워서 도로 튕겨 나올 뻔했다. 공기가 텅텅하고, 후텅지근하고 냄새는 매캐했다. 아래 있는 바위들이 따듯했다.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세상에 어떻게 불과 열기로 꼭 찬 작은 동굴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도 그는 정신이 나가서 헛것을 보고 있는 걸 꺼다.

동굴 뒤쪽 바위 사이에서 펄펄 끓으며 부글부글 거품을 일며 샘물이 솟아 나왔다. 마치 노나 아주머니네 집의 주전자에서 뜨거운 물이 끓어오르듯이. 달라는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다. 동굴 안이 너무 뜨거워서 두려웠다. 입구 안쪽에 우두커니 서서 몸을 덥히고 있는 온기를 기쁘게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고, 아직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소년의 손과 발이 따끔거리고, 얼얼하며 엄청나게 아파오기 시작했다. 통증이 빠르게 심해졌고 손을 비틀고, 끄끙 거리며 위 아래로 팔짝팔짝 뛰었다. 통증은 계속 됐고, 쓰러져서 동굴 바닥에서 온몸을 비틀며 괴로움에 비명을 질러 댔다. 손가락과 발가락 안에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통증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손과 발을 다시 열려서 마비시켜 버리려고 급히 눈발으로 뛰어 나가서 눈 더미에 손과 발을 집어넣었다.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점점 추위가 공격해서 몸이 덜덜 떨렸다. 다시 동굴로 뛰어 들어가서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손만 동굴 밖으로 내민 채로 섰다. 마침내 통증이 잦아들어 따듯한 동굴 바닥에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며 이따금씩 신음하다가 잠이 들었다.

뗏목을 타고 다니던 꿈을 꾸다 깨서 혼란스러웠다. 눈을 떠보니 어두운 곳에서 붉게 빛나는 모닥불 옆에 누워있었다. 특 쏘는 냄새가 훅 하고 나서 바로 이 곳이 어딘지 깨달았다. 밤이 되니 샘에서 이상한 빛이 흘러나왔다. 따듯한 샘물이 보글거리는 소리와 동굴 바깥에서 들려오는 카랑카랑한 추운 소리 외에는 아무 것도 들리지 않았다. 손가락이 쓰리고 화끈거렸다.

손을 비비려고 했지만 하지 않았다. 갑자기 움직이지 말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하며 지금 내신 숨이 마지막으로 내쉴 수 있는 숨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동굴 안에서 무언가 커다란 것이 움직였고,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그것이 가까이

다가오자 뭔가 야생의 냄새가 났다. 초조하게 하는 그르렁 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지 않아도, 그게 호랑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 제 8 장

호랑이가 커다란 발로 쿵쿵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뜨거운 입김이 소년의 볼에 느껴졌다. 달라는 귀에서 웅 웅 소리가 나고 붉은 빛이 반짝일 때까지 숨을 참고 가슴을 서서히 부풀렸다. 하지만 움직이지는 않았다. 호랑이가 커다란 입을 벌려 소년의 목을 뜯으려 해도 소년은 죽은 척하고 먹혀야 한다. 호랑이의 수영과 차가운 코가 소년의 귀를 스쳤다.

그러고는 가버렸다. 달라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누워서 참은 숨을 천천히 내쉬고 부드럽게 갈비뼈를 내리며 호흡의 달콤함을 느꼈다. 숨이 천천히 작은 소리를 내며 폐에서 빠져 나갔다. 그리고 가슴에 호흡을 불어 넣기 전에 호랑이가 도로 달려왔다. 호랑이는 옆에 벌렁 드러누웠다. 호랑이가 동굴 바닥에서 앞뒤로 구르며 그르렁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번은 꼬리가 달라의 얼굴을 핥았고, 그 커다란 발로 소년의 등을 따라 두 번 긁어내렸다. 호랑이가 한숨을 쉬며 썩은 고깃내를 확 풍기고는 마침내 꼼짝하지 않고, 고요해졌다.

달라는 너무 두려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등 뒤에 호랑이가 있다는 걸 알았다. 호랑이가 잠이든 것 같았지만 감히 돌아누워서 확인하지는 못했다. 소년은 호랑이의 숨소리, 이 가는 소리, 호흡이 들고 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가 코를 고는 소리인지 아닌지 알 지 못했다. 동굴 뒤쪽 어둑한 불빛을 보며 누워 있다가 온 용기를 내서 돌아누워 호랑이와 마주 누워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 만약 호랑이가 그를 죽인다 하더라도 괜찮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편안한 집을 떠나온 후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한 그에게 살아야 할 이유나 있을까? 이 이상한 세계에는 그를 위한 곳이 없다. 게다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게 추위 죽거나 배고파 죽는 것보다 빠르고 덜 고통스러울 거다. 그가 움직이면 호랑이는 즉시 그를 죽일 거다...

그때 호랑이가 큰 소리로 하품하고는 일어섰다. 달라는 다시 얼었다. 결국 그는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특히 호랑이한테 잡혀 먹고 싶지 않았다. 또 다시 커다란 호랑이의 머리가 달라 위로 기울었고 이번에는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그를 한 번에 삼켜버릴 듯이 몸을 낮추어 앞으로 구부렸다.

모든 일이 한순간에 벌어졌다. 동굴 뒤 쪽에서 어떤 충격과 함께 덜커덕 거리는

소리, 두려움과 통증에 덜라가 내지른 비명, 호랑이가 놀라서 낸 기침 소리가 동시에 났다. “떨어져, 떨어져.”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호랑이가 다시 으르렁 거렸고 갑자기 빙빙 돌다가 꼬리로 덜라를 또 치고는 사라졌다. 덜라는 거의 기절 상태였지만 일어나서 동굴 뒤쪽으로 달렸다. 거기에 누군가가 있었다. 그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동굴 뒤쪽에 있던 그 사람은 거대했다.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두꺼운 어깨가 딱 벌어졌고 배도 남산만 하고 손발도 크고 얼굴도 커다란 접시처럼 넓적했다. 그는 덜라를 보고 놀란 것 같았다. 나무 양동이를 들고는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자 자, 얘야 호랑이가 너를 여기로 끌고 왔니? 다친 곳은? 호랑이한테 물렸니?”

“아니요, 아니요.” 덜라가 헐떡이며 말했다. “아저씨가 날 구해줬어요. 아저씨가 아니면, 난 벌써 잡아 먹혔을 거예요.”

“구해줘?” 그 거대한 남자는 놀란 것 같았다. 그리고는 웃었다. “오, 그 호랑이는 널 다치게 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내가 널 구해줬어. 아,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기쁘구나.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 구만. 손님이 찾아오는 건 내게 몹시 드문 일이지. 잠깐 기다려봐, 물을 좀 갖고 올게. 우리 이야기 좀 하자구나.”

그는 동굴 앞쪽으로 가더니 동굴 밖 창백한 새벽 여명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양동이 가득 눈을 푹 떠서 담고는 덜라에게로 돌아왔다. “이쪽으로 오렴.” 바위들 사이로 작은 나무문이 있었다. 덜라는 아저씨가 그 좁은 문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궁금했다. 그가 문을 열고 비집고 들어간 후 덜라를 위해 문을 잡아 주었다. 안쪽에는 훨씬 더 큰 동굴이 있었다. 너무 커서 동굴 같지 않았다. 한 쪽 끝에는 커다란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침대와 찬장, 의자들이 벽 쪽으로 있었다. 모닥불 앞에는 식탁이 있었고, 밝은 색 러그가 바닥에 깔려 있고 벽에도 걸려 있었다.

“놀랐니?” 그가 싱긋 웃었다. “이래야 공평하지. 아까는 내가 너 때문에 놀랐거든.”

그는 양동이를 불 옆에 내려놓고 재를 야단스럽게 뒤적거렸다. 머지않아 그는 김이 나는 케이크를 돌 오븐에서 꺼냈다. “앉아서 편히 쉬면서 같이 먹자구나.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해야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어. 내 신조야”

식탁엔 계란도 있었다. 냄새가 끝내주는 베이컨과 따뜻한 음료, 익힌 과일도 있었다. 딜라는 굶주려서 가렵고 화끈거리는 손으로 맛있는 음식들을 입속으로 마구 담았다. 그 남자는 웃고 이야기하며, 오븐에서 케이크를 계속 꺼내다 주었다.

“복숭아도 좀 먹으렴. 아, 그 맛이 흐린 날 살짝 보이는 태양 같아. 지난여름에 산비탈에서 여덟 바구니를 따서 옮겨왔지. 정말 뜨거운 날이었어.” 한숨을 쉬고는 그 뜨거운 여름을 생각하며 머리를 문질렀다. 그리고는 빙그레 웃었다.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어. 곱게 빻은 귀리로 이 케이크들을 만들어. 귀리를 구하러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 귀리 케이크 훌륭하지 않니? 최고는 언제나 좋지. 난 항상 최고의 것을 추구해. 배도 좀 먹어보렴. 아주 달콤한 클로버꽃 꿀을 넣고 뽕근히 끓였지…”

그는 쉬지 않고 이야기 했고 말하면서 먹기도 했다. 딜라는 배가 불렀다. 세상에 누가 그 거대한 사람처럼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그는 커다란 핫케이크 몇 판을 먹고, 베이컨, 열매와 복숭아 몇 통, 계란도 먹고, 먹고 또 먹었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아직도 오븐에서 케이크를 꺼내고, 꺼내고 또 꺼내와 식혔다.

“내 이름은 웅고야.” 갑자기 말했다. “케이크 더 먹으렴.”

“제 이름은 딜라예요.” 소년이 대답했다. “케이크는 괜찮아요.”

딜라가 뗏목 족이라는 것과 호랑이를 물리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었다는 이야기를 하려했다. 하지만 웅고 아저씨가 갑자기 난로에 있던 따뜻한 기름이 든 작은 그릇에 손을 넣더니 딜라의 손을 잡고 동상에 걸린 손가락에 문지르기 시작했다. “자주 발라줘야 해. 그래야 동상 걸린 부위가 빨리 나아.” 그가 설명했다. “나도 가끔 동상에 걸리는데, 이게 최고의 치료법이야. 동상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우리 할 일이 정말 많거든. 손가락이 아프면 일에 방해가 되니까. 이제 따라와. 무얼 해야 하는지 보여줄게.”

동굴의 한 귀퉁이에서 그는 엄청나게 큰 그릇을 갖고 와 식탁위에 놓았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걸어가서 침대 가까이 있는 문을 열고, 딜라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상자와 크고 작은 통으로 꽉 채워진 또 다른 동굴이 나왔다. 햄과 줄에 엮어 놓은 양파, 과일과 채소가 가득 든 자루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딜라는 이 세상에서 먹을 걸 이렇게 많이 보게 되어 대단히 놀랐다.

딜라의 도움을 받아 웅고 아저씨는 오트밀이 든 커다란 자루와 계란들, 기름병들을 다른 방으로 날랐다. 곧 상당히 많은 케이크를 오븐에서 구웠다. 그리고는 커다란 바구니를 집어 들고 식은 케이크를 바구니에 넣었다.

“자, 이제 가자!” 아저씨가 외치고 딜라와 맨 처음 통과했던 문을 열었다. 그는 호랑이들을 찾느라 주위를 돌아보며 소리 지르고, 발을 쿵쿵거렸다.

“호랑이들이 가끔 여기에 와.” 그가 설명했다. “하지만 내가 소리를 지르면 호랑이들은 항상 빠르게 뛰어와. 아마 호랑이들은 나처럼 덩치가 큰 사람은 호랑이보다 아침을 더 많이 만들어 먹는다고 생각하나봐. 자, 이제 네 차례야. 아주 조심해야해.” 그는 빙그레 웃었고, 딜라도 미소 지었다. 아저씨는 호랑이가 기분이 좋아 가르랑 거리는 소리를 귓전에서 생생히 떠올리며 재미있어했다.

소년은 웅고 아저씨를 따라 눈발으로 나갔다. 저 거대한 아저씨는 눈발에 케이크를 던져놓을 생각일까? 눈에 갖다 버릴 거라면, 왜 케이크를 저렇게나 많이 만들었을까?

따뜻한 동굴에서 나오니 추위가 엄습해왔다. 심부름이 무엇이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웅고 아저씨는 나무 사이로 척척 걸어갔다. 나무들은 상당히 컸다. 절반가량이 상록 침엽수였고, 앙상한 가지의 은빛 나무엔 잔가지를 따라 마른 꼬투리들이 달려 있었다. 꼬투리를 쪼아 먹던 새 한 마리가 그들을 보자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냈다. 새들이 갑자기 나무에 몰려들었다. 파란 새, 빨간 새, 까만 새, 날개와 꼬리에 점이 찍힌 새, 왕관과 뿔, 화려한 깃털이 달린 새들이 울고, 뽁뽁거리며 노래를 했다.

웅고 아저씨는 작은 공터에 멈춰서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케이크를 손으로 부셔서 단단한 눈 위로 던졌다. 새들이 몰려들었다. 사실, 그가 케이크 조각을 떨어뜨리기도 전부터 새들은 주위로 몰려들어 아저씨의 팔과 머리, 어깨에 앉았다가 손에 있던 빵 조각을 낚아챘다.

“자, 자, 작은 친구들, 너무 욕심 부리지마.” 아저씨가 빙그레 웃으며 부드럽게 말했고, 케이크를 더 집으려고 손을 뻗었다. 다람쥐들도 먹으려고 달려 올라왔고, 딜라 눈에 덩불 아래에 있는 다른 동물들도 보였다. 그는 케이크 하나를 집어서 덩불 속으로 던져주었다. 작은 동물들이 종종 걸음을 치며 흩어 졌다가, 조심스럽게 케이크 주변으로 다시 모였다.

“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군.” 바구니가 비고 빵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을 때 아저씨가 외쳤다. “따라와 봐, 얘야. 할 일이 더 있단다.”

그들은 바구니를 채우고 숲으로 나르는 일을 두 번 더 했다. 딜라는 아저씨가 케이크를 오븐에 넣고 꺼내는 것을 지켜보았고, 눈발으로 바구니를 들고 갈 때 아저씨 뒤에서 떨어졌다. 아저씨는 이따금씩 케이크 한두 개를 새와 다람쥐들에게 던져 주었다. 이 일은 소년이 해본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저씨는 딜라가 힘든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소년에게 기운을 잃지 말라고 오트밀 케이크를 자꾸 권했다. 딜라가 있어서 매우 들떴는지, 쉬지 않고 말했다. 동굴로 다시 돌아오자 딜라에게 모든 저장실을 보여주었다. 어떤 곳은 뜨거운 온천으로 공기가 따뜻했고, 어떤 곳은 바깥의 찬 기운으로 차가웠다. 그는 딜라에게 식량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밀은 어떻게 낫고 어떻게 혼자서 식사를 준비하는지, 과일은 어떻게 말리며 계란은 어떻게 저장하는지 얘기해 주었다. 요리하고, 굽고, 그릇과 스푼을 씻고 바닥에 흘린 물기를 닦아 내는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 했다. 딜라는 돕고 싶었지만, 들고 나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듣는 게 피곤해 졌고, 수프를 먹고, 불 근처 바닥에 아저씨가 준 담요와 옷가지로 요를 만들어 깔자 딜라는 피곤함이 몰려와서 몸을 완전히 뻗기도 전에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에 잠이 깨어 웅고 아저씨가 커다란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자 딜라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너그럽고, 쾌활하고 마음씨 좋은 이 아저씨가 딜라가 찾던 그 현자일까? 그는 분명히 보바나 포탄, 카트란 아저씨보다 똑똑했다. 이 아저씨는 저 아래 계곡보다 훨씬 더 길고 흑독한 겨울이 있는 곳에 살고 있지만 완벽하게 월동 준비를 해두었다. 평생 동안 새와 짐승들을 돌보고, 노래하며 빙그레 웃는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임이 틀림없다. 그는 남들은 모르는 비밀을 알 것이다. 딜라가 묻는 질문에 답해 줄 사람일까?

## 제 9 장

그 후에 딜라는 웅고 아저씨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여러 날이 지나도 하루하루가 비슷했다. 따뜻하고, 밝고, 굽고 요리하는 좋은 냄새가 풍기며, 쉬지 않고 들리는 아저씨의 말소리까지. 그는 매일 요리를 했고, 바구니 가득 케이크를 만들며 식료품 저장고를 잘 관리했다. 딜라는 아저씨를 도우며 어깨 너머로 보며 이것저것 배웠다. 하지만 아저씨는 딜라에게 가끔씩 수프 짓는 일 아니면 저장소에서 재료를 꺼내 오는 것, 바닥을 닦는 일 같은 아주 간단한 일만 맡겼다.

“빵을 구울 땐 불 조절을 아주 잘 해야 해. 넌 화상 입을 수도 있어.” 또는 “아니야, 아니야.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려면 계란 거품을 오래 저어야해, 반죽은 얼마나 묵직한지, 네가 하면 팔이 아플 거야.” 또는 “내가 가방을 들어줄게. 너 같은 어린 소년은 힘이 없잖아.” 아저씨는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딜라는 아저씨가 많은 이야기와 노래를 들려주지 않았다면, 지루했을 것이다. 아저씨는 식료품 저장고에 있는 모든 식량 주머니와 꿀 항아리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들 하나하나에 대한 근사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 뗏목 족 소년에게는 거의 모든 것이 새로웠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매우 재미있게 들어줄 수 있었다. 게다가 딜라도 그의 이야기를 통해 아저씨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했고, 이 사람이 정말 모든 질문의 답을 아는 현자 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웅고 아저씨는 딜라에게 질문 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딜라의 말을 잘 듣지도 않았다. “저는 뗏목 족 이에요.” 어느 날, 아저씨가 케이크를 가득 올린 팬을 오븐에 집어넣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도?” 아저씨가 대답했다. “당나귀에 포도를 가득 싣고 산 위로 올라갔던 때 이야기를 했었나? 산비탈에서 하루 밤을 보냈어야 했는데, 그 날 밤에 당나귀가 포도를 다 먹어 버린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그는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었다.

“하루는 강에 사는 사람과 음식과 기름을 맞바꾸러 갔었지.” 그는 또 다른 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딜라가 재빠르게 끼어들었다. “저는 뗏목 족 이에요. 강에서 살다 왔다고요. 뗏목에서 제 인생의 모든 시간을 보냈어요.”

“내 생각에 그건 강이라기보다 호수에 가까웠어.” 아저씨가 멍하게 말했다. “주변에 온통 견과류 나무가 자라고 있는 매우 커다란 호수였어. 그 분은 견과류에서 기름을 짜내는 방아 같은 걸 갖고 있었고, 작은 돌로 된 여물통에서 다른 돌통으로 기름이 떨어 졌는데 내가 본 중 최상품의 아주 맑은 기름이었어. 차가운 저장고에 지금도 저장되어 있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듣고 싶지 않으세요?” 딜라가 한번은 짜증이 나서 외쳤다. 아저씨가 놀라서 말했다. “왜 그러지 않겠니? 듣고 있단다. 하지만 네가 어디서 왔든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너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단다. 팬을 이리 쥐봐. 케이크가 금방 완성 될 거야.” 그리고는 달그락 거리며 반죽을 치기 시작했다. 딜라는 조용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딜라가 도착한지 삼 일 후에 눈이 심하게 내리기 시작했다. 딜라는 거대하고 부드러운 눈 더미가 쌓이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나뭇가지에 수북이 쌓이고, 바위를 감싸서 동굴에서 부터 저 멀리 보이는 세상까지 온통 부드러운 하얀색으로 펼쳐져 있고, 초록, 파랑, 라벤더 색의 그림자와 우묵한 부분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 딜라의 마음이 아팠다.

윙고 아저씨는 정신없이 빵을 굽느라 그 어느 때 보다 바빴다. 케이크가 가득 든 바구니들을 숲으로 나르려고 밖으로 나갔을 때, 아저씨는 딜라에게 상록수의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쪽과 커다란 동물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눈 속에서 어떻게 이동해야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나뭇가지들이 가까이 자라고 눈이 나뭇가지에 걸려 마치 나무 사이에 지붕이 만들어 져있는 아치 모양의 길을 한동안 지나왔다. 딜라는 이 하얗고, 고요하고, 천정이 낮은 터널을 걷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갇혀있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별로였다. 갑자기 영영 뗏목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는 좁고 사방이 막힌 장소에서 사는 법을 익히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저씨는 눈 더미를 뚫고, 헉헉대고 헐떡이며 길을 따라 서둘러갔다. 그들이 눈속을 헤쳐 나가는 동안 이마 위로 땀이 솟구쳤다. “케이크가 식기 전에 먹이를 줘야해.” 헉헉대며 말했다. “아, 가엾은 내 작은 동물들. 이렇게 추운 날엔 따뜻한 음식이 필요해. 눈 속을 걸어 다니는 조그만 발들이 너무 가엾어.”

“제가 바구니를 들게요.” 딜라가 애원하듯 말했다. “내가 드는 게 편해요. 나도 힘이 세요. 제가 들게 해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윙고 아저씨가 험뻑이며 대답했다. “너무 무거워. 그리고 내 작은 친구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케이크를 나르는 것뿐이야.”

그들은 계속 허둥대며 이동했다. 딜라는 키가 아저씨의 반밖에 되지 않아 아저씨가 길을 편하게 가도록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여기까지는 딜라가 잘 아는 길이어서 앞서서 폴짝 폴짝 뛰었다. 딜라의 무게로는 꿈쩍하지 않던 단단한 얼음 껍질이 커다란 아저씨의 발에 완전히 부서져버리면 가는 길을 더 힘들었다.

눈이 내린 후에 추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매서웠다. 태양이 떠올라서 온 세상이 푸르스름한 빛으로 보였다. 공기 중의 얼음 조각에 태양빛이 부서지며 온 세상이 반짝거렸다. “공기도 얼었나봐.” 딜라는 생각했다. 추위는 그가 상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추위는 더위처럼 밀어닥치거나 주변을 맴도는 게 아니라 좁은 손가락으로 당기고 꼬집어서 찢어내는 느낌이었다. 딜라는 이 세상에 또 다른 이상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다. 추위와 더위 외에 다른 것이 또 있을까? 있다면 어떤 것일까? 발견할 수 있을까? 그걸 찾으러 여기를 떠나야 할까? 아니면 윙고 아저씨와 여기서 살아야 할까? 아마도 눈이 더 이상 내리지 않으면 아저씨는 잠시 멈춰서 한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여유가 생길 것이다.

어쨌든 이 추위에는 떠나고 싶지 않았다. 배고프고, 제대로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서 덜덜 떨며 있을 도나와 노나, 보바와 다른 사람들이 때때로 궁금했다. 도나의 말이 옳았다. 추위는 꿈쩍한 것이라고 혼잣말 했다. 하지만 아름답기도 했다. 눈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눈이 무겁게 쌓여 축 쳐진 나무 위에서 반짝이는 태양 빛, 이상하게도 메아리가 울리지 않는 조용한 세상, 순백의 나뭇가지 사이에서 반짝이는 한 마리 새를 보며 경탄했다. 그리고 산 정상에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할 때 너무나 아름답고 슬퍼서 딜라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딜라와 아저씨가 외출할 때면 거의 동굴 입구 쪽 따뜻한 곳에 호랑이들이 있었다.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며 쇠막대기로 벽을 때리면 호랑이들은 항상 느긋하게 일어나서 밖으로 이동했다. 눈 속의 호랑이는 너무나 멋있고, 눈부셨다. 호랑이들이 바닥의 얇은 얼음 껍질을 부수며 하얀 눈 속에서 어슬렁거릴 때, 호랑이들의 움직이는 모습은 매우 유연하고 털이 너무 화사해서 가끔 동굴 앞쪽 까지 뛰

어 나가 멀리 있는 호랑이들을 바라보았다.

“조심해! 조심!” 아저씨가 경고했다. “너를 잘근잘근 씹어서 조각 내버릴 거야. 호랑이들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

하지만 딜라는 호랑이들이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이 뒤로 돌아 딜라를 바라볼 때조차. 얼마나 멋있는가! 호랑이들은 게으르고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들이 필요한 건 누워서 몸을 뻗을 수 있는 따뜻한 장소일 뿐이다.

눈이 더 많이 내렸다. 눈 더미 위에 눈이 쌓이고 쌓여서 나무들이 반쯤 눈에 파묻혔다. 매일 아침마다 그 전 날 내린 눈 위로 새로운 눈이 덮었다. 눈은 ‘학살터’도 덮었다. 눈 속에서 어떤 동물이 비참하게 죽어서 얼음위에 피가 낭자하고, 애처로운 조그만 뼈 무더기, 털, 깃털이 널려있었다. 하지만 아저씨는 인식도 못하는 것 같았다. 딜라는 아저씨한테 이야기 하지 않았다. 아저씨가 알게 되면 커다란 덩치 아저씨는 매일 정성껏 돌봐온 작은 친구들과 작은 짐승들 하나하나의 죽음을 애도할 터였다.

“이 산에선 겨울이 얼마나 길어요?” 어느 날 아침에 딜라는 추위를 견디려고 자기 몸을 껴안고 서서 아저씨가 바구니를 비우기를 기다리며 물었다.

“아주 길어” 아저씨가 웃으며 대답했다. “겨울이 지나면 우리 일이 시작되지. 너와 내가 정말 바빠질 거야. 계곡에 꿀벌들이 모여들고, 견과류가 따뜻해지면, 우린 일을 시작해야 해. 다시 공간을 채워야 하거든.”

‘너와 나? 우리는 시작한다?’ 딜라가 생각했다. 딜라는 겨울이 지나가도 여기에서 정말 아저씨와 살길 원할까? 아저씨는 그때가 되면 딜라의 말을 들어주고 딜라에게 무엇을 해야 할 지 말해줄까? 만약, 아저씨가 더 바빠진다면, 딜라의 말을 듣기 위해 1분이라도 기다려줄까?

후에 딜라는 아저씨에서 떨어져 여기저기 헤매다가 눈 더미사이로 올라가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알고 있었다. 눈이 그치고, 날이 포근해 질 때까지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기에 있어야 하나?

딜라의 머리가 커다란 나무의 첫 번째 나뭇가지 높이에 있었다. 눈이 녹은 후엔 딜라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을 높이였다. 소년은 갑자기 가지를 하나 잡더니 나무를 타서 올랐다. 웅고 아저씨와 새 무리가 보였다.

잠시 후, 소년은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바로 옆의

침엽수 사이에서 두 눈이 먹이를 먹고 있는 새들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딜라는 숨을 들이 쉬며 사납고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며, 강하고 날카로운 부리가 보이는 위풍당당한 머리를 바라보았다. 작은 새들에게 경고를 하거나 매를 쫓아 버리는 일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머잖아 새들은 다시 따뜻한 케이크 조각에 정신을 잃을 것이고, 갈고리 모양의 발톱은 결국 조그만 새들을 찾아내고는, 낚아 챌 것이다.

딜라는 천천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눈 더미를 스르르 미끄러지며 아저씨와 함께 걸어왔던 길에 도착했다. 딜라가 도착했을 때 웅고 아저씨는 바구니를 다 비우고 아저씨의 엄지손가락 위에 앉아서 만족스럽게 마지막 케이크 조각을 쪼아 먹는 연두색 작은 새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서 있었다.

“어디 있었던 거니?” 아저씨가 밝게 외쳤다. “서둘러야 해요. 오늘 오후에 또 폭풍이 불어 닥칠 거예요. 밖에 있으면 안돼요. 모닥불 옆에 앉아서 내가 특별 자두 꿀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호수에서 다리가 길고 커다란 파랑 새를 잡았는지, 무슨 수로 그 새가 나를 따르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해 줄게요.” 아저씨는 웃더니 빠르게 한마디 거들었다. “나는 그 새에게 일을 고되게 시키지 않았어.”

따뜻하고 아늑한 곳에 앉아서 아저씨가 끝없이 이야기하며 좋은 향기가 나는 케이크를 먹는 건 꽤 유쾌한 일이라고 딜라는 생각했다. 하지만, 영원히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인가? 이게 아저씨에게 답을 얻어내는 방법일까?

그들은 눈 사이를 걸었고, 딜라는 뒤를 돌아 당겨진 활시위에 놓인 화살같이 목표물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 나무 꼭대기의 매를 바라보았다.

“저기 좀 봐요. 나무 꼭대기에 매를 보세요.” 소년이 아저씨에게 말했다.

아저씨는 머리를 돌렸다. “어디?” 그가 물었다.

“저기요. 저 침엽수 꼭대기에요.” 딜라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저씨는 응시하다가 머리를 흔들었다. “월 잘못 본 거 같구나. 이 산엔 매가 없어.” 그러더니 가던 길을 서둘렀다.

딜라는 따라갔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질문으로 괴로웠다. 아저씨는 정말로 친절하고 지혜로운 사람일까? 아니면 어리석고, 새와 짐승을 유인해 손쉬운 사냥감이 되게 하는 잔인한 사람일까? 놀랄 일이 아니다. 호랑이들은 너무나 매끈하고

느렸다. 새들이 아저씨를 기다리는 것처럼, 호랑이들도 아저씨가 주는 저녁을 기다렸다. 이런 생각을 하니 조금 소름 끼쳤다. 아저씨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일까? 눈 속의 피가 흥건한 그 곳을 못 봤을까? 그의 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바구니를 채워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 전에 눈보라가 쳤다. 아저씨는 괴로워했지만, 이내 자두 꿀 케이크를 만드느라 분주해졌고, 딜라에게 해 주기로 한 이야기를 했다. 딜라는 앉아서 불을 응시했고, 아저씨의 이야기는 거의 듣지 않았다. ‘아니야. 웅고 아저씨는 현자가 아닐 수도 있어.’ 혼잣말 했다. ‘아저씨는 내 질문에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 딜라의 마음은 새로운 다른 것들로 가득 차다.

“아저씨, 전 여기를 떠나야겠어요. 여기에서 여행을 다시 시작하겠어요.” 갑자기 말했다.

놀라움에 잠깐의 정적이 흐른 후, 큰 덩치 아저씨가 울부짖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누가 케이크 나르는 걸 도와주겠어? 케이크 굽는 건 또 누가 도와주며, 누가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아저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애절해졌다.

딜라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웃었다. “전 아저씨를 돕지 않았어요. 제가 오기 전에 했던 것처럼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저씨 새와 동물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아저씨와 항상 함께 할 거예요.”

교활하고, 비열해 보이는 표정이 아저씨의 얼굴에 비쳤다. “어쨌든, 이런 추위와 눈 속에선 여길 떠나면 안 돼. 여길 떠나면 무슨 수로 따뜻하게 지내며, 식사를 할 수 있겠니?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 아저씨가 말했다.

그리고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버터 향이 퍼지는 커다란 케이크 한 조각을 딜라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딜라는 한 입도 거의 삼킬 수 없었다. 갑자기 겁이 났다. 새들과 작은 짐승들처럼 딜라도 아저씨의 케이크와 따뜻한 모닥불로 유인되어 희생양이 된 것일까? 함정에 걸려들어 무언가 덤벼들어 갈기갈기 찢기는 걸까?

그 이후 며칠 동안 웅고 아저씨는 여느 때와 같이 쾌활했다. 딜라가 느끼기에 아저씨를 그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 아저씨는 딜라에게 더 많은 바구니를 나르

게 했고, 케이크를 작게 조각내어 던지게 했다. 그래서 소년은 헤매고 다닐 기회가 없었다. 아저씨는 그 어느 때 보다 열심히 이야기 하고 노래 불렀다. 케이크를 더 많이 굽고 달달한 사탕을 더 많이 만들었다. 때때로 딜라의 어깨를 치며 그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가 오기 전에 산꼭대기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하곤 했다. 딜라는 아저씨에게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항상 고마워했고, 추운 겨울에 머물 곳을 제공해 줘서 얼마나 고마운지도 이야기했다.

하지만, 추운 날들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다. 여전히 눈은 내리지만, 단단한 얼음 껍질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몇 주 전에 발 동상이 걸려 열이 나고 쿡쿡 쑤시게 한 얼음이 녹았다. 길이 질퍽질퍽해져 걷는 것이 불편했다. 소년과 아저씨는 케이크를 운반하고는 서둘러 모닥불로 갔고, 다시 나가려고 할 때까지 딜라의 옷이 마르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었다. 아저씨 말이 맞았다.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소년은 여전히 떠날 계획을 짤 수 있다고 혼잣말 했다. 웅고 아저씨의 지속적인 감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획을 짤 수 있었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길로 가야하는 지 알고 있었다. 아저씨와 길을 따라 걸어오며 쉽고 빠른 길로 가는 쪽의 지형물과 나무, 바위 뒤편 쉼터를 신경 써서 기억했다. 한번은 산의 능선을 발견했는데,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쉬워 보였다. 위로 올라가서 보았더니 역시나 거뜬히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길이었다.

소년은 떠날 날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활활 타오르는 난로와 아저씨의 쉼 없는 이야기, ‘케이크 한 조각만 더 먹으렴.’이라고 말하는 성가신 권유를 뒤로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소년은 나날이 눈이 사라지고 있는 조짐을 찾으려 했다.

어쩌면 눈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밤에 자리에 누웠는데, 우울한 생각이 들었다. 아저씨가 눈과 추위는 끝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눈과 추위는 영원히 지속될지도 모른다.

소년은 갑자기 그 날 밤에 떠나기로 결심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계획대로 최대한 따뜻하게 옷을 껴입고, 아저씨가 밤에 배고파질 경우를 대비해 식탁 위에 둔 음식 한 무더기를 들고 빠져나가서 산의 능선을 따라 노나 아주머니네 집으로 갈 계획이었다.

아저씨는 계속 코를 골았다. 살며시 일어나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옷을 입었다. 아저씨가 준 따뜻한 울 목도리로 머리와 목을 감싸고, 식탁으로 다가가서 모자에는 음식을 채웠다. 발끝으로 모닥불까지 걸어가서 생기 넘치는 방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웅고 아저씨를 완전히 떠날 수 있기를 소망했다. 그리고는 동굴 문 쪽으로 이동했다. 손을 내밀어서 스스로 한 번도 열어 보지 않은 그 문을 열기 위해 문에 손을 갖다 댔다.

문의 걸쇠를 잡아당기기도 전에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깨달았다. 달려가 문을 열기에 그 문은 너무 무겁고 바위에 단단히 달혀있었다. 그는 쇠창살 대신에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죄수였던 것이다.

## 제 10 장

윙고 아저씨는 마지막 부스러기를 눈 위로 살짝 던졌다. “애야, 너 요즘 너무 우울해보여. 그렇게 침울한 표정 지을 거 없잖아.” 딜라에게 꾸짖듯이 이야기했다. “이 귀여운 친구들을 좀 보봐. 추위와 눈 속에서도 활기가 넘치잖아.”

딜라는 얼굴을 찌푸렸다. “난 새가 아니라 사람 이에요. 케이크 부스러기에 만족할 수 없다고요.”

“아마 그럴 테지.” 아저씨가 인정했다. “하지만 추운 겨울에는 굶주리는 것 보다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게 낫지. 더 좋은 건 겨울이 끝나간다는 거고.”

“아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겨울은 영원할 거예요.” 딜라가 어두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저씨는 웃고는 머리를 가로 저었다. “봄이 다가오고 있어. 이리 와봐, 보여줄 게 있어.”

아저씨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쪽을 향해 나무 사이를 걸어가기 시작했다. 딜라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갔다. 케이크를 굶고, 먹고, 새들에게 던져 주는 일 외에 뭔가 다른 일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랐다. 딜라는 눈과 추위가 끝없이 지속되며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윙고 아저씨는 어쩌면 정말 봄이 오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지도 모른다.

가끔씩 한 줄로 나있는 발굽 동물의 가름한 발자국과 커다란 날개가 스친 자국 외에는 기억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눈 속을 걸었다. 덩치 큰 아저씨는-이번만은 거의 말도 없이-전혀 망설임 없이 재빠르게 전진했다. 딜라는 아저씨에게 어떻게 이렇게 길을 잘 찾는지 묻고 싶었다.

“자, 저기를 봐!” 한참 있다가 아저씨가 외쳤다. 딜라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눈 덮인 풍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뭘 기대해야 하는 건지도 몰랐다. 하지만 아저씨는 서둘러 앞으로 나아갔고, 소년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놀랍게도 갑자기 호랑이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 길고 가파른 산비탈의 꼭대기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 이것은 결코 소년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 아래에는 기묘한 색깔의 안개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안개 너머 저 쪽에는 나직한 산들이 안개 위로 솟아있었다. “저기를 봐!” 윙고 아저씨가 손으

로 가리키며 외쳤다. “저 산에는 눈이 없잖아. 산비탈에 푸른색도 좀 보이네. 보여?”

딜라는 이마에 손을 올렸다. 보이는 것 같았다. 아니, 보고 싶었다. 잘 보고 싶어서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꿈쩍하고 소름끼치게 소년의 발이 아래로 미끄러졌다. 몸이 빠르게 미끄러졌고, 숨이 턱 막혔다. 팔을 짝 펴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몸은 떼구루루 구르고, 회전하며 산을 따라 아래로 미끄러졌다.

바위에 부딪쳤고, 절벽에 튀어나온 평평한 작은 바위 너머 부드러운 눈 위로 불안하게 착지하고,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갔다. 키 작은 덩불로 튕겨져 나가 그 덩불을 잔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힘껏 잡아챘다. 다시 아래로 구르고, 구르고, 또 굴렀다. 선반같이 튀어나온 돌에 걸렸고, 더 이상 굴러 내려가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긁고 활췌었다. 속도를 줄이려고 사력을 다했지만 허무하게도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숨이 턱 막혀 반쯤 실신한 채 텅 빈 공간으로 낙하했다.

소년은 강물에 뛰어드는 것처럼 눈으로 뛰어 들었다. 눈이 소년의 머리와 눈, 벌린 입을 뒤덮었다. 실제로 헤엄치는 것처럼 손으로 눈을 때렸고, 발로 바닥을 찼다. 눈 위로 상당히 부드럽게 착지했기 때문에, 눈이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눈 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익사하거나 질식사하거나 얼어 죽을 거다. 소년은 이미 거의 파묻혀서 매장된 상태였다. 광분하여 발을 차고, 파닥거리자 마침내 뭔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다. 눈이 가득 찬 구멍에서 나와 눈이 발목 높이까지만 쌓인 넓적한 바위 위로 올라갔다. 흐느끼듯 숨을 크게 내쉬며 그 위에 누웠다. 아직도 별이 보이고, 눈앞이 반짝거렸다. 흐릿하고, 사방이 똑같은 풍경이 꿈같아서 눈의 초점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시야가 뚜렷해졌고, 헐떡거리는 소리도 작아졌다. 고요한 가운데 갑자기 저 멀리 위쪽에서 웅고 아저씨의 우렁찬 고함이 들렸다. “딜라! 애야! 딜라! 거기 있니? 내 목소리 들려?”

딜라는 일어나 앉았고, 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렀지만, 소리는 낼 수 없었다. 가슴을 아무리 쥐어짜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웅고 아저씨가 준 목도리를 목에서 풀었다. 밝고 따뜻한 황토색 목도리였다. 소년은 힘없이 목도리를 몇 번 흔들었다.

아저씨는 계속 외쳤고, 잠시 후에 딜라는 다시 목도리를 흔들고는 눈에 잘 띄도록 하얀 눈 위에 길게 펼쳤다.

“봤어, 딜라!” 아저씨가 외쳤다. “봤어. 움직이지 마. 밧줄을 갖고 와서 끌어올려줄게. 조심하 앉아있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딜라는 눈 속에서 몸을 웅그려 기다렸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팠다. 온몸이 멎고, 굵히고 밀렸다. 팔은 어깨관절에서 반쯤 빠진 듯 했고, 머리는 뚱뚱할 듯 아팠다. 소년은 아저씨가 한참 후에야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동굴까지 수마일 떨어져 있고, 다시 여기까지 오려면 또 수 마일을 걸어야 한다. 덩치 큰 아저씨가 밧줄을 가져 오기 전에 죽을 것이다.

눈을 한 움큼 쥐어서 팽팽하게 긴장된 이마를 누르고 있었더니 좀 나왔다. 정말 아프다기보다는 구르면서 충격을 받고, 굵힌 것뿐이었다. 해가 구름사이로 나와 소년의 등을 따스하게 비췄다. 마음이 진정되고 편안해졌다.

일어서서 팔과 다리를 조심스럽게 펴서 풀어주었다. 놀랍게도 멀쩡했다. 여기저기 멎든 곳을 문지르며 넓적한 바위 위에서 움직여보았다. 그리고는 절벽을 따라 떨어지는 자신을 상상하며 갑자기 살며시 웃었다. 카트란 아저씨가 산을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보다 빠르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카트란 아저씨가 말한 것이 이 뜻이었을까?

소년이 서 있던 그 바위는 상당히 넓었다. 바위의 테두리를 따라 깨끗한 눈 위로 영양 한마리가 낸 짧은 길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그런데 영양이 마치 공중으로 뛰어 올라가 버린 듯 발자국이 갑자기 끊겼다. 딜라는 살펴보러 갔다. 그 지점에 가봤더니 아래로 가파른 길이 구불구불하게 나 있었다. 영양은 결국 그 길을 따라 내려갔던 것이다. 몇 분 동안 딜라는 그 길이 안보일 때 까지 눈으로 길을 따라 내려가며 서 있었다. 길 끝 아래에는 이상한 안개가 골짜기를 메우고 있었다.

잠시 그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갑자기 몸을 돌리고는 목도리를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웁고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고는 영양이 발자국을 낸 길로 서둘러 움직였다.

밀리고 미끄러졌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발을 천천히 내딛었고, 서서 가기에 가파른 내리막에서는 몸을 쭉그러서 조심하 움직이며 비탈을 내려왔다. 한번은

뒤를 돌아 그가 왔던 길을 바라보았지만, 눈에 반사된 햇빛에 눈이 부셔서 얼굴을 돌렸다. 하지만 주변의 눈들이 서서히 사라졌다. 바위와 마른풀, 잡초가 알게 쌓인 눈을 뚫고 나왔다. 이제는 바위 사이와 간혹 보이는 움푹 패인 곳에만 눈이 두텁게 쌓여 있었다. 서둘러 걸은 지 한 시간이 채 안돼서 눈은 완전히 사라졌고, 좁고 거친 자갈길이 나왔다.

주변은 점점 어둡해졌다. 얼마나 오래 걸어 내려왔는지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해가 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아까 봤던 두터운 안개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이한 구름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흐릿한 푸른색과 황동, 구릿빛, 갈색, 회색과 연보라색, 고동색의 구름이 서서히 끓어오르고 회전하며, 여러 개의 빛줄처럼 꼬여서 웅덩이 속으로 사라지고는 분출되어 굵게 펼쳐진 기둥이 되었다. 달라는 위를 훑듯 보고서야 해와 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직은 안개가 산의 표면에 껴던 것만큼 짙거나 눈앞을 가릴 정도는 아니었다. 황혼 녘 폭풍우를 뚫고 걸어갈 때처럼 앞에 뭐가 있는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안개속이 점점 따뜻해져서 노나 아주머니에게 받은 망토를 벗으려고 걸음을 멈추었다. 주변에 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땅은 여전히 내리막이었지만 완만했다. 자갈길에서 부드러운 모랫길로 바뀌었다. 여기저기서 어렵פות이 보이는 있는 반들반들한 커다란 바위를 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들썩이는 작은 바람에 이동하고 소용돌이치는 안개는 짙어졌다가 이내 열어지고, 푸른빛이었다가 갈색으로 변했다. 가까이 있던 것이 갑자기 멀어지고, 멀리 있던 바위가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며 거리를 가늠하지 못하게 했다.

달라에게도 이런 풍경은 낯선 것이어서 망설여졌다. 어쩌면 웅고 아저씨와 식품창고, 따뜻한 케이크를 떠날 때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형체 없이 어두컴컴하고, 윤기 없는 색이 시시각각 변하며, 그림자도, 빛과 나무, 동물, 사람도 없는 이런 괴상한 곳과는 다른 쪽으로 나 있는 산길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되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다. 이제 와서, 왔던 길을 되짚어 산을 찾아 가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소년의 뒤에는 앞에 보이는 것과 똑같이 어둡하고 아무 표시도 없는 공간뿐이었다. 어쨌든 되돌아가는 것은 현명한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소년이 찾는 것이 뭐가 됐든 그것을 찾을 때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한다. 어쨌든 노나 아주머니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뻐다.

계속 걸었다. 땅이 평평해 졌고, 모래가 점점 더 많아졌다. 길이 난 흔적이 전혀 없었다. 먼지를 머금은 바람이 이리저리 불었다. 위를 봐도 해도 달도 구름도 별도 없었다. 계속 발을 헛디뎠다. 얇고, 뾰족한 가시로 덮인 식물 같은 괴상한 덩어리들을 지나갔다. 소년의 팔 길이와 비슷한 도마뱀이 앞으로 달려갔다.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몇 번 들렸고, 한번은 머리위에서 괴상하게 짹짹 거리는 새 소리도 들렸다. 이것들은 기묘하고, 무미건조하며 생소했지만 이들이 있어서 소년은 기분이 좀 나아졌다. 비록 도마뱀이지만 이 생명력 없는 불가사의한 세상에 살아있는 동지가 있다는 것은 혼자라는 생각보다 나았다.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이 말랐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계속 터벅터벅 걸었다. 이제 꽤 어두워져서, 밤이 된 것 같았다. 주변을 살펴보니 지난 몇 시간 동안 봤던 것과 똑같은 바위와 땅딸막한 식물과 모래 더미 밖에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같은 길을 돌고 있는지도 모른다. 안개사이로 겨우 얇은 막처럼 보이는 것이 푸른색에서 회색으로, 다시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어딜 봐도 똑같았다. 소년은 두려웠다.

무얼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서 계속 걸었다. 마침내 바위 세 개가 모여 있는, 뭔가 특별해 보이는 곳에 도착 했다. 거대하고 어두운 바위들이 서로 기대어 있었다. 이 바위를 보게 되어 감사했다. 이 전에 이것을 봤다면 분명 기억 했을 것이다. 가까이 다가갔고, 바위들이 어둠속에서 위협적이고 거대해 보였다. 소년은 조금 무서웠지만, 두려움을 뒤로하고 바위 사이로 들어갔다. 가운데에 바람을 피할 곳이 있었고, 안전하고 보호되는 느낌이 들었다. 서늘했지만 춥지는 않아서 모래에 누워 망토를 머리끝까지 끌어올려서 잤다.

잠에서 깬 소년은 벼랑에서 굴러 생긴 타박상이 쓰렸고, 배고프고 온몸이 빠근하고 목이 몹시 말랐다. 다시 어둠이 열어졌지만 아침인지, 낮인지 저녁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바위 무리에서 걸어 나왔는데,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걸 기억하느라 시간을 허비

하지 않았다. 대신에 어느 길이 됐든 출발했다. 그가 이동하는 한 어느 방향이든 중요하지 않았다. 이 으스스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있는 것은 차마 생각할 수가 없었다.

갈증이 점점 더해져서 혀가 입속에 있는 나무 막대기처럼 느껴졌다. 침을 삼키려고 하면 날카로운 기침만 나왔다. 어딘가 물이 있다. 샘이든 연못이든 우물이든, 소년은 짐승과 새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물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인생의 반은 물속에서 지낸, 절반은 물고기라고 할 수 있는 뱀목족 출신이 갈증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소년은 계속 걸었다. 목이 너무 건조해서 메웠다. 기묘하고 약한 바람이 사방에서 불며 소년의 몸속 수분을 빨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꿈쩍한 갈증 때문에 물을 찾고 있다는 것도 잊고, 바로 앞을 응시하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걸었다.

그 남자가 달라 바로 앞에 있지 않았더라면 소년은 그냥 스쳐지나갔을 것이다. 그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었으며 께매지 않은, 어깨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서 있었다. 손은 머리 위로 올렸고 엉겨 붙은 머리카락은 몸을 따라 흘러내렸다. 달라가 가까이가도 돌아보지도 않고, 머리를 젖힌 채 꿈쩍하지 않았다.

달라는 소리를 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목청이 너무 말라서 달라붙어버렸다. 그 남자에게로 한 발 더 다가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물!” 목청이 말라서 갈라지고 거슬리는 목소리로 겨우 소리를 냈다.

그 남자는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치 그를 성가시게 하던 덩굴을 따돌리는 것처럼 달라에게서 멀어졌다.

“물!” 쉼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남자가 들은 것 같았다. 머리를 당기고, 팔을 내리고는 눈을 뜨고 그의 옆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돌칼을 꺼냈다.

## 제 11 장

딜라는 무릎을 꿇었고, 목청에서는 킁킁거리는 소리와 바람 소리가 났다. 웬지 남자와 칼이 두렵지 않았다. 다만, 소년은 이미 죽어가고 있으니 찌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남자는 딜라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옆으로 걸어갔다. 딜라가 고개를 돌려 보니 그는 덩어리진 가시가 무성한 식물 쪽으로 다가가서 뭉툭한 가지의 끝을 잘라냈다. 절단면은 마치 양쪽 끝이 막혀있는 작은 물통처럼 보였다. 남자가 한쪽 끝을 칼로 찔러 입구를 만들고는 내밀면서 말했다. “자, 이거 마셔.”

딜라는 그걸 받아 입에 받쳤다. 입술 사이로 빠르게 흘러들어오는 액체는 묽고, 아무 맛도 없었다. 달지도, 짜지도, 시지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하지만 목을 축여주고 있으므로 특이하게 생긴 그 물 잔을 높이, 더 높이 들어 올리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빼내서 다 마셨다.

소년이 다 마시자, 남자가 소년에게서 그 식물을 받아 들고는 생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마실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네. 도번 나무 수액은 나눠 마시는 게 여기 풍습이야.”

“죄 죄송해요.” 소년이 말을 더듬었고, 그 와중에 목소리가 돌아온 걸 알고 기뻐했다. “몰랐어요. 다만 목이 너무 말라 죽을 지경이었어요.”

남자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칼로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껍질을 벗겨냈다. 딜라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다. 두 세군데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고 있었다. 갈증이 너무 심해서 상처가 났다는 걸 몰랐다.

남자가 도번나무 껍질을 벗겨내고는 속살을 한 조각 잘라내어 딜라에게 건네 주었다. “먹어.” 그가 말하고는 자기 것도 잘랐다. 먹어 보니 수액처럼 속살도 아무 맛이 없었다. 기묘하고, 즙이 많고 씹어보니 질겼다. 입 속에서 녹는 것 같더니 삼키는 느낌도 없이 목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배고픔을 달래주었으므로 먹고는, 남자를 쳐다봤다.

남자의 몸은 뼈에 갈색 가죽이 붙어 있는 게 다였다. 식량이 이것 밖에 없다면 그가 이렇게 비쩍 마른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둡고 주름진 얼굴에 눈은 커다랗고, 눈동자는 밝은 색이었고, 멍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

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환영도 두려움도 친절도 거절의 표시도 없었다. 아무것도. 딜라는 갑자기, 그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번나무의 속살을 다 먹자 그는 몸을 굽혀 벗긴 껍질을 주워서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서 나무 아래에 놓았다. 다시 팔을 머리위로 들고, 눈을 감고 서서는 머리를 뒤로 젖혔다. 마치 나무가 된 양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런 후에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알이 내는 소리만큼 희미하게 속삭이듯이 말했다. “당신이 도번나무인 것처럼 나도 도번 나무입니다. 당신이 변성하듯이 나도 변성합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당기고, 팔을 내리고 눈을 떠서 저 멀리로 걷기 시작했다. 딜라는 그를 따라 뛰었다. 소년은 이 세상에서 만난 유일한 인간을 놓칠까봐 두려웠다. 남자는 소년을 보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계속 걸었다. 남자는 급히 가는 것 같진 않았지만, 길고 가는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서 딜라가 계속 뒤쳐졌다. 소년은 남자를 따라 잡으려고 급히 걸었다. 근육이 아프고, 피곤해서 움직이는 것이 힘들었다. 게다가 남자는 얇은 옷 하나만 걸쳤지만 딜라는 여전히 레깅스에 셔츠를 입고 망토를 들고 있었다.

“좀 쉬면 안 돼요?” 소년이 물었다. 남자는 소년 근처를 바라보았다. “나는 피곤하지 않아. 네가 쉬고 싶을 때 쉬어.”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멈추고 당신이 계속 가면 나는 또 길을 잃을 거예요.” 딜라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 당신과 같이 가고 싶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는 동의했고, 쉬는 것에 대해 기쁘지도 불쾌하지도 않은 것 같았다. 그는 한쪽으로 돌아 딜라가 전 날 밤에 바람을 피해 들어가 잤던 곳과 같은 바위 세 개가 모여 있는 곳으로 약간 멀리 데리고 갔다. 딜라는 쉬지 않고 부는 바람과 모래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게 됐다는 생각에 조금 기뻐했다. 이 바위들이 그 바위들일까? 아니다. 어젯밤에 봤던 바위들은 더 크고 서로 더 가까이 기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신비롭고 속임수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누가 그럴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들은 바위 무리의 가운데로 들어갔고 딜라는 망토를 펼쳐서 앉았다. 남자는 한 가운데 서서 다시 얼굴을 하늘로 쳐들고 눈을 감고는 일종의 잠을 자거나 무아지경의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았다. 딜라는 즐겼다. 잠이 든 건 아니지

만, 거의 잠든 상태였다. 온 몸과 힘줄이 모래에 녹아 들어가는 듯 했고, 그 위에 똥똥 떠 있는 기분이었다. 소년은 그렇게 한참을 누워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눈을 떴을 때, 피로가 풀렸고 움직일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 일어섰다. 그런데 남자가 보이지 않았다. 딜라가 버려졌다고 결론을 내리려던 순간에 남자가 바위 뒤에서 들어와서는 딜라가 자기 물건들을 주워들고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을 보았다.

둥글게 모여 있는 그 바위를 떠날 때 남자는 서서 얼굴을 바위 쪽으로 돌렸다. 딜라는 기묘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감사의식을 하며 서 있는 남자를 끈기 있게 기다렸다. 마침내 남자는 그만의 방식대로 속삭였다. “당신이 바위인 것처럼 나도 바위입니다. 당신이 인내 하듯이 나도 인내합니다.”

그들은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딜라는 저 멀리에 마치 작은 산 같은 것을 보았다. 하지만 가까워지면서 그건 큰 원형으로 모여 있는 바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반들반들한 바위들이 대략 25개는 되는 것 같았다. 상당히 높고, 가까이 모여 있었다. 딜라와 남자는 그들 중 가장 커다란 바위 두 개 사이로 살며시 들어갔다.

둥글게 모여 있는 바위 안에는 그것 보다는 약간 작은 바위들 몇 개와 특이하게 생긴 도번나무 세 네 그루와 몇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딜라가 따라 다녔던 남자와 비슷했다. 비쩍 말랐고, 갈색 피부에 가죽 밖에 남아 있지 않았고, 흐리멍덩한 눈에 머리카락은 엉겨 붙어 있었다. 그들은 지금 들어온 이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던 것만 계속했다. 책상다리를 하고 모래 바닥에 앉아 있거나 허공을 응시했다.

소년과 그 무미건조한 남자도 바닥에 앉았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에 딜라도 허공을 바라보았다. 걱정스러웠고 혼란스러웠다.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머지않아 소년은 쉴 때 느꼈던 자는 것도, 깨어 있는 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에 빠져들었다.

더 많은 수의 무미건조한 사람들이 바위 피난처로 들어왔다는 것을 어렵듯이 느꼈다. 그들 중 한사람은 딜라 옆에서 잘린 도번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마시면서 있었다. 그것이 불쑥 딜라에게로 향했고, 목소리가 들렸다. “마셔요.”

여자 목소리였다. 목소리 톤이 높고, 감미로웠지만 그 남자 이상의 따뜻함이나

관심은 담겨있지 않았다. 소년은 또 갈증이 나서 물을 받아 들었고, 마신 후 도  
번나무 속살도 나누어 먹었다. “고맙습니다.” 소년이 다 먹고 말했다. 그녀가 커  
다랗고 창백한 눈으로 소년을 무관심하게 바라보고는 가까이 있는 도번나무로  
다가가서 그 남자가 했던 의식을 반복했다.

빛이 서서히 사라져갔다. 하지만 완전히 환한 적이 없는 것처럼 지금은 완전히  
어둡지도 않았다. 완전히 고요한 순간도, 시끌벅적한 순간도 없는 것처럼 모래에  
바람이 스치며 내는 소리가 들렸다. 소년은 자는 것 외에 할 게 아무것도 떠오르  
지 않았다.

아직 어두웠을 때 그 남자가 일어나서 걸어 나갔고 소년은 바로 느꼈다. 일어나  
서 남자를 따라 잡기위해 어둠속에서 서둘러 걸었다. 하지만 소년이 앞서 걸어가  
던 그 사람을 따라 잡은 순간 이 사람이 어제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맞는지 확  
신할 수 가없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신에게 물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  
고,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 하지 않는다. 이들을 ‘비인격체’라 부르면 맞을 것 같  
다.

남자의 다리에 길고 구부러진 상처가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어제 만났던 그  
무미건조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왠지 위안이 됐고 안심이 됐다.

“이름 있으세요? 잠시 후에 딜라가 물어봤다.

“이름? 이름이 뭔데?” 무미건조한 남자가 물었다.

“사람들이 당신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소년이 설명했다. “사람들은 다른 사  
람이 부를 때 사용하는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난 아무도 부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부르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야.” 남자가 대답했다.

“저는 당신을 부르고 싶었어요.” 딜라가 꼬집었다.

“왜?” 남자가 물었다. 딜라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계속 걸었다. 하늘이 점점 밝아 졌고 갑자기 남자가 서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팔을 들어 올리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가만히 서 있었다. 소년은 그  
옆에서 기다렸다. 마지막으로 남자는 그의 기도를 읊었다. “당신이 빛인 것처럼  
나도 빛 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소멸하는 것처럼 나도 성장하고, 변

화하며 소멸합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눕고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옆드렸다. 딜라는 또 기다렸고, 남자는 일어서서 속삭였다. “당신이 흠인 것처럼 나도 흠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되듯이 당신도 모든 것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내가 되고 나도 모든 것이 됩니다.”

일어나서 두 세 걸음 가볍고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는 상당히 명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바람! 모래!” 네 방향으로 빠르게 돌며, 말과 빠른 걸음을 반복했다.

그 후에 남자는 마치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사람처럼 꾸준히 계속 걸었다. 소년은 몇 걸음 뒤에서 그를 따랐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딜라가 들었던 현자일거다. 이들은 매우 작은 것에 만족하며, 아무것도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고, 심지어 모래와 바람과도 평화롭게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이 딜라의 질문에 답해줄 수 있으리라.

며칠 동안 딜라와 무미건조한 남자는 모래밭을 헤매고 다녔다. 그들은 가끔씩 멈추었고, 남자는 오래도록 허공을 똑바로 응시하거나 얼굴을 구름으로 향해 앉아 있곤 했다. 그 동안에 딜라는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돌아다니다가 멈추어서 기다리는 동안 소년은 수면 상태 또는 특이한 졸음 상태로 빠져들었다.

딜라도 이곳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항상 살아온 것처럼 느껴졌다. 걸어 다니다가 도번나무 속살과 수액을 마시고, 앉아서 색깔이 있는 안개가 안팎으로 움직이고 빙빙 돌며 소용돌이 치고 방향을 바꾸고, 변하며 희미해지고 밝아지는 것을 일종의 황홀감에 사로잡혀 공허의 상태로 빠져들 때까지 바라보았다.

이제는 뗏목 생활이나 아빠와 할아버지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 곳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고, 또한 이런 식으로 계속 살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언젠가 한번은 걷는데 딜라가 갑자기 노나 아주머니에게서 받은 망토와 레깅스와 모자, 그리고 왕고 아저씨의 밝은 색 목도리까지 아직도 들고 다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년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멈춰 섰을 때 마다 자기 물건들을 조심스레 옆에 두었고, 출발할 때 다시 그 짐을 들었다. 딜라는 그것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짐을 계속 갖고 다녀야 하나?

갑자기 무미건조한 남자에게로 몸을 돌렸다. “당신이 현자예요?” 소년이 물었

다.

“현자?” 남자가 반복했다. “세상에 누가 똑똑하다고 할 수 있지? 현자는 존재하지 않아.”

“내 질문에 답해 줄 수 있어요?” 소년이 계속했다.

“모든 질문은 하나야.” 남자가 말했다. “모든 답도 하나고. 바람과 모래는 질문도 없고 대답도 듣지 않아.”

“내가 바람 이에요? 내가 모래 예요?” 딜라가 이상한 듯 묻자, 무미건조한 남자의 눈 속에 뭔가 불편한 기색이 보였다.

“모든 것은 하나야.” 그가 말했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닐 때, 모든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해요.” 딜라가 말했다. 그리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왜 우리 종족은 뗏목 생활을 하고 있죠? 그들은 같은 곳을 빙글빙글 돌고 있나요? 더 나은 곳은 어디에 있고, 그들은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무미건조한 남자는 오랫동안 소년을 응시했다.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그가 물었다. “모든 장소는 한 장소야. 바람과 모래는 질문도 없고 대답도 듣지 않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계속 걸었다. 그날 밤 딜라는 평소보다 더 깊은 잠에 빠졌고, 꿈을 꿴다. 꿈속에서 노나 아주머니네 집으로 돌아갔다. 집 주변의 초록빛 초원이 보였고, 과일이 달린 나무가 집 옆에 있었다. 도나가 문간에 둔 버섯 바구니를 암탉들이 뒤집어서 먹어 치워 도나가 화내는 소리가 들렸고, 딸이 투덜거리는 소리에 웃는 노나 아주머니의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는 않고, 목소리만 들렸다. 소년은 갑자기 도나가 너무 보고 싶어졌고, 호박들 사이로 또 같이 걷고 싶었다.

딜라가 깰 때 여기저기로 부드럽게 불던 바람은 그쳐 있었다. 이 황야로 온 이래 처음으로 바람이 한 쪽 방향으로만 꾸준히 불었다. 모래알이 얼굴에 부딪혀 따끔거렸고, 갑자기 툭 쏘는 신선하고 얼얼한 향기가 공간을 채웠다.

무미건조한 남자는 사라졌다.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딜라는 망토와 물건들을 챙겼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돌아 모래밭을 가로질러 출발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웠으므로 이제 그 남자가 필요하지 않았다. 틀림없이 어느 도번나무 앞이나 둥그렇게 바위가 모여 있는 곳에서 또 만날

것이다.

걸다가 갑자기 멈추었다. 강하게 꾸준히 부는 바람을 등으로 맞으며, 달라는 잠시 동안 꼼짝도 않고 섰다. 그리고는 뒤로 돌아서 빠르게 걸었다. 툭 쏘는 냄새를 머금고 그게 어디서 불어오든 간에 그 곳을 향해 가능한 한 빨리 걸었다.

## 제 12 장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채색된 안개는 얇어지고 풀린 리본 모양을 하고 저 멀리로 흘러갔다. 달라는 앞에 보이는 비교적 깨끗하고 밝은 하늘이 무엇 인지 알고 싶어 그 곳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얼굴로 헝클어져서 낮게 펼쳐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기묘한 색의 사막을 지나, 소년이 지금 향하고 있는 시골이 흰 모래와 햇볕에 그을린 누런 풀, 희미한 푸른 하늘 때문에 허옇게 표백된 듯 흐릿했다. 소년에게 이런 광경은 여전히 황홀했고, 계속 달렸다. 앞에 있는 모래 언덕들이 매우 선명하게 보였고, 거리를 정확히 가능할 수 있었으며, 지평선이 안정적으로 보여 놀라웠다.

키가 큰 깃털모양의 풀이 여기저기 모여서 자라고 있었다. 토끼 한 마리가 그 풀이 자라는 한 쪽 무더기에서 다른 무더기로 깡충 뛰는 바람에 달라가 놀라서 옷 꾸러미를 떨어뜨려 달리는 걸 잠시 멈춰야 했다. 부리가 붉고 흰색과 검정색 깃털이 섞인 새와 발이 노랗고 흰색과 회색 깃털이 섞인 새들이 반복되는 날카로운 소리로 서로를 부르며 소년의 머리위에서 날았다. 다리가 여럿 달려있고 등이 푸른 작은 생물체들이 옆으로 종종 걸음 치며 소년 앞으로 지나갔지만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달리고, 달려서 마침내 모래언덕에 다다랐고, 언덕 꼭대기에 올라보니 파도치는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바다를 본 게 처음은 아니었다. 두 번, 도나와 함께 집 뒷산에 청포도처럼 푸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다. 크림색의 기다란 주름 같은 파도가 해안으로 굽실거리며 다가오고, 수면 바로 아래의 신비롭고 깊은 그림자가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는 바다가 어떤 건지는 몰랐다. 미끄러지고, 이동하는 모래 더미를 향해 달려 내려갔고 해변으로 나아갔다. 초록빛 물이 높이, 높이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높이에서 특하고 떨어지며 소년을 향해 다가왔다. 바닷물은 파도의 정점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포효하다가, 폭삭 무너지고 추락하며 두드려 해변을 흔들었다. 파도의 마지막 호흡인 힘없는 거품이 모래에서 쉬익 소리를 냈고 달라의 발이 있는 쪽에서 사그라지며 그 숨이 끊어졌다. 소년은 큰 소리와 신선하고 강한 바다 냄새와 울고 있는 새와 바람에 정신이 아찔해

저서 뛰어오르고 팔을 흔들며 흥분 속에서 위로 아래로 달렸다.

물을 튀기고 발로 차며 바다 속으로 달려 들어갔다. 물보라가 얼굴로 튀어 올랐다. 혀를 내밀어 입술에 튄 걸 핥아먹어보고는 짹짹한 맛에 깜짝 놀랐다. 오랫동안 맛있는 수액과 아무 맛도 없는 도번나무 속살 외에는 입에 넣어 본 게 없어서 그 특 쓰는 맛에 적잖이 놀랐다. 손으로 물을 조금 떠서 조심스레 흘쩍거렸다. 뗏목생활을 할 때 마셨던 물에서 종종 희미한 짹 맛을 느꼈었다. 뗏목 쪽이 바다근처를 지날 때 바닷물이 어떤 식이론가 강으로 흘러 들어왔을 거라고 소년은 혼잣말했다. 그 씹쓸하고 특 쓰는 맛은 그가 지금 무언가를 찾고 있는 여정 중에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했다. 물을 헤치며 해안으로 돌아가서 꾸러미를 집어 들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섰다.

어쩌면 잠깐 동안은 바다 옆에서 지내고 싶기도 했다. 바다는 아름다웠고, 소년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가 그 광경과 소리에 대단히 기뻐했다. 방법을 안다면 이곳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지도 모른다. 하지만 방법을 모른다. 심지어 여기서는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는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과일나무도, 샘물도, 풍성한 식량 저장고도, 심지어 도번나무조차 없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기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소년의 질문에 답해줄 현자도 없다. 그렇다면 계속 이동해야 한다.

힘 없는 파도의 공격에 축축하고 단단하게 다져진 모래를 걸으며 해안을 따라 다시 여정을 시작했다. 가끔 조개가 보여서 집어 들고 하나씩 세심히 관찰했다. 한번은 저 앞에 사람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다가가보니 머리에 깃털이 달리고 다리가 길쭉한 큰 회색 새였다. 새는 얇은 물에 서서 소년이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았다.

아직도 사람이 사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내륙을 향해 방향을 틀고, 모래언덕을 다시 올랐다. 한 시간 쯤 걸어서 덩불이 많은 숲에 들어왔고, 그 후에 가로지르는 오솔길이 희미하게 나있는 들판이 나왔다.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그 좁은 길은 점점 넓어 졌고, 세월의 흔적이 보였으며 결국 큰 길이 되었다. 노나 아주머니네 종족이 가끔씩 암양과 어린양들이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두어 둘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이 그 길을 따라 나무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울타리 안에는 풀을 뜯는 짐승이 없었다. 대신에 어린 초록색 풀이 이상하

게 열을 맞추어 자라고 있었다.

딜라는 어리둥절했다. 누군가가 저 식물을 저런 식으로 심어둔거다. 콩은 자기 대로 길게 열을 맞추어 자라지 않는다. 하지만 무슨 이유로? 울타리는 또 왜 찢을까? 콩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산비탈로 달려가지도 않는데? 혹시, 콩이 그러기도 하는 건가? 소년은 울타리 너머로 몸을 구부려서 불안한 눈으로 콩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다른 식물들처럼 이들도 땅에 단단히 박혀있는 듯 했다.

더 깊은 숲으로 들어왔다. 딜라 눈에 이 땅은 ‘호랑이에 맞서는 민족’이 사는 곳과는 달라보였다. 산비탈은 가파르고 흙은 알뜰하게 깔려있고 돌투성이에 등성 등성 자라는 나무들은 작고 구부러져 있었다. 흔하게 보이던 우거진 초원도, 열매가 달린 덩굴이나 덩굴도, 끼니를 때울 버섯이나 견과류, 산열매도 없었다.

하지만 여기는 여기대로 아름다웠다. 새로 돋은 녹색 잎이 빼만 남은 나무에 레이스처럼 걸려 있고, 붉은빛 또는 황금빛, 분홍빛이 감도는 덩굴이 흩어져 있었다. 조그마한 노란색과 파란색의 꽃무리가 바위틈에서 자라고 있었다. 척박한 땅에서 용감하게 튀어나와 죽은 낙엽과 돌투성이, 부러진 나뭇가지에 둘러싸여 자라고 있는 꽃들이 딜라에게는 더 사랑스럽고 섬세해보였다. 소년은 멈춰서 무릎을 꿇고 여린 꽃잎들 가운데에 자리 잡은 밝게 빛나는 황금별을 바라보았다.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은 다시 아래로 향했다. 샘이 있어서 달콤하고 신선한 물을 마셨다. 배가 매우 고파졌지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 머지않아 열 맞춰 자라고 있는 초록색 식물을 가두고 있는 울타리가 더 많은 곳으로 오게 되었고, 한 남자가 그 우리 중 하나에서 자루가 달린 길쭉한 연장으로 땅을 내리치고 있었다. 천천히 그 옆을 지나갔지만 남자는 소년을 보지 않았다. 집 한 채를 지나고, 또 다른 집도 지났다. 그 집 앞에서 한 여자가 양동이를 놓고 옷을 빨고 있었다. 여자가 소년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고, 소년도 손을 흔들어 답례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정말 부탁하고 싶었지만 두려웠다.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태양이 머리 바로 위에서 내리쬐었다. 밭과 집을 더 많이 지나왔고, 소년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응시하거나 말없이 웃어주는 몇 사람도 스쳤다.

마침내 소년은 길가에 앉아서 가족 부대에서 빵과 치즈를 꺼내 먹는 남자를 발견했다. 딜라가 걸음을 멈추고 서 있자, 남자는 활짝 웃으며 빵과 치즈를 조금

내 주었다. “이거 받아. 배고픈가 보구나.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으니까 환영이지.” 남자가 말했다.

딜라는 고마워하며 음식을 받았고 빵을 입에 쑤서 넣었다. 배가 너무 고파 빵을 삼키는데 숨이 막힐 뻔 했고, 아무 맛도 없는 도번나무 속살 말고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도 빵 맛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했다.

“이곳에 처음 왔네.” 남자가 단정 지어 말했고, 딜라는 고개만 끄덕였다.

남자도 끄덕이고는 말했다. “만약 행운을 찾아서 이곳에 왔다면, 잘못 찾아 온 거야. 이곳에서는 근면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행운이지. 그래서 여긴 부자가 없어.” 그리고는 웃었다. “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먹고, 손님에게 나누어 줄 만큼은 있어. 이정도면 충분히 부유한 거지.”

딜라는 음식을 씹고, 삼킨 후 말했다. “행운을 좇아 온 게 아니 예요. 제가 가진 질문의 답을 구하러 왔어요.”

남자는 가죽 부대에서 마지막 치즈 조각을 꺼내어 반으로 나눈 후 딜라에게 절반을 내 주었다. 그리고는 부대를 접고 셔츠 안쪽으로 대충 집어넣었다. “답을 찾기 바란다.” 딜라에게 말했다. “질문이라는 것은 여름날 오후에 사람을 무는 파리처럼 성가실 수 있어. 하지만 때로는 답도 성가시지. 행운을 빈다. 나는 이제 일하러 가야겠어.” 남자는 울타리를 넘어 열 지어 새로 돌아나고 있는 식물 사이를 터벅터벅 걸어갔다.

“음식, 감사합니다.” 딜라가 부르자 남자가 듣고 앞을 향한 채 손만 올렸다.

이곳에 발을 들여 먼 길을 걸어온 후 처음으로 길이 갈렸다. 길 하나는 울타리와 농장을 지나는 아래로 향한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눈에 띄는 게 없는 위로 가파르게 난 길이였다. 소년은 망설였다. 집과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태양이 뜨거웠다. 위로 난 길이 시원한 나무와 회색 바위 사이로 휘어 있었고, 왠지 모험심을 자극하고 마음을 끌었다.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 오르기 시작했다.

길이 험해지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길이 가팔랐고 오르기 어려웠다. 이 길에는 그에게 음식을 주거나, 하루 밤 재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 스스로 위로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

디로 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오르막이 끝나고 길이 평평해 졌다. 곧 해가 질 것이다. 딜라는 이 숲에 안전하게 하룻밤을 보낼 곳이 있는지 살폈다. 소년의 시야 내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가 걸어온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었고, 울타리도, 열 맞춰 자라는 어린 감자를 심어놓은 정돈된 밭도 보이지 않았다. 망토를 덮고 땅바닥에서 자야한다면 뭐 별 수 없다. 익숙하기도 하고. 산 속에서 호랑이들 틈에서도 다치지 않고 잘 자지 않았는가.

아직 햇빛이 조금 남아 있었기에, 소년은 사방이 뺨 뚫린 이 숲보다 좀 더 나은 장소를 찾기를 바라며 터덜터덜 걸었다. 그때 나무숲 사이로 불빛이 보였다. 작은 장작불에서 흘러나오는 빛이었다. 소년은 조심스럽게 불빛을 향해 걸었다. 마침내 통나무에 앉아 몸을 숙여 불을 피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딜라는 망설이며 서 있었다. 그 남자는 가만히 앉아있었다. 불 건너편에 짐승 몇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 남자 뒤편으로 딜라의 어두운 형체가 서성었다.

갑자기 남자가 조금히 외쳤다. “들어와, 들어와. 앉아, 앉아. 어두운데 서 있으니 말고! 어서 들어오렴.”

처음에는 짐승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머리를 돌려 딜라를 보며 다시 말했다. “들어와서 앉아!”

소년은 천천히 불가로 다가갔다. 남자는 한 번 더 옆에 있는 통나무로 눈길을 돌려 거기에 앉으라는 뜻으로 툭툭 쳤다. “곧 준비가 될 거야.”

소년은 잠시 기다렸다가 소심하게 물었다. “뭐가 준비되는 돼요?”

“수프, 수프!” 짜증내듯 외쳤다. “수프가 준비될 거라고!”

“아.” 딜라가 말했다. 불에는 삼발이 위에 올라간 냄비가 하나 있었다. 그 안에 수프가 끓고 있음에 틀림없다. 소년은 그걸 배고픈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옆에 앉아 있는 남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남자는 노인이었다. 소년의 할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아마 아빠나 윙고 아저씨 보다는 나이가 많을 것이다. 좀 지저분했고 께죄죄해 보였다. 코가 휘었고, 턱수염이 덩성덩성 나 있으며, 한 쪽 눈썹 위로는 상처가 나 있는 못생긴 얼굴이었다.

노인은 머리를 돌려 딜라를 응시했고, 소년은 급히 시선을 돌렸다. 당황스러워서, 덩불을 물어 뜯어내는 뿔이 달린 작은 짐승에게 턱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저건 영양 인가요?”

“염소야, 염소.” 노인이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염소일 뿐이야. 멍청한 동물이지.” 염소들은 장난기 가득한 누런 눈을 다른 염소를 향해 굴리고는 부드럽게 활짝 웃었다.

노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오두막 문으로 걸어갔다. 안으로 들어가더니 몇 분 뒤에 그릇 두 개와 진한 색의 빵 한 덩어리를 들고 나왔다. 냄비에서 수프를 덜어 그릇을 채우고 딜라에게 건넸다.

수프는 웅고 아저씨가 끓인 것처럼 진하고, 걸쭉하거나 맛이 좋지는 않았지만, 뜨끈했고 빈속을 채워주었다. 빵과 함께 먹으니 든든한 식사가 되었다. 다 먹은 후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 고맙다고 말하고는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일어섰다.

“앉아, 앉아.” 또 뿌루통하게 명령하듯 말했다. “이제 어두워졌어. 이 한밤중에 어디를 가려고? 앉아서 조용히 있어. 그리고 개가 돌아오면 우리는 자는 거야.”

“누가 언제 오는 데요?” 소년은 명령을 받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아서 여전히 선채로 물었다.

“우리 별종 염소 말이야, 별종 염소.” 노인이 말했다. “늑대한테 잡아먹히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저 숲에 있을 거야. 음, 개는 내가 자기가 늑대한테 잡아먹혔다고 생각해주기를 바래. 내가 울고 매우 미안해 할 거라 생각하지. 그러면 그때 우스꽝스러운 머리통을 들이밀면서 웃으며 돌아오겠다는 게 별종 염소의 계획이야.” 노인은 불에다 침을 뱉었다. “언젠가 정말로 늑대한테 잡아먹힐 거야. 그날은 후회하겠지.” 딜라 쪽으로 기대더니 속삭였다. “저기 덩불속에서 개가 듣고 있어. 흰 점이 보이거든.” 그리고는 마치 염소처럼 활짝 웃었다.

“내 이름은 비건이야.” 그가 갑자기 말했다. “세 마리의 염소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했던 시간에 이 염소가 살아온 4년을 더한 시간 동안 여기저기에서 살아왔어.”

“난 딜라예요.” 말하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저는 어디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노인이 웃었다. “오래 살지는 않았어. 내가 알아.” 남자 뒤에 있는 덩불에서 바

스락 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는 애정 가득한 미소를 보였다. “내 별종 염소가 오고 있어.” 부드럽게 말했다.

그 염소는 불가를 지나 오두막으로 천천히 걸었다. 가는 굵으로 자랑스럽고 매우 우아하게 걸었지만, 뿔과 턱수염은 사나워 보였다. 딜라는 이런 동물을 잡아 먹으려면 늑대가 아주 커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으!” 노인이 외쳤다. “멍청한 염소!” 그는 별떡 일어서서 다른 염소들과 함께 집 뒤에 있는 울타리가 쳐진 작은 곳으로 모두 몰아넣고는 빗장을 질렀다.

“이제 여기로 와, 여기로 와.” 딜라를 재촉했다. “잘 시간이 지났어.”

작은 오두막은 어두웠다. 난로의 석탄이 벌개졌지만, 노인은 초를 켜지 않고, 불을 뒤섞지도 않았다. 바닥에 담요를 펼쳐주고 딜라에게 누우라고 재촉했다. 소년은 누워서 석탄이 빛을 잃어가는 걸 보았다. 노인이 침대로 올라가는 소리, 염소들이 발을 구르는 소리와 밤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잠깐 감은 것 같은데, 다시 떠보니 아침이었다. 열려 있는 문과 창문을 통해 희미한 햇빛이 들어왔다. 노인이 난로 옆에서 무릎을 꿇고 불을 되살리고 있는 게 보였다.

노인이 공기를 불고, 불을 살살 달래니 불길이 솟아올랐고, 작은 방이 환해졌다. 노인은 몸을 돌려 소년을 짚 요위에 있는 내려다보고는 놀라움에 숨을 헐떡였다. “세상에나! 너 그 종족이잖아!” 그가 외쳤다. “그 종족이야! 지난 30년간 이 길에 이 종족은 한명도 오지 않았어!”

## 제 13 장

“‘그 종족’이라뇨?” 딜라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느 종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뗏목 족.” 노인이 급히 말했다. “당연히 뗏목 족 이지. 너도 뗏목 족 이잖아, 그렇지 않니?”

“어떻게 아셨어요?” 딜라가 외쳤다.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종족에 대해 무엇을 아세요?”

“충분히, 지나칠 정도로 많이 알지.” 짧게 말했다. “네가 먹을 것을 남겨뒀어. 먹으렴. 난 염소를 돌보러 가야해. 염소들이 늑대를 찾으러 밖에 나가고 싶어 안달이 났거든.”

“잠깐만요, 잠깐만요.” 딜라가 애원했지만, 노인은 듣지 못한 것처럼 나가버렸다. 소년은 요에서 벌떡 일어나서 따라 나갔다. 하지만 순간, 소년은 일단 뭘 좀 먹어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날은 징조가 매우 불길했다. 한 시간 안에 다시 길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먹어야 할 것 같았다.

식사는 꿀로 단맛을 낸 끓인 곡물 같은 것과 염소젖 한 그릇이었다. 맛이 어떨든 생소한 음식을 먹는 데 익숙해져서 이런 음식도 잘 먹을 수 있었지만, 다만 너무 흥분되어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꾸역꾸역 그릇을 비웠다. 방 한 칸과 별채가 붙어 있는 노나 아주머니네 집과 비슷한 오두막을 한번 훑어보았다. 하지만 불빛이 없고 바람도 잘 통하지 않았고, 깨끗하고 정돈된 곳이라곤 없었다. 모든 물건이 먼지투성이에 여기 저기 쌓여 있었다.

식사를 끝내고 꾸러미를 챙겨서 밖으로 나갔다. 노인이 한 손으로 염소 우리의 문을 닫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별종 염소의 뿔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나머지 염소들은 장난스런 표정으로 서 있었다. 소년이 도와주러 갔다. “할아버지가 현자인가요?” 노인이 빗장을 밀쳐 놓고 있을 때 물었다.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분야에서 현자지.” 그가 대답했다. “나는 염소에 대해 잘 알아. 특히 별종 염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그리고는 별종 염소의 뿔을 잡은 채 나무 사이로 걸어가 버렸다. 나머지 염소들은 그 뒤를 따랐다.

소년도 달려서 그들을 쫓았다. 오르막이 나오자 멈춰고, 뒤에는 숲이 있고, 앞

에는 덩불이 우거진 목초지 같은 곳에 다다랐다. 딜라는 더 이상 정적을 참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 현자예요?” 그가 반복해 물었다.

노인은 식물 줄기를 잠깐 씹더니 말했다. “그 질문이 만약 내가 오랫동안 뭔가를 많이 배우고, 그것에 대해 곱씹어 본 늙은이냐는 뜻이라면, 그래, 난 현자야. 또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라면, 그에 대해서도 그래. 현자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만약에 그 말이 그것을 해야 할지 말지를 아는지,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난 현자가 아니야. 아, 내가 알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런 질문에 답을 주려고 애쓰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짓이야. 지혜는 물과 같아서, 어느 지점에서는 땅속으로 흘러가지. 그리고 네가 물을 원할 때는 스스로 땅을 파야해.”

노인은 식물 줄기를 좀 더 씹다가 생각에 잠겨 덧붙였다. “물론, 너에게 이유를 말해 줄 수도 있어. 만약, 알려줘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면 많은 걸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

딜라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가 알고 싶은 게 바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였다. 그들은 계속 걸어서 풀이 비교적 균일하고, 덩불과 바위가 덜한 지점에 도착했다. 여기에 노인이 멈추자 별종 염소는 그에게서 달아나서 산비탈 아래로 달려갔다. “너 다보여.” 염소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무슨 꿍꿍이인지 다 보인다고. 네가 하는 짓을 내가 모를 줄 알고?” 덩불에 침을 뱉고는 바위에 앉아서 침울하게 말했다. “또 도망가겠군. 개가 뭘 하려는 건지 다 안다고 거짓말을 했어. 늑대가 이제 개를 잡아먹을 거야.”

딜라는 별종 염소 때문에 짜증이 났다. “뗏목 족에 대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애원했다.

“네가 나에게 해줘야지.” 노인이 답했다. “누군가 뗏목 족에 대해 안다면, 그건 바로 너겠지.”

딜라에겐 그게 이상했다. 비건 할아버지가 알아야 하는 거였다. 게다가 딜라는 모른다. 뗏목 생활이 소년의 모든 것이었던 때가 있었고, 그는 뗏목 행렬의 한쪽 끝에서 다른 한 쪽 끝까지 수천 번을 오갔다. 동굴을 떠나와서는 뗏목 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뗏목들은 왜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소년이 고집스레 물었다. “같은 자리를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곳’이 존재하는 거예요? 말 좀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뗏목생활을 했다는 것도 할아버지는 알았잖아요. 우리 종족 중에 이 길을 왔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었지.” 노인이 인정했다. “이 길을 왔던 이도 있었고.”

힘준한 바위투성이 산비탈을 바라보고 앉아서는 생각에 빠졌다. 커다란 새 두 마리가 마치 밝은 아침 하늘의 상승 기류를 탄 듯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가끔씩 아래로 떨어질 듯 절벽을 따라 날아올랐다.

“저 독수리들이 보이니?” 노인이 갑자기 물었다. “저 절벽 위에 새 둥지가 있어. 암독수리가 정오에 그 둥지에 알을 낳지. 절벽에 올라서 알을 깨뜨리지 않고 가져온다면 너의 종족에 대해 뭔가 알게 될 거야.”

“어떻게요?” 소년이 외쳤다. “내가 어떻게 알게 되는 데요? 알 속에 뭐가 있나요? 마법인가요? 우리 종족이 마법에 걸린 거예요? 내가 그 마술을 깨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질문하지 마라.” 노인이 대답했다. “독수리 알을 갖고 와. 내가 해 줄 수 있는 말은 이게 다야.”

딜라는 바위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 물건은 갖고 가라.” 노인이 뿌루통하게 말했다. “네가 만약 산에서 떨어져 죽는다면, 그 꾸러미 때문에 신경 쓰고 싶지 않구나.” 소년에게 꾸러미를 내밀었다.

그는 꾸러미를 받아 들었다. “저긴 어떻게 가요?” 소년이 물었다. 노인이 손가락으로 한 쪽을 가리켰다. “저 길을 따라가. 가다보면 절벽 밑이 나올 거야. 절벽은 네가 알아서 올라가고.”

딜라는 노인의 무뚝뚝한 태도에 화가 났다. 자기 꾸러미를 들고 노인이 가리킨 길을 향해 출발했다. “만약에 둥지에 알이 두 개 이상 있으면, 손을 대봐서 제일 따듯한 걸로 갖고 와라. 그게 신선한 알이야. 제일 신선한 알로 갖고 와야해.” 노인이 뒤에서 외쳤다.

“잘 알겠어요.” 소년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소리쳤다. 속으로 별종 염소가 도망가 버렸으면 했다.

머지않아 울창한 상록수림에 도착했다. 새들이 쏜살같이 날아 다녔고 가지 사이에서 노래했다. 상록수의 짙은 냄새가 햇볕을 받아 퍼졌다. 특이하게 생긴 여러한 꽃이 침엽수 낙엽을 비집고 피어 있었다. 힘든 여정을 계속 하고 있고, 독수리 알을 찾는 게 급했지만 소년은 멈춰서 그 향기로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새 소리를 듣고 바람에 흔들리는 꽃을 자세히 보았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컴컴한 동굴 생활을 하던 때가 생각났다. 아빠와 비마, 할아버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바깥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얼마나 기쁘고, 경이로운지 알지 못한 채 아직도 동굴에 있다.

소년은 자신이 뗏목 족의 마법을 풀어 이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 낼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몸이 떨렸다. 이런 임무를 맡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다. 하필이면 왜 달라가, 남들보다 더 강하거나 용감하거나 낫거나 똑똑하지도 않은 그가 선택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쨌든 그가 선택되었다.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다. 비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고, 소년의 마음속에서 진실을 찾고, 그에게 맡겨진 일은 뭐든 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져 갔다.

숲 사이로 나 있는 길을 그 너머 오르막으로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그 길이 끝나는 곳에서 소년은 깨달았다. 그가 맡은 임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임을. 높은 절벽을 보자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독수리 동지까지 오르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 발가벗은 바위벽을 수직으로 올라야 한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호랑이산에서 웅고 아저씨의 동굴까지 오르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았다.

앉아서 벼랑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꼭대기까지 바위 틈새와 나무뿌리, 가지 등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디딜 만한 것들이 보였다. 쉽지 않을 것이고, 어렵고 위험할 거다. 떨어지면 거의 죽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할 게 없다. 그렇다면 노력은 해봐야 한다. 이런 것이었다.

꾸러미를 풀어서 멍들고 굵기지 않도록 레깅스를 꺼내어 입었다. 모자도 쓰고 목도리는 허리에 묶어서 가지나 바위에 끝이 걸리지 않도록 단단히 말아 넣었다. 망토는 바닥에 펼쳐 두었다. 만약 절벽을 오르다 떨어진다면, 누군가 그 망토로 그의 몸을 덮어 줄 것이다. 노나 아주머니는 그 망토가 필요한 사람에게 계속 쓰

이길 바랄 것이다.

그리고는 절벽을 향했다. 절벽의 발치를 따라 걷는 동안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거의 포기했다. 절벽에서 튀어나온 넓적한 바위가 소년의 머리위에 있었는데 그 곳으로 올라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한참 있다가 위쪽 어딘가에서 굴러 떨어진 돌 두 개를 가져다가 계단을 만들었다. 손으로 잡을 곳을 발견하고는 절벽에서 튀어나온 넓적한 바위로 올라가려고 애 썼다.

올라간 다음 잠깐 동안은 수월했다. 어디를 잡고,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할지와 어디로 가야 다음 단계가 쉬워질지를 생각하며 올라가면 됐다. 용기를 잃을 까봐 아래는 내려다보지 않았다. 쪼그리고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선반 같은 바위에 도착해서 숨을 고를 때 올라온 길을 힐끗 내려다봤다. 숨이 턱 막혔다. 손으로 눈을 가렸고 선반 같은 바위에 달라 붙어서 다시는 아래를 보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거기서부터 훨씬 힘들었다. 바위는 풍화되어 달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쉽게 부스러졌다. 하지만 거의 다 왔다. 두 발자국만 더 가면 꼭대기를 볼 수 있다. 바위 틈새가 단단한지 확인하며 드디어 꼭대기에 도착했다. 그 때 머리위로 ‘왕’하는 낮은 소리를 내며 뭔가 돌진했다. 위를 힐끗 보니 독수리 한 마리가 그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하늘을 가로질러 펼친 날개가 그렇게 크고, 발톱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뾰른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뚜렷하고 침착하게 생각했다. 뗏목 쪽 출신의 가엾은 그 소년은 퍼덕거리는 어마어마한 날개와 강한 발톱이 있는 이 독수리의 희생물이라는 것을 냉정한 판단으로 깨달았다. 저 날개와 발톱이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일 것이다.

소년은 미친 듯이 벽을 긁으며 몸을 벽에 최대한 납작하게 붙였다. 독수리가 소년을 향해 돌진하며 날카롭고, 꿈쩍한 기쁨의 소리를 냈다. 머리를 때리는 충격과 공포에 거의 정신을 잃을 뻔 했다. 머리통이 찢어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으리라. 어질어질 했고, 숨이 찼다. 점점 어둡해졌고, 소년은 여전히 벽에 단단히 매달려 있었고, 독수리는 저 아래로, 아래로 떨어지며 카랑카랑한 소리로 잔혹하게 울었다.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시원한 바람이 머리로 불어 정신을 차렸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느꼈고, 이해했다. 모자였다! 노나 아주마니가 준 가족과 탈로 만

든 무거운 모자가 그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달라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독수리가 의기양양하게 움켜쥐고 간 것은 소년의 뒤통수가 아니라 모자라는 사실을 소년과 독수리는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그 이후에 어떻게 꼭대기로 올랐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공포감과 급한 마음에 바위를 활쫓으며 마치 파리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듯 재빠르게 움직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손가락을 절벽에 밀착했다. 꼭대기에 바위와 덩불이 있어서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독수리들이 내리덮치기를 반복하는 동안 소년은 커다란 두 바위 사이에 쭈그리고 앉았다. 이젠 독수리 두 마리와 싸워야 한다.

드디어 정상이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게 무슨 소용인가? 독수리 둥지로 가까이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설령 기적적으로 둥지로 가서 알을 꺼내온다 하더라도 그걸 들고 절대로 절벽 아래로 내려가지 못할 거다. 독수리들이 소년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다.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 어둠속에서 그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내려가다간 죽을게 분명했다.

이런, 비건 할아버지가 속인 것이다. 달라를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다. 뗏목 족의 비밀이 무엇이든 간에 소년이 영원히 알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는 분노에 차서 이를 악 물었고, 괴물 같은 새들은 뻑 하는 소리를 내며 달려들었다.

잠시 후, 새들이 사라진 듯했다. 귀를 찌르는 듯한 울음소리와 내려올 때 웅 하는 날개 짓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조심스레 머리를 들어 올리니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소년을 낚아채려고 허공을 치며 쓴살같이 내려왔다. 소년은 바위 사이에 몸을 수그리다가 머리를 부딪쳤다. 날카로운 곳에 부딪치는 바람에 얼굴을 따라 피가 흘러내렸다. 다시 비건 할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차올랐다. 뗏목생활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은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독수리 울음소리가 서서히 사라졌다. 달라는 머리를 돌려서 조심스레 위를 보았다. 큰 새 두 마리가 소년의 머리 위 흐린 하늘에서 높이, 더 높이 원을 그렸다. 하지만 독수리들의 사나운 눈은 여전히 그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움직임이 포착되면 몇 초안에 급강하해서 소년을 뜯고, 찢어버릴 것이다.

잠시 후 뭔가 일이 있었다. 독수리 한 마리가 새로운 비상사태가 생겼다는 신호를 하자 두 마리가 원을 그리면 날 던 것을 그만두고 소년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두 마리가 함께 우는 소리에 바위가 떨어졌고, 그 울림이 소년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렇게 울더니, 벼랑 아래로 날아갔다. 소년은 숨어 있던 곳에서 튀어나와 보고는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았다. 독수리들이 절벽 옆의 다른 희생물을 발견하고는 공격 대상을 바꾼 것이었다.

소년은 주변을 빠르게 살펴보고 동지를 발견했다. 그의 눈에는 양 한 마리도 들어 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커다란 마른 나뭇가지 꾸러미처럼 보였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달렸고, 소년의 주먹보다 약간 큰 두 개의 하얀 알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씩 만져보고는 따뜻한 것을 집어 들었다. 아, 비건 할아버지에게 보여줄 알이다. 이걸 들고 살아서 돌아가서, 늙은 염소 할아버지를 놀래 켜 줄 것이다. 속은 건 달라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될 것이다.

알을 두 손으로 동그랗게 모아 쥐고 달렸다. 하지만 마음이 급했고 승리감과 흥분에 취해 그가 있던 곳으로 달린 게 아니라, 덩불과 바위가 덜 한 반대방향으로 달렸다. 곧, 그 쪽은 몸을 숨길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독수리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돌아와서 소년이 그들의 소중한 알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제 14 장

하지만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두려워서 그냥 계속 달렸다. 벼랑 끄트머리에서 한 가운데 특 트인 곳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도 두려웠다. 하지만 빨리 몸을 숨길 곳을 찾아야 한다. 이쪽 절벽은 덩굴로 덮여 있었다. 돌투성이 벼랑 끝에 제멋대로 퍼진 덩굴은 벼랑 아래로도 늘어져 있었다. 덩굴이 발에 자꾸 걸렸다. 가장자리로 달려가서 살펴보았다. 바로 아래 튀어나온 바위로 뛰어 내려가면, 앞이 반쯤 달린 덩굴 커튼 뒤에 피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생각하려고 멈추지는 않았다. 만약 뛰는 걸 멈춘다면 용기를 잃게 될 것이다. 알을 몸에 붙여서 부드럽게 쥐고 뛰었다. 튀어나온 바위 가장자리에 불안하게 착지하다가 알을 떨어뜨릴 뻔했다. 한 손으로 간신히 덩굴을 잡고 살았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심장이 뛰었고, 두려움에 반쯤 숨이 막혔다. 주저앉았다.

몸을 뒤로 밀어서 덩굴 속에 숨었다. 당장은 안전했다. 독수리가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호흡이 자연스러워지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까지 떨고 흔들며 앉아 있었다. 지나간 시간들이 악몽처럼 소름끼치고,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순간들처럼 느껴졌다. 독수리가 맨 처음 그를 공격했을 때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 후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밀려 왔다. 비건 할아버지에게 알을 건 낼 때 그가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당혹스러워 할지 마음속으로 상상했다. 물론 소년은 알을 끝까지 안전하게 가져가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이미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잘 해낼 것이다.

목도리를 허리에서 풀어서 한쪽 끝에 알을 낄어서 매듭을 지었다. 목에 다시 둘러 어깨뼈 사이에 알이 오도록 했다. 이러면 손이 자유로워지고, 얼굴을 절벽에 붙여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약한 껍데기도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덩굴을 벌려서 바깥을 봤다. 독수리들이 보이지 않았다. 절벽 아래를 보니 웬지 생각보다 덜 위험하고 덜 가팔라 보였다. 아마 이게 맞을 것이다. 미끄럽고 손으로 잡을 만한 것이 없는 마지막 몇 걸음쯤 되는 구간에선 손으로 매달려 있다가 떨어졌다. 내려가는 길은 쉽고 빠르고, 길지 않았다. 착지할 때 이가 부딪치고, 정강이가 조금 까였을 뿐 쓰러지지는 않았다.

독수리들에게서 빨리 벗어나 비건 할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어 급히 길을 찾았다. 절벽 발치에 퍼두었던 망토를 발견했는데,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이것 때문이었다. 딜라를 공격하던 독수리들이 이 망토를 보고 아래로 내려왔던 것이다. 독수리들은 땅에 사람이 누워있다고 생각했던 게 틀림없다. 또 다시 노나 아주머니가 준 옷이 그를 구했다.

목초지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떨어지고 있었고, 그림자가 점점 길어졌다. 비건 할아버지는 불을 피워두고 있었다. 한참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불쪽으로 몸을 굽힌 노인이 보였다. 영소들이 주변에 모여 있었다. 갑자기 노인에게서 신비스럽고 낯선 분위기가 났다.

“아, 저분이 현자였어.” 소년은 생각했다. “나는 선택되었고, 이제 이 알이 우리가 걸린 마법이 원지 알려 줄 거야. 동화 속 이야기 같네. 나는 임무를 맡았고, 위험과 고난 속에서 그 임무를 완수했어. 이젠 시험에 통과했으니 답을 알게 되겠지.”

소년은 소중한 알을 조심스레 들고, 남은 길을 갔다. 노인의 집에 갔을 때 그는 몸을 돌리며 말했다. “오, 뗏목 족 딜라가 해냈어. 축하한다. 쉽지 않았을 텐데.”

딜라는 조용히 알을 꺼냈다. 노인은 기쁨에 찬 소리를 지르며 받고는 물이 끓고 있는 작은 주전자에 툇 넣고는 열심히 바라보았다.

“주문을 걸 건가요?” 잠시 후에 소년이 부드럽게 물었다. “마술 가루나 마술약이 필요하세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 비건 할아버지가 물었다. “정말 신선한 독수리 알은 소금만 조금 있으면 돼. 우리 집에 소금은 있지. 버터? 버터도 괜찮겠다. 하지만 영소 버터는 말고. 내 입엔 영 안 맞거든.”

딜라는 이 상황을 믿지 못하며 바라보았다. 저 현자는 독수리 알을 먹을 작정인가? 이것 때문에 소년이 목숨을 걸었던 것인가? 비건 할아버지가 주전자에서 물을 조심스럽게 따라내고 알껍데기를 깨서 내용물만 그릇으로 옮겨 담았다. “아, 신선한 독수리 알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 자, 그 컵 좀 줘봐. 나눠줄게.”

“고작 먹으려고 알이 필요했던 거예요?” 딜라가 소리 질렀다. “나를 골탕 먹이고, 속였어요! 알을 가져오면 내가 뗏목 족에 대해 뭔가 알게 될 거라고 했잖아

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비건 할아버지가 말을 끊었다. “네가 만약에 알을 갖고 오면 네 종족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 내가 말해 줄 테니, 그렇게 될 거고. 알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선, 만약에 네가 그 일이 너무 위험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했다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 알을 갖고 오지 않았어도 네게 말해 줬을 거거든. 하지만 너는 젊고, 강해니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해 내면 거기서 기쁨을 얻게 되지. 이게 젊고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야.”

그는 바닥에 붙어 있는 것까지 긁어내어 빵으로 닦아 깨끗이 먹었다. “나는 늙고 약해. 위험한 일을 해야 할 때는 나보다 젊은 몸과 마음을 가진 이가 필요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심지어 이젠 우리 별종 염소도 따라가지 못해. 또 사라져 버렸거든. 뜨거울 때 먹는 게 좋아. 아주 맛이 좋아.”

딜라는 뚱하게 그릇을 잡고 먹었다. 맛이 좋았다. 비건 할아버지 말이 맞았다. 하지만 소년을 속이진 말았어야 했다. 이게 아무리 맛있어도 한 끼 식사를 위해 절벽을 오르지도, 목숨을 걸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냈다. 노인의 말대로 딜라는 젊고 강하고, 용감하기에. 또 다시,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믿음직스러웠다.

“할아버지가 부탁을 했어도 알을 갖고 왔을 거예요. 저를 속일 필요는 없었어요.” 소년이 말했다.

“과연 그랬을까?” 할아버지가 물어봤고 소년에게 묘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아나라는 생각이 막 들어서 딜라는 부끄러워졌다. 할아버지가 딜라의 마음을 읽을까 봐 불안했다.

“했을 수도 있지. 또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난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는 게 재밌어. 장난기가 많거든.”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염소한테 배웠어.”

이 말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곧 별종 염소가 돌아와 돌아다녔다. “서둘러. 곧 어두워 질 거야.”

할아버지와 염소들과 갔다. 더 이상 그 노인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밤은 추울 것이고, 소년은 모자도 망토도 없고, 물론 먹을 것도 없었다.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곳도 여기서 한참을 가야 있을 것이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떠나면 될 거다. 오늘 밤 이후에는 더 이상 노인의 집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짙 요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 비건 할아버지는 불가에 앉아 있었다. 딜라에게 낚고 해진 울 코트 하나와 걸쭉한 죽 한 사발을 건 냈다. “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 아주 오래 전에.” 갑자기 말을 시작했다. “뗏목 측은 바다를 끼고 살았어. 고기를 낚아 사는 종족이었고, 배와 그물, 밀물과 썰물, 파도에 대해 빠삭하게 알았지. 이 나라의 겨울은 혹독하고, 해안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지역이야. 다른 곳보다 폭풍이 더 거세고, 바람도 더 매섭지. 낚시를 할 수가 없어. 굶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거센 폭풍에 배와 집을 잃기도 했어. 삶이 힘들었지.”

“그들은 산 아래 지하에 거대한 원을 그리는 동굴과 그 동굴을 따라 천천히 흐르는 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겨울 폭풍이 불 때 가끔씩 그 강에서 고기를 낚았어. 그 강은 물 반, 고기 반이었거든. 생선이 정말 많았지. 하지만 눈과 얼음, 모진 바람, 파도 때문에 강 입구를 드나드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어.”

“언젠가 몹시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 명이 죽었지. 그들 중에 별종 염소 같은 사람들 몇 명이 주장했어. ‘뗏목을 만들어 지하 강으로 들어가서 삼시다. 그 곳은 언제나 생선이 넘치고 폭풍도 치지 않고, 겨울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위험해 빠질 일이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따랐지. 모두가 동굴로 들어갔고 바위 터널을 끝없이 돌고, 돌고, 돌기 시작했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았겠어? 아마 그들은 입구가 어디지를 잊어 버렸을 거야. 아니면 땅이 움직여서 입구를 막아 버렸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인정하기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을 수도 있지. 어쨌든 그들 중에 살아가고 일하기에 ‘더 나은 곳’을 향해 가고 있고, 터널이 그 끝을 삼켜버린 게 아니라 놀라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 지금은 대부분이 이걸 사실로 믿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됐지.”

그는 아무 말이 없었고 딜라는 불을 응시했다.

“고맙습니다.” 딜라가 마침내 말했다.

노인이 어깨를 으쓱했다. “독수리 알 값이야.” 그가 대답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되돌아 갈 수 있나요?” 소년이 물었다. “입구를 못 찾으면

동굴로 어떻게 돌아가죠?”

“왜 돌아가고 싶은데?” 노인이 크게 놀랐다.

“우리 종족을 다시 이 세상으로 데려 나오고 싶어요!” 초조함에 외쳤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왜지?” 역겨움에 외쳤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구나, 그치? 네가 겪었던 일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어. 여태 동굴에 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데요?” 딜라가 소리쳤다. “지금까지 내 질문에 답을 해주거나 우리 종족에 대해 이야기 해준 현자를 한명도 못 만났어요. 단 한명도요.”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많은 걸 이야기 해줬어. 네가 귀를 기울여 들었다면 알았겠지.” 노인이 성냈다. “모든 사람이 한 분야에서는 현자지만, 그 분야 외에 대해서는 똑같이 어리석어. 자기들을 ‘호랑이에 맞서는 민족’이라고 부르는 벼지이들을 한번 봐봐. 그들은 충분히 지혜로워. 원가를 대비하고 준비해야하기 전까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잖아. 미리 대비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소용이 없지. 힘든 일을 피하려고 태어나기 전에 죽어버리는 사막에 있는 생명체도 있잖아. 또 산꼭대기에 사는 다정한 똥보 친구를 보렴.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지 인정할 수가 없어.”

“어떻게 아셨어요?” 소년의 눈이 커졌다. “제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고, 어디에 있었는지도 다 알고 있죠?”

“너에게 그 사람들 흔적이 있어.” 노인이 말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영원히 간직하게 될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보는 지는 묻지 마라. 이건 대답 안 해 줄 거든. 나이든 사람만 갖는 특권이야. 나이와 지혜가 쌓이면서 지식도 쌓인다고 말해 두는 게 지혜롭겠다. 더 이상 묻지 마라.” 활짝 웃었다. “거짓말이긴 한데, 진실을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아. 믿기가 힘들거든.”

“할아버지를 믿을 수 있어요.” 딜라가 주장했다.

“오, 이런 년 너 자신을 매우 믿는구나. 그치?” 노인이 외쳤다. “믿지 않을 거야. 너도 이미 그럴다는 걸 알고 있잖아? 세상에 진실보다 더 믿기 어려운 건 없어. 그럴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친절하며 똑똑하고 행복했겠지.”

딜라는 잠시 부루퉁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침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할아버지가 현자이고, 나에게 대해 모든 걸 알고 있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면, 왜 우리 종족을 도울 수 없는 거죠? 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노인이 답했다. “그들은 잔인하거나 부정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도 않아.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그저 약간 어리석을 뿐이야.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게다가, 누군가의 설득으로 그들이 살던 방식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니?” 그는 이마에 있는 상처를 가볍게 만졌다.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한테 어리석다고 지적하는 것을 친절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어. 어리석다는 말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많은 말 중의 하나야.”

딜라도 생각해 보았다. “맞는 말 같아요.” 인정했다.

“어쨌든” 노인이 계속했다. 그런데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지. 언젠가 호랑이에 맞서는 민족도 게으르게 사는 삶을 포기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식량과 뿔감을 저장하기 시작할지도 몰라. 그러면 사는 게 지금처럼 즐겁거나 유쾌하지 않을 거야. 모두가 당나귀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시작할거고, 누가 양을 몇 마리 갖고 있고, 누가 호박을 더 소유하는 게 맞는지를 생각하게 될 거야. 썰매를 놓고 싸우기도 하고, 포도가 주변에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잊고 포도덩굴이 자기 꺼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을 테지. 난 그들이 그런 어리석은 방식으로 똑똑해 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겠지.”

“하지만, 우리 종족은 바뀔 계기도 없었어요.” 소년이 울부짖었다. “그들은 죽어가고 있다고요. 가서 동굴에서 데리고 나와야 해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 노인이 말했다. “그것 보다 더 나은 이유가 있어야 해.”

“우리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오고 싶어요.” 딜라가 단호히 말했다. “더 나은 곳을 보여드리고, 낮과 초록색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 역겨워하며 노인이 말했다. “지금쯤이면 이미 돌아가셨거나, 눈이 안 보이실 거야. 만약 네가 할아버지를 모셔오고, 할아버지가 50년을 더 사시고, 좋은 시력을 유지한다하더라도, 1년 내내 눈이 높이 쌓여 있고 한밤중에 해가 빛나고, 모든 짐승들의 털이 하얀 곳 같은 나도 들어만 봤던 곳들을 결코 보려하

지 않으실 거야. 이빨이 네 키 보다 긴 짐승이 있는 뜨거운 정글도 가보려 하지 않으실 테지. 사람이 아무리 멀리 여행을 갈 수 있다하더라도, 보지 않거나 몰라도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 다른 이유가 필요해.”

“그들을 데리고 나오고 싶어요. 왜냐 하면...” 딜라가 말을 시작했지만 이유를 생각해 내지 못했다. 노인의 말이 옳을 지도 모른다. 강으로 돌아가는 길은 위험이 가득하고,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몹시 고된 여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단 한명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할아버지도, 아빠도, 비밀조차도 경이로움과 밝음, 투명한 공기의 그림자를 떠나자는 제안을 거절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년은 시도해 볼 수는 있다. 그는 젊고 강하기에. “젊고 강하기 때문에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노인이 말했다. 마침내 소년이 확고히 따라 말했다. “왜냐하면.”

노인이 벌떡 일어나서 손을 마주 쳤다. “오, 이제, 이유가 생겼어. 내가 축복해 줄게.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너를 도와주마. 자, 코트 받아라. 음식도 줄테니 갖고 출발하렴.”

딜라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갑자기 길을 떠나고 싶었던 이전의 열망이 식었다. “조금 더 있다가요.”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노인이 어깨를 으쓱했다. “알았어.” 그가 말했다. “강으로 돌아가는 것이 네게 중요한 일이라면, 당장 출발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랬어요.” 딜라가 대답했다.

노인은 가죽 가방에 빵과 치즈를 채워 넣었다. 그리고는 염소 가죽 한 조각을 가져와서 나뭇가지에 염색약 같은 것을 찍어 산맥의 지도와 그 아래로 강이 어떻게 흐르는지, 또 바다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그렸다.

“여기” 노인이 한 지점을 가리켰다. “넌 분명 여기에서 나왔을 거야. 강을 한 바퀴 도는데 약 1년 쯤 걸려. 그러니까 뗏목 죽은 조만간 네가 떠난 그 지점으로 돌아 올 거야. 서두르면 제때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여기, 사막을 피해 가는 길을 그려놨어. 하지만 웅고를 어떻게 따돌리고, 그의 귀리 케이크의 유혹을 어떻게 피할지는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해.”

“난 그 산을 이미 살펴봤어요.” 소년이 말했다. “하지만 내가 나왔던 곳을 찾을 수 없었어요. 살펴보고 또 살펴봤다 구요.”

노인이 말했다. “더 높은 곳에서 찾아봐. 산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은 다시 그 곳을 찾아올라 갈 때 내려왔던 것만큼 충분히 올라가지 않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산을 내려오는 건 올라가는 것보다 수월하거든.”

이제야 왜 동굴 입구를 못 찾았는지 깨달았다. 머잖아 강의 입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다.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죠?” 소년이 물었다. “또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지.” 노인이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스스로 알아 내야해. 하지만 이건 이야기 해주지. 난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아. 장난기는 있지만 거짓말을 안 해. 네게 한말은 모두 진실이야. 오히려 네가 네 자신에게 하는 말이 거짓이지. 가장 쉬운 종류의 거짓말이지.”

“난 안 그래요.” 소년이 단호히 말했다.

노인이 비웃었다. “넌 너 자신을 무지 믿는 구나.” 아까 했던 말을 반복했다.

딜라는 코트와 가방을 내 던지고 그 영소 노인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소년은 그것들이 필요했다. 소년의 할아버지를 위해 자존심을 억누르고, 핵핵 챙기고는 출발 했다.

“잠깐만, 잠깐만.” 노인이 불렀다. 뭔가 중요한 걸 말하거나, 여정에 도움이 될 마술을 써줄지도 몰라서 소년은 멈췄다.

노인이 소년을 향해 걸어 왔고, 그 앞에까지 와서는 갑자기 웃었다. 소년은 처음으로 비건 할아버지의 눈이 푸르고 온화하다는 것을 알았다. 얼굴은 못나고, 상처가 있고 코는 비뚤어졌지만 온화했다.

“잘 가라, 딜라.” 그가 말했다. “행운을 빌게. 내가 무슨 말을 했든, 다른 사람들에게 햇빛과 사랑스럽게 자라는 초록 잎을 보여주는 건 멋진 일이야. 내가 만약 너 같은 손자가 있어서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해 준다면 행복할 것 같구나. 이 길을 또 지나가게 되면 나를 꼭 찾아오렴. 너를 다시 만난다면 별종 영소와 내가 기쁠 거야.”

노인이 손을 내밀자 딜라도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안녕히 계세요, 비건 할아버지.” 소년이 대답했다. “이 길을 또 지나가게 되면 할아버지를 보러 올게요.”

그리고는 소년은 그가 왔던 길을 재빨리 걷기 시작했다.

제 목: JOURNEY OUTSIDE

저 자: Mary Q. Steele

출판사: PUFFIN BOOKS

1쇄 출판연도: 1969년

### 작가 매리 스틸(MARY Q.STEELE)

테네시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거기서 살았다. 세 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직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윌슨 게이지(Wilson Gage)라는 필명과 본명으로도 활동했으며, 청소년 소설 작가로 금방 이름이 났다.

매리 스틸의 남편인 윌리엄 스틸은 테네시의 시그널마운틴의 작가이다. 그녀는 새를 관찰하고 긴 시골길을 걷는 걸 좋아하는 독학 동식물 연구가이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전 누구든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을 위해 글을 씁니다. 소재는 벌과 버섯, 여우, 새 그리고 개미와 나무 등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들이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들의 마법과 경이로움, 살아 있음의 놀라움을 전달할 수 있을 까요? 내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 겠지만 시도는 계속 할 거예요.”